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성내는 마음을 가라앉히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
성냄은 독의 근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15일) 2018년 1월 31일 수요일



청년불자 산실, 호국연무사에 핀 군불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월 2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신년 첫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계받은 5000여 군장병들은 불심으로 하나로 뭉쳐 국가 안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사진은 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이 여군 훈련생에게 연비하는 모습이다. 향대신 도장으로 연비를 하는 것도 시대에 맞춰 바뀐 신행 풍속도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불교 항일인사 판결문 집대성한다

조계종 불교사회硏, 올해 불교 항일운동 조명 역점

80인 대상… 새인물 발굴
2차례 학술세미나 비롯해
연말에 사료 모음집 발간
잡지 · 선언문 등 5권 분량
봉정법회 · 유품 전시회도

교과서 불교서술 검토 후
2020 개편 오류 수정 요청
집필진 참고자료 배포 계획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내년 3.1운동 100년을 앞둔 올해 불교계는 항일인사 발굴 · 조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기존과 새로 확인된 불교계 항일인사 등 총 80인의 일제강점기 판결문이 집대성 돼 당시 불교계의 항일운동 업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일감)의 올해 주요사업은 크게 '항일인사 조명'과 '교과서 불교서술 개편 반영'으로 나뉜다. 먼저 항일인사 조명과 관련해 오는 6월과 11월 각각 호국불교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에는 이고경 · 박광 · 박민오 · 김법린 등 인물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을, 11월에는 항일의병과 통도사 · 표충사, 불교청년을 주제로 열린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올 연말 발간 계획 중인 5권 분량의 사료(史料)모음 자료집이다. 이는 불교사회연구소가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개인소유품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펼쳐 수집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불교계 항일인사 판결문과 알려지지 않은 불교잡지, 회고록 · 선언문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총 80인의 항일인사에 대한 판결문이 가장 큰 교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여기에는 현재 알려진 불교계 항일인사 외에 법명과 속명이 일치하지 않아 항일인사로 분류되지 않았던 인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자료집이 발간되면 일제강점기 불교계 항일운동의 영향력이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당시 항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가명을 쓰는 일이 빈번해 분류가 쉽지 않았지만 전문연구자들이 속명과 법명 일치 작업까지 마친 상황이다.

김광식 불교사회연구소 3.1운동 연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항일운동과 관련된 불교계 사료는 있지만 이를 한 데 묶어내는 작업은 드물었다. 임혜봉 스님의 저서 이후 이 같은 활동이 미진했다"면서 "최초로 불교계 항일 · 민족운동을 집대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연구자들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오는 3월경부터 판결문의 한자와 일본어 등에 대한 번역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초에는 3.1운동 100년에 앞서 항일운동 관련 사찰 및 개인 소장 유물과 유품 등을 취합해 불교중앙박물관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며, 이때 발간 자료집 봉정법회도 함께 봉행된다.

교과서 불교서술 개편 반영은 2017년 개정 출판된 초 · 중 · 고교 역사, 윤리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서술 오류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015년 불교사회연구소는 학교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 수록 내용에 대한 불교서술 오류를 수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각 교과서 출판사에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연구소는 올해 새로 수정 반영된 불교서술 검토 후 오는 6월 세미나를 열고, 미진한 부분이 2020년 교과서 개편 때 추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0년 교과서 개편작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됨에 따라 〈바람직한 종교적 기술을 위한 집필진 참고자료〉를 제작 · 배포해 불교서술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2015년 연구소 측이 도덕 · 통합사회 교과의 〈2015 개정 교과서 집필 참고자료〉를 제작,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를 비롯해 검정교과서 출판사 등 10여 곳에 배포했을 당시 각 출판사 반응이 매우 호의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불교역사 교양서인 〈청소년을 위한 한국불교사〉(가칭)가 2월 말 출판 예정이다. 이 책은 석가모니의 탄생부터 교단 결집, 중국불교 성립, 한국불교 도입, 삼국 · 통일신라 · 발해 · 고려 · 조선을 거쳐 불교계 독립운동까지 총 30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팔만대장경판과 〈삼국유사〉, 〈직지심체요절〉 등 찬란한 불교문화까지 소개한다. 지난해 실시하지 않은 대국민 여론조사 사업도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설문조사 설계 후 9월 여론조사를 실시해 10월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일감 스님은 "3.1운동 100년을 기념해 불교계의 성과를 내는 한편, 호국불교 연구를 통해 아직 규명하지 못한 역사적 부분들을 정리하고자 한다"며 "35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해 종단 발전을 위한 방향에 맞춰 추가적인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사지 출토 석편 알고보니 最古 '천자문'

박찬문 팀장, 1월 12일 목간학회서 발표

혜거국사비와 서체 같아
10세기 경 조성 추정돼
고려 사찰 한문교육 활용
묘법연화경 석경도 확인

서울 도봉서원 터 하층에서 확인된 영국사지서 출토된 석편 중 하나가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천자문(千字文)'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천자문' 석편이다.

박찬문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 팀장은 1월 12일 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회에서 발표한 '서울 도봉서원 하층 영국사지 출토 금석문 소개'에서 "2012년 출토된 석편 중 하나가 국내 최초이자 최고(最古) 천자문 석편"이라고 밝혔다. 석편 검증에는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과 이완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참여했다.

'천자문 석편'에는 천자문 총 250구 가운데 163구인 '치본어농(治本於農, 다스림은 농사로 근본을 삼는다)'의 '치본', 165구인 '숙재남무(載南畝, 남쪽 이랑에 나가 일을 한다)'의 '숙재', 167구인 '세숙공신(稅熟貢新, 익은 곡식에 구실을 매기고 햇것을 공물로 바친다)'의 '세숙'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영국사 혜거국사비편이 10세기에 조성됐다. 확인된 비편들의 서체들도 혜거국사비편과 유사하다"면서 "고려시대 초기인 10세기에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학회 발표 당시 시기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이완우 교수도 "천자문 석편의 석질은 다른 석경과 비편과 같다"며 "이는 고려시대 사찰에서 한문교육을 위해 천자문을 석각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희귀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팀장은 다른 석편 3점은 〈묘법연화경〉을 새긴 국내 최초 고려시대 석경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1점은 변상도 일부로 연꽃잎 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에 대해 이완우 교수는 "이들 석경은 서풍과 각법으로 볼 때 통일신라 때 조성된 구례 화엄사의 〈화엄석경〉, 경주 창림사지의 〈법화석경〉, 남산 칠불암의 〈금강석경〉의 전통을 계승한 고려시대 최초의 석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도봉서원은 1573년 조광조(1482~1519)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가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폐쇄됐다. 그동안 발굴조사에서 도봉서원이 고려 때 영국사 터에 세워진 것을 확인했으며, 고려시대 등 불교 문화재 100여점이 출토됐다. 현재 도봉서원 복원사업은 중단된 상황이다.





천자문이 새겨져 있는 영국사지 출토 석편(사진 위쪽)과 석편의 탁본(사진 아래쪽). 천자문 석편은 10세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부산聯 A5 성도재일 법회



설정 스님 A6 성도재일 법문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두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구입처 : 02)2004-8216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山寺서 SNS전법을… 뉴미디어 포교 박차

조계종 포교원, 신년기자회견서 7대 과제 제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 경기지역 청소년 중 불자가 20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는 비상한 각오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교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행혁신을 확산하고 미래세대로 전법 포교활동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뉴미디어 전법 포교와 청년 포교 등 불교 미래 개척에 앞장선다. 포교원은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8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책과제를 밝혔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향해 대중이 함께 실천해야 한다. '신행혁신 붓다로 살자'를 우리 삶의 영역에서부터 사회 제반영역으로 확대하고, 중장년에서 미래세대로 활동범위를 확장해 내일을 꽃피우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이 밝힌 주요과제는 △신행혁신 대중화 △지역포교 활성화 △포교콘텐츠 개발 △뉴미디어 포교기반 구축 △신도종책 개선 △총무원 교육원과 협력 강화 △포교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크게 신행혁신운동 및 지역포교 활성화와 미래세대·뉴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포교전략으로 요약된다.

신행혁신운동 V2.0 전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포교원이 추진하는 신행혁신운동의 대중화다. 포교원은 올해 사부대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신행혁신 캠페인을 교계 방송 및 언론 매체와 함께 진행한다. 또 신행혁신 지침과 일지, 자료를 사찰이나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공유한다.

이와 함께 123개 전법중심도량과 140개 불교대학에서도 신행혁신운동이 펼쳐진다. 지역별 지도자 간담회와 전법중심도량 공통신행·공익활동 등이 선정되며, 3월 포교사의날에는 포교사단과 함께 신행혁신 및 공동실천을 선포하고 전국 지역단과 추진한다.

'뉴미디어' '청년' 맞춤형 전법

불교 교세 회복을 위한 미래 세대 맞춤형 포교도 진행된다. 먼저 청년 대학생이 참가하는 신행축제가 열린다. 한글 신행의례 경연대회, UCC공모전 및 발표회, '절오빠 절언니' 토크콘서트 등 청년들의 고민과 관심을 공유하고, 종교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장이 마련된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가운데)과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왼쪽), 포교부장 가섭 스님이 올해 포교종책을 설명하고 있다.

언론매체와 신행혁신 캠페인
신행일지·자료 온라인 공유
포교사단과 공동실천 계획도

앱 개발, 포교 콘텐츠 보급
대중공사로 포교지표 조사

특히 청년세대들의 접근성이 높은 SNS를 비롯한 뉴미디어 포교기반 구축도 추진된다. 포교원은 포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보급함과 동시에 스님 법문영상 온라인 제공 등 포교콘텐츠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포교신도단체 소통 채널인 '모바일 도서관'을 개발하며 각종 포교 전법 소식 및 정보를 공유한다.

포교원은 종책개발 연찬회를 열고 뉴미디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종단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사찰의 신도들이 SNS 등에 익숙지 않은 점을 고려해 스님과 포교사, 각 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SNS활용 포교방법을 교육한다. 또 불자 웹툰작가, 동화작가 등 문화콘텐츠 창작가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불교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회도 제공된다.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뉴미디어 분야는 포교에서 강화돼야 하는 분야"라며 "기반 조성을 위해 첫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인프라 구축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곳곳서 '포교' 물결 만든다

2017년 호남지역을 시작으로 진행된 신행혁신 지역대중공사는 수도권 불교 활성화를 위한 서울지역 대중공사, 부산지역 대중공사, 대전지역 대중공사 등으로 이어진다. 또 10개 지역의 포교지표 조사도 이뤄져 공유된다.

각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포교콘텐츠 제작에도 박차를 가한다. 먼저 현재 각광받고 있는 불교인성교육과 불교 수행의 접합점이 모색된다. 올해 3~5월까지 '불교 전통수행을 활용한 인성프로그램'을 공모할 예정이다.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안내서도 마련된다. 불자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제시하는 '불자의 길'이 5월 중 발간되며 계율, 명상, 보살행 등에 대한 신행안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행의례도 개발된다.

3院 협력 '크로스오버'

포교 분야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교육·수행·실천이 함께 증장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은 총무원·교육원과 3원 협력을 강화해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총무원장 설정스님을 위원장으로 교육원·포교원·중앙종회·교구본사가 참여하는 '불교성전 및 불교사회교리서 편찬위'를 구성해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한다. 불교성전은 불자들이 손쉽게 갖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경전이며 사회적 의제에 대한 사회교리도 함께 편찬된다.

또 총무원과 연계해 사찰 인사고과에 포교항목을 반영한다. 교육원과는 승가대학 교과목에 포교개론을 반영하며, 포교 프레젠테이션 승가 공모전 등도 함께 진행한다. 포교아사리제도 신설해 사찰 종사자와 학인스님들에게 전법 방법론을 교육하는 인재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홍 스님은 "교육원, 포교원, 문화부, 사회부 등 각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 연대가 처음부터 잘 돼야 한다"며 "사찰 행정과 포교가 분리돼서는 안 되기에 총무원, 교육원뿐만 아니라 교구본사, 각 사찰과의 연계활동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끝으로 "올해 포교원은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신행혁신으로 불교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불자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선학원 이사회 "법진 스님 성추행 아냐"

진상조사위원장 철오 스님 "2심 공정한 판결 기대"

'여직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어 1심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선학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성추행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학원 기관지 〈불교저널〉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장 철오 스님은 1월 25일 서울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학원 정기이사회서 "법정 증인 심문 등에서 조계종 고위층의 다각적 개입과 고소인의 기억 왜곡에 대해 확인해 성추행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증거들이 전면 배제된 것에 대해 2심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1월 11일 "피고(법진 스님) 입장과 달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과 전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선학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철오 스님에게 전화했으나 기자임을 밝히자 스님은 곧바로 전화를 끊고 더 이상 받지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선미모)'은 선학원 이사회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예고했다. 선미모는 "선학원 정상화 촉구 공문을 이사회 임원들에게 보냈다. 2월 14일까지 답신이 없을 경우 이사회 직무정지 가처분 법률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선미모는 공문에서 △법진 스님의 일체 공직 사퇴 △이사회 혁신방안 제시 △전국분원장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윤호섭 기자

연수교육, '전법·실천' 중심으로 전환

조계종 교육원, 2018년도 연수 계획 발표

조계종 연수 교육 프로그램이 전법과 실천행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3월 7일부터 '종단리더십실무과정 1차'를 시작으로 올해 연수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원 연수프로그램은 전법과 실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처음 시행되는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다. 스님들의 전법교화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된 이 프로그램은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불교를 전하는 활동에 대해 연수교육으로 인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스님들의 자비행 독려·고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연수도 185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교육원은 "승가결사체 전법활동 연수는 스님들이 전법교화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면서 "이는 승려 연수가 정보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자비보살행의 실천으로 그 패러다임이 이동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웹 환경에 맞춘 '모바일 전용 연수교육 사이트'를 개설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조계종 스님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연수교육을 신청,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결사체 전법활동 연수 도입
모바일 연수 사이트 개설도
자원봉사, 185개 기관 확대

강좌형, 체험형, 순례형 연수 프로그램들은 스님들이 전법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 교육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교육원은 법계과정 11개, 사찰경영과정 4개, 경전과정 5개, 인문사회과정 7개, 체험과정 5개, 순례과정 8개(국내 3곳, 해외 5곳) 등 총 40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특히 새로 편성된 △현대인을 위한 선지도 방법론 △우리 역사 속 위기 극복 리더십 △4차 산업혁명과 불교 △스님들도 몰랐던 사찰 문화재 이야기 △설법과 스피치의 모든 것 △사경으로 신행지도하기 △중국 차문화 기행 △이집트·요르단·이스라엘 문명기행 등 13개 강좌들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스님들의 전법교화 역량 향상을 위해 모든 법계과정에 '불교음악' '우리말 불교의례' '호스피스' 등을 배치했다. 특별과정으로 종사·명덕(승랍 30년 이상) 법계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지도자최고위특별과정'을 신설했다. 올해는 제주지역의 불교를 탐방함으로써 제주 불교의 역사를 관찰해 보고자 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신흥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3월 8일

후보등록 2월 12~14일

속초 신흥사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금곡 스님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가 오는 3월 8일 열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35차 회의를 열고,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12일부터 14일이며,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서 선거법 제1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 입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서, 수행이력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2월 21일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하며, 3월 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거는 3월 8일 신흥사서 진행되며 단독 입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조실 경하당 현성 대선사 영결식 봉행에 대한 感謝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월 20일 圓寂에 드신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조실 현성대선사의 영결식을 1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에서 청담문도장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길에 조문해 주시고 직접 찾아와 큰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스님들과 제방의 스님, 사부대중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불교 발전과 도선사 중창을 위해 진력하신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추모재 안내

■ 초재 : 1월 26일 (금) 오전 10시 서울 현성정사 02)352-5405	■ 5재 : 2월 23일 (금) 오전 10시 서울 능인선원 02)577-5800
■ 2재 : 2월 2일 (금) 오전 10시 고성 옥천사 055)672-0100	■ 6재 : 3월 2일 (금) 오전 10시 부산 미타선원 051)253-8687
■ 3재 : 2월 9일 (금) 오전 10시 부산 내원정사 051)242-0691	■ 49재 : 3월 9일 (금) 오전 10시 서울 도선사 02)993-3161
■ 4재 : 2월 16일 (금) 오전 10시 서울 현성정사 02)352-5405	

불기 2562년 1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조실 경하당 현성대선사 문도회 합장
상좌 지광·종성·마가·종호 두손모음

2018 봉은사

강남 포교 1번지, 수행·기도 성지로

1월 25일 신년 기자회견서 수행기도 중심 방침 밝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날 기자회견에는 봉은사 사중스님들과 신도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원명 스님(오른쪽 사진)은 수행 · 기도로 청정도량으로 봉은사를 가꾸겠다고 밝혔다.

기도중심 도량 정착
매일 사분정근 수행
다문화 연등 조직, 법회
함께 정진하는 문화 조성

수행 문화 공간 확보
3000명 수용 대법륜전 건립
극장식 구조, 문화행사 소화
미륵대불 후벽면 원불 봉안

교육 · 문화유산 보존 정비
기초학당 국장 담임제 도입
생전예수재보존회 설립
'판전' 문화재 지정 추진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가 수행과 기도 중심 도량으로 변모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월 25일 봉은사 다래헌에서 2018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진각 스님, 교무국장 서송 스님 등 봉은사 스님들과 종무원, 홍선심 신도회 사무총장 등 신도 대표들이 참여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종단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강남 지역의 포교를 담당하는 사찰로, 수행가풍 확립의 기조에 맞춰 수행 기도 중심도량으로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매일 끊이지 않는 기도

먼저 봉은사는 3월 12일 33관음보살 대원성취 천수다라니 정진기도에 입재해 매월 음력 24일 33개월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신도 동참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기존 다라니기도를 매월 자비수참철야기도로 변경한다.

신도들의 수행을 점검하기 위한 신행수첩도 보급된다. 보시와 정진, 지계, 법회 및 기도참석 등 일일단위 신행을 점검하도록 한다. 또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일요법회서는 가족이 함께 합창단과 찬불가를 배우는 자리가 마련된다.

일요법회서는 봉은국악합주단과 함께 찬불가를 배우는 시간도 진행되며, 매월 마지막 주에는 재가자가 진행하는 다채로운 법회가 도입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연등법회도 신설돼 소외계층도 함께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000명 수용 법당 마련

봉은사는 법회마다 5000명 이상씩 운집할 뿐만 아니라 연평균 10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사찰인 만큼 수행공간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봉은사는 지난해 전통문화체험관 1관과 2관을 준공한데 이어 3관인 템플스테이 전용체험관 불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신종루, 매화당, 응향당 등을 개축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3000명을 수용하는 법당인 대법륜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명 스님은 "봉은사는 초하루 법회 경우만 해도 4~5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여,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봤다. 가장 큰 공간인 법왕루만해도 500명 수용에 불과하다. 또 고령화로 연로하신 불자들이 좌식에 힘들어 하며, 청년불자들도 입식문화에 익숙하다. 주차장 부지에 지하 6층 규모로 입식 극장식 현대화된 법당을 만들 계획"이라며 "3000명 가량의 법당에서 연극과 문화행사 등 평소 공연장 용도로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봉은사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 지역단체 등과 지속 논의해 현 주차장 공간을 지상 3층(전통문화 공간), 대강당과 주차장이 합해진 지하 6층 공간으로 개발한다.

생전예수재, 발우공양 등 문화 정비

이와 함께 봉은사가 지닌 무형유산을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생전예수재의 문화재 등록이다.

원명 스님은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의미에 대해 "조선시대 명맥이 끊겼지만 봉은사에서 1600년대 생전예수재를 지낸 기록이 있다. 불교의례 중 영산재, 수륙재만 문화재 지정을 받은 상태로 생전예수재의 문화재 지정이 불교의례 제도화의 완성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생전예수재 계승을 위해 사찰출연법인으로 '생전예수재보존회'를 등록했으며 지난해 6월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이 허가됐다.

현재 봉은사는 발우공양 또한 서울시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 준비 중에 있다. 경내 전각 중 판전은 2016년 서울시 문화재 등재 신청한 상태이며, 선불장 또한 구들장을 복원하는 등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청년 · 외국인 위한 사찰로

이와 함께 2017년 6월 청년 불자 확보를 위해 108청년회를 발대한데 이어 올해 어린이법회, 파라미타법회, 대학생법회 등 활성화를 위해 계층별 홈페이지, SNS를 개설해 계층포교 활성화에 나선다.

또 영유아 마정수기법회, 청장년 불교식 전통혼례, 웰다잉프로그램 등 연령별 사찰의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목요상설 국악콘서트, 특별템플라이프가 진행되며 불교영어강좌를 통해 언어 봉사자 역량 강화와 외국인들을 위한 봉은사 영문 매거진도 발행된다.

원명 스님은 "수행을 통해 불교 기본정신을 되짚고 사부대중이 화합하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KTX해고승무원 "불교계에 감사"

1월 23일 설정 스님 예방

KTX해고승무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종교계의 중재로 승무원들의 환수금 문제가 일단락된 데 대해서다. 승무원들은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 문제에도 관심을 호소했다.

KTX해고승무원들은 1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예방하고 환수금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불교 등 4대 종단의 중재로 1월 16일 KTX해고승무원들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돌려줘야 할 환수금이 기존 금액의 5%인 총 1억 4256만원(1인당 432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총무원장 스님이 다른 종단과 함께 중재안을 제출해주셨다. 덕분에 환수금 문제가 잘 해결돼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많은 스님들이 108배, 오체투지 등 수행을 활용해 항상 도와주셨다"고 인사했다.

이에 설정 스님은 "사회노동위원회와 조계종 사회부에서도 나서서 잘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는 1월 25일 오후 1시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KTX승무원 복직을 염원하는 108배를 진행했다. 사회노동위는 같은 날 오후 3시, 하이디스 노동자 해결 촉구를 위한 문제해결 기도회도 봉행했다. 박진형 기자

군포교 오랜 과제 전역 군종병 관리 네트워크 '본격화'

군종교구와 대불청, 대불련 1월 25일 MOU

매년 100여 명 전역, 관리 시급
사찰 · 불교학생회 적응 도와
대학서 불교군종병 지원 홍보
군생활 멘토링, 진로 상담도

"스님, 저 전역합니다. 덕분에 군생활 동안 신심이 높아졌습니다. 제대 후에도 꼭 사찰에 나가겠습니다."

군부대 장병 중 가장 부처님에게 가까운 이는 누구일까. 바로 군법당 지킴이 불교군종병이다. 장병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이끌어 온 불교군종병들을 청년불자의 핵심으로 키우기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 등 청년단체는 1월 25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군종병 네트워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종병은 크게 인가와 비인가 군종병으로 나뉜다. 인가 군종병이란 입대할 때부터 군종 병과를 받아 군법당에서 복무하는 정식 군종병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의해 군종교구는 전역하는 불교군종병들의 정보를 대불청과 대불련 등과 공유하며, 대불청, 대불련 활동경력이 있는 군종병 지원자를 우대하여 선발한다.

대불청과 대불련은 청년회와 불교학생회에서 군종병 지원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입대 전 사전 불교교육을 지원한다.



중요한 점은 제대하는 불교군종병들에게 청년회와 불교학생회 등 다양한 모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대한불교청년회 차원에서 이들이 각 사찰청년회와 대학 불교학생회에서 수월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맡는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140여 인가군종병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비인가 군종병에게까지 확대된다. 조계종 군종교구에 따르면 전체 군종병은 350여명 수준으로 매년 전역자만 1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청년불자 확보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네트워크 구축을 앞두고 그동안 수계장병의 전역 후 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불교계 목소리가 높았다.

군종교구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과 군 내 종교중립 등의 문제로 장병들의 정보 네트워크는 현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불자로서 소양을 닦을 불교군종병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진행되는 국방부 군종병 자체 선발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불교군종병을 병무청 전문특기병으로 단일화, 일선 부대서의 선발을 폐지했다. 불교군종병은 홍보 부족으로 그동안 이웃종교계에 비해 지원율이 저조했다. 대불련에서의 불교학생회 회원들의 군종병 입대 독려 등으로 군종병 수급 또한 원할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군장병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이며, 불교군종병들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이라며 "군생활 동안 신심으로 수행정진한 이들을 불교계 핵심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은 "불교군종병 역량 강화를 위해 입대 전 교육도 중요하다. 군종병 출신 회원들이 군생활 멘토링을 비롯해, 전역 후 진로상담 등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도반HC-동국대 상호발전 사업 모색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와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모색한다.

도반HC(대표이사 설정)와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이 같은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법인과 종단 간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과제 도출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출판 · 미디어 · 부동산컨설팅 · 기획제작 · 유통 등 산학협력과 관련된 공동사업을 구상할 방침이다.

이 자리서 도반HC 대표이사 설정 스님은 "동국대는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세워진 학교로서 종단과 결코 둘이 아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함께 발전하고, 세상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새해 법보시

마음이 사람을 그릇되게도 만들며, 마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마음이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천사를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사람답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축생으로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 〈불반니원경〉

윤수납자 합장

인재 DB로 복지 인력 인프라 넓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종무기조 · 핵심과제 발표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불교사회복지 전문인재들의 정보를 모아 DB구축에 나선다. 불교사회복지 활동범위가 늘어남에도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읽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은 서울 견지동 1월 24일 전법회관 보리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무기조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재단은 '무한복지 무량행복(無限福祉無量幸福)'을 2018년 종무기조로 인종 · 사상 · 연령 · 성별 · 지역 등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끝없는 복지실천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재단은 올해 핵심과제로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 설립 확대 및 운영 안정화 △불교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체계화 △인적자원 확보 및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문 인재 관리 △불교자원봉사 활동 조직화 및 긴급재난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소외이웃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이 중 눈에 처음 시도되는 '불교복지 인적자원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문인재 관리'가 눈길을 끈다.


상임이사 묘장 스님이 신년 계획을 밝히고 있다.

불교복지 인적자원 확보

재단은 인적자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국 각지의 인재 정보를 모아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불교사회복지시설은 늘어나는데 실질적 불교사회복지 인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데서 착안했다.

재단은 우선 산하 사회복지시설,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인적자원 정보를 취합할 예정이다. 불교적 소양과 사회복지 현장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 및 실무자를 양성하고 관리한다는 취지다. 또한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사업 및 교육커리큘럼을 개발 ·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불교사회복지 전문가 분포를 알 수 없는데 대한 해결방안으로 풀이된다. DB가 구축되면 인력자원은 신규 시설 위탁을 맡기거나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에 전문가로 배치되는 등의 방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개념정리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종단 내 일원화 된 삼귀의와 반야심경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불교사회복지'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교사회복지 교육커리큘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 확대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중 사회복지법인을 운영 중인 본사는 12곳이다. 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은 "조계종 새 집행부의 기조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확대하고 운영을 안정화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복지법인 미설립 교구본사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설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에 집중된 시설 운영과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목적이다. 1교구본사-1복지법인을 통해 지역간 사회복지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설립준비 교구본사 방문을 통한 행정지원 및 법인설립을 독려 중이다.

또한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 사무국 역량을 높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 유치 ·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설립된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대상 워크샵, 간담회, 방문컨설팅을 통해 △행정운영 △산하시설 지도점검 교육 △위 · 수탁 운영 노하우 △시설민원관리 교육 등을 돕는다.

활동 조직화, 시설 내실화도…

지난해 11월 15일을 기점으로 발생한 포항 지진 사태에 조계종의 발빠른 긴급구호단 파견은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회복지재단은 종단, 재단, 지역 사찰 및 단체로 이어지는 긴급재난 네트워크를 구축해 앞으로도 재난에 발빠르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질적 담보를 위해 운영시스템도 정비된다. 기존 1년에 2번 진행되던 시설장 임용평가를 강화해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시설장의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다. 하반기에는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대상 '전국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따른 평가 점검 및 행정지원도 이뤄진다.

묘장 스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헌신해온 불교사회복지를 보다 활성화 하고,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불교사회복지의 허브(HUB)로 거듭나겠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참여 속에 지속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재소자 · 불우이웃 대부, 현성 스님 입적

1월 20일 입적, 24일 영결 다비식 거행


청담문도회장으로 진행된 현서어 스님 영결식에서 후학 스님들이 스님의 원력을 잇기를 다짐하고 있다.

재소자, 독거어르신 등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묵묵히 이끌어 온 서울 도선사 조실 경하 현성(玄惺) 스님의 1월 24일 영결 · 다비식이 서울 도선사 호국참회원과 남양주 보광사에서 엄수됐다.

영결식과 다비식에 참석한 500여 대중은 눈물로 현성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청담문도회장으로 엄수된 이날 장례에는 조계종 전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 원로의원 종하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등 오랜 도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영결식과 다비식에서 불자들은 현성 스님이 생전 보여준 전법교화의 원력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을 대신해 동광 스님은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사슬을 끊었으니 얼마나 가벼우십니까. 왕생보다도 더 큰 열반의 즐거움을 만끽 하실 테니 얼마나 기쁘십니까"라며 추모했다.

조계종 前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은 영결법어를 통해 "스님에게 무량자비지은(無量慈悲之恩)을 입은 대중들이 항하(恒河)의 모래들만큼이나 많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마다 니전에서 피어난 기연의 연꽃처럼 선연의 향기를 퍼뜨리셨다. 한국 근대불교 최고 선지식이신 청담대종사의 법맥을 계승하여 도선사의 불사를 전두 지휘하셨다"며 기렸다.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항상 청담 문도회를 생각하시며 문중의 화합을 위해 진력하셨던 사형스님"이라며 "한국불교를 위해 청소년 교화를 위해 진력하셨고 신도들의 보시금을 아껴 군법당 건립과 구치소 교화에 열정을 쏟으셨다"고 회고했다.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등 상좌 스님들은 "큰스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과 중생제도에 신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현성 스님은 1월 20일 법랍 53년, 세수 80세로 입적했다. 스님의 49재는 현성정사에서 초재를 시작으로 고성 옥천사, 부산 내원정사, 현성정사, 능인선원, 부산 미타선원에서 이어진다. 49재는 3월 9일 도선사에서 봉행된다. 〈관련 추모기고 A19면〉

노덕현 기자

2018년 한마음선원 장엄등은 '해수공용등'

1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장엄등불사 화합재 봉행

2018년 연등회를 화려하게 장엄할 한마음선원 장엄등 계획이 공개됐다.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은 1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불교문화회관에서 '2018 한마음선원 장엄등불사 화합재'를 열고, 장엄등 불사 돌입을 알렸다.

이날 화합재에는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해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각 지원장 스님들과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 300여 명이 참여했다.

2018년 한마음선원 장엄등은 해수공용등으로 모든 생명들이 모여 한 바다를 이룬 가운데, 어느 생명 하나 빠짐 없이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며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해수공용등은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배 형태로 일체 만물의 근본 불성을 형상화 한 것이다.

국인호 한마음선원 청년회장은 "각자에게 갖춰져 있는 근본불성을 믿고, 일체가 나와 둘이아니라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대장부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엄등 불사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해수공용등에 담긴 뜻을 잘 새겨서, 각자 맡은 소임에 충실하고, 화합하고, 정진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한다. 청년들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많은 신도님들과 함께 하는 스님들의 손길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정진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한마음선원은 1월 21일 안양본원 불교문화회관에서 화합재를 열고 장엄등불사 돌입을 알렸다.

한편, 한마음선원은 매년 연등회에서 대상격인 정진상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수상하고 있다. 특히 수개월간 청년회와 신도회에서 조직적으로 장엄등 제작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덕현 기자

LA서 진행된 첫 미주 공승법회 눈길

LA달마사서 1월 21일 300여 불자 운집

LA조계종연합회(회장 현일)는 1월 21일 LA달마사에서 '2018 남가주 불자 신년하례식 및 공승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LA포교사단과 사찰연합합창단, 그리고 LA불교대학, 타라연합청년회 등에서 3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9대 LA조계종연합회 신화생 포교사단장과 10대 장준구 단장의 이 ·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신년하례식에서는 공승법회가 함께 열렸다. 미주한국불교 최초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는 LA지역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공양물을 올렸다.

회장 현일 스님은 환영사에서 "스님들은 끊임없는 정진과 수행을 통해 전법교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스님과 불자가 서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새롭게 시작된 한 해, 힘차게 정진해 가자"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첫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성도재일기념 승보공양대법회서 108명의 재가불자들이 스님들에게 황금색 보자기로 포장한 공양물을 정성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이에 스님들은 합장한 채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을 다짐했다.



법석에 오른 종정 진제 스님이 대중에게 일념으로 화두 참구를 당부하고 있다.



도량청정결계를 위해 향탕수를 뿌리는 스님들.

승보공양으로 수자타 된 부산불자들

조계종부산聯, 제7회 성도재일기념 대법회 봉행

승보공양, 삼보 수호 전통 이어
불제자 의무 돌이켜 정진 다짐
2000여 사부대중 佛法 찬탄해
"일념으로 화두 들고 정진하라"

부산=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재가불자 108인이 황금색 보자기로 정성스레 포장된 공양물을 든 채 가사장삼을 수한 스님들 앞에 섰다. 불자들은 공양물을 눈썹 위로 들어 올렸다가 짧은 기도 후 합장한 스님들 앞에 내려놓았다. 공양물을 전한 불자들과 이를 받은 스님들은 서로 합장인사를 올리며,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성도를 깊이 찬탄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 유미죽 공양을 올린 수자타의 정성이 부산서 재현된 것이다.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재일을 기념하는 승보공양대법회 현장에서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1월 21일 부산항 컨벤션센터 5층에서 '제7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매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인 성도재일을 기념하는 대법회를 열고 의미를 되새겨왔다. 승보공양대법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승보공양을 통해 불·법·승 삼보를 수호할 의무와 공덕을 함께 알리는 자리다.

승보공양대법회는 먼저 신묘장구대다라니 합송으로 시작해 향탕수를 뿌리며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도량청정결계로 이어졌다. 이후 스님들이 입장하자 불자들은 통로를 향해 몸을 돌렸다. 스님들을 향해 합장하며 기도하는 불자,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불자 모두의 얼굴에는 환희가 가득했다.

이번 승보공양에는 재가자뿐 아니라 스님들도 앞장서 눈길을 끌었다. 前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품〉 2000부를 스님들과 재가자들에게 나눴으며, 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은 〈화엄경 약찬게〉 2000부를 후원했다. 이외에도 한마음선원과 문수선원, 능인향당, 김해 반야라마, 부산불교여성개발원 등 많은 승·재가가 동참했다. 법회 후에도 미처 공양에 참여하지 못한 불자들은 후원금을 보시함에 넣고 공양을 올렸다.

승보공양 후 종정 진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사부대중 모두 용맹정진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세 가지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활 속에서 언제나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참구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이 화두가 일념에 지속돼야 한다"고 법문했다.

법문 후 무비 스님은 공양을 올린 재가불자를 위한 〈축복경(망갈라숫타)〉을 낭독하며 대중 행복을 기원했다. 이에 앞서 홍법사·혜원정사·해광사·대광명사 등 사찰 신도 62명이 직접 준비한 육법공양을 불단에 올렸으며, 양재생 조계종 부산연합회 신도회장의 환영사와 회장 심산 스님의 대회사로 행사의 의미를 널리 알렸다.

재가자를 대표해 양재생 신도회장은 "법희 선열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수행을 밑받침으로 삼아 많은 일을 해왔다. 이에 스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코자 귀중한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장 심산 스님은 "이 법회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 재가불자는 승보에 공양을 올림으로써 더욱 신심을 고취시키고, 스님들은 수행과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답하는 환희의 법석"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불교 대화합과 다가올 세계 화합의 마당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함께 기원한다"고 밝혔다.

내빈들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불자들은 승보를 받들고, 공양을 받은 스님들은 정법안장의 책무를 느껴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승보공양대법회를 통해 승가를 예경하고, 신심을 고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재가내빈 중 서병수 부산시장과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이 축사로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스님들에게 3배를 올려 승보공양에 동참한 재가불자를 대신했다. 이후 연합회는 공로자 시상식에서 이승표 前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에게 개인상을, 선향다회에 단체상을 수여했다.

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은 승보공양에 동참한 것이 더 없는 기쁨이자 복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분남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은 "보시를 하려면 보시하는 사람과 보시 받는 사람 그리고 보시 물까지 3가지가 청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삼륜청정이라고 표현한다"며 "이 거룩하고 여법한 법회에 동참해 불자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진희 범어사불교청년회장은 "지난해 처음 승보공양이 열렸을 때 새롭고 좋아서 계속 열리길 발원했다. 올해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신심 난다. 앞으로 작은 것이라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재가자 108인 공양단에 참여한 이성경(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불자는 "공양물을 준비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 정성이 오롯이 전달되길 기원했다"며 "공양 올린 분들도, 받으시는 스님들께서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승보공양은 단순히 공양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불제자로서 서로의 의무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다시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무비 스님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후 삼보를 보호하고 받드는 신도가 탄생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삼보는 신도들의 보호와 귀의를 받으면서 열심히 수행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세상의 사표가 돼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보공양에 대해 "오늘 날 새롭게 승보공양법회를 열어 행사를 하는 것은 신도와 스님들이 서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운동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 여법한 불교를 펼쳐보자"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승·재가 승보공양 후원 동참 신청을 받고 있다. 후원은 매월 정기 후원과 일시불 및 공양물로 동참 가능하다. (051) 501-7554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조계사 성도재일 특별법문

“진실한 마음 하나로도 성불 이룬다”

주제 : 부처님의 15가지 깨달음

설정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5년 수덕사에서 혜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1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8년 입적한 원담 스님 뒤를 이어 2009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덕숭총림 제4대 방장을 지냈다. 8대와 10대 중앙종회의원을 거쳐, 제11대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했다. 2017년 10월 12일 제 35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성도재일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날이다. 그 의미를 되새기듯 불자들의 표정은 더욱 진지했다. 밤이 깊어도 불자들은 사찰을 떠나지 않았다. 밤 9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조계사 법당으로 들어섰다. 설정 스님은 1월 23일 조계사서 ‘부처님의 15가지 깨달음’을 주제로 법문했다. 설정 스님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하고, 우리 중생들도 부처님을 따라 공부하고 정진해야 한다고 설했다. 또한 설정 스님은 “이 세상 모든 존재들 다 보고 시방세계를 다 뒤져도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귀의한다면, 그 진실한 마음하나만으로도 모두 다 성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리=박진형 기자

〈초발심자경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拜膝(배슬)이 如氷(여빙)이라도(게송)**—날씨가 추워서 절하려고 할 때, 옛날에는 배슬, 옷이 시원찮았죠. 그래서 무릎이 시리죠. 절하는 그 무릎이 얼음같이 차더라도 **無戀火心(무연화심)하야(게송)**—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절하는 그 무릎이 얼음같이 차더라도 풀 생각을 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선 배가 고파 주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고통스러워도 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만큼 신심이 있으면 입을 생각도 먹을 생각도 없이 정진하게 됩니다. 참선하시는 분들, 염불하는 분들, 주력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일념이 되었을 때 모든 일체의 분별망상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새벽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며 성불 하셨습니다. 샛별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진을 하다보면 정진의 힘이 성숙되었을 때 어떤 경계가 나타나도 깨달음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모든 생명이 겪고 있는 인연법칙을 따라 무상하지 않은 것이 없을까 하고 왕궁을 떠나서 출가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 살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진실로 행복한 것을 찾기 위해, 왕국을 떠나 수도의 길에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바세계가 어떠한 곳이기에 그렇게 부처님도 힘들었고 사바세계가 무엇이기에 고해라고 했을까요?

잘 산다는 것

우선 이 세계를 애욕의 세계라고 합니다. 애욕이라는 것이 잘못 빠져 들어가면 마치 수렁과 같아서 고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는 것이 불만스러워집니다. 무엇인가 모자라고 어떤 것을 해도 마음에 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더운 날에 물을 찾듯이 목마른 욕구가 항상 있습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목마름, 친구에 대한 목마름, 애정에 대한 목마름, 부모에 대한 목마름, 사회에 대한 목마름 등이 항상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우울증과 조울증은 여의치 못한 갈망에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포심입니다. 의구심도 엄습해옵니다. 항상 엄습합니다. 저것이 가짠가, 진짠가. 맞는가, 안 맞는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하는 의구심이 항상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또 일어납니다. 남이 잘하는 걸 못 봅니다. 항상 무언가, 누군가 없어서 헤매고 허덕이고 삽니다. 이것이 사바세계에 사는 보통사람들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차안(此岸)이라고 합니다. 차안은 괴롭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괴롭고 어둡고 치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싶은 피안(彼岸)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고요하고 맑고 깨끗합니다. 자연스러우며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바세계와 피안과 차안의 차이점입니다.

애욕세계서 느끼는 강제 · 구속 등
벗어나 자유인 되면 잘 사는 것…
정각의 산을 불퇴전의 신심 갖고
뚜벅 뚜벅 올라 대각 성취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요?

잘 산다고 이야기 하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구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구할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써도 써도 다함이 없는 것.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함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겁니다. 원망과 분함이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행복하지요. 공포와 비애가 하나도 없으면 행복합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속에는 강제와 구속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강제하고 구속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항상 자유스러운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열반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15가지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바로 이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설산에 들어가 턱 앉아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납월 아침에 별을 보고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보통 중생들은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표정으로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생각 이전에 표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생각이전에 말로, 말 이전의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견성해야 알 수 있습니다. 말 이전에 소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언전소식(言詮消息)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깨달은 경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앞의 언전소식에 이은 두번째 깨달음은 일체승자(一切勝者)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자라는 겁니다. 우주의 근본실상을 다 아는 것입니다.

이어 부처님의 세 번째 깨달음은 무염(無染)입니다.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어디든 걸리고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돈에 물들고 병에 물들고 애정에 물들고 오만 것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일체의 것에 물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역대의 모든 조사와 선지식들 역시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이사(離私)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고 버렸다. 모든 것을 놔버렸다는 것입니다. 윤회의 근본은 집착입니다. 그것도 착각으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 착각 때문에 노루가 무지개의 아지랑이를 보고 물인 줄 알고 쫓아가지만 물이 아니죠. 벌 나비가 여름에 환한 불빛을 보고 화려함에 달려갔는데 결국 불이 붙어서 다 타죽죠. 마치 중생들이 무엇인가 집착해 달려들었다가 결국은 그로인해 죽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다 놔버리고 아주 떠나버리고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갈애가 없어졌다는 진갈애(盡渴愛)입니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애정을 갈애, 목마른 애정이라고 합니다. 소금 먹은 놈이 물을 찾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제 풀에 죽습니다. 그런 갈애가 다 없어지셨죠.

득해탈(得解脫)이 여섯 번째 입니다. 일체 구속에서 다 벗어나버린 것이 득해탈입니다. 명예 · 돈 · 애정 · 슬픔 · 미움 · 시기 · 질투에서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일체의 것이 없는 가운데 밝음과 자비와 지혜, 열반이 주는 기쁨,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일체의 것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어떤 공포나 아쉬움, 어떤 부족함에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일곱 번째로 원만자각(圓滿自覺)이라 합니다. 원만히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달음입니다. 전체를 다 원만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덟 번째를 무사(無師)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얻으신 깨달음입니다. 지도를 받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스승이 없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홉 번째를 무비(無比)라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비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방 세계의 어떤 것에도 부처님의 그 원만하고 밝고 지혜스러운 것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열 번째는 세보(世寶)라 합니다. 나는 이 우주 속에 가장 보배스런 존재입니다. 보배가 아닐 수가 없겠지요. 열한 번째는 무상사(無上師)입니다. 나 이상의 스승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처님 같은 스승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는 정자각(正自覺)이라 합니다. 바르고 진실한 깨달음입니다. 열세 번째는 청량(淸涼)이라 합니다. 상쾌함이죠. 그 열반에 든 그 경계가 상쾌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원만하고 그 시원한 그 경계가 말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네 번째가 법륜(法輪)입니다.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일체중생을 다 구제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가 감로고(甘露鼓)입니다. 감로의 그 북을 쳐서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그 고통에서 다 건져주리라.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부처님이 깨달은 열다섯 경계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아름답고 원만합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고 행복한 것입니다.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삼학도가 멀어집니다. 축생의 세계가 나로부터 멀어집니다.

천상천하무여불(天上天下無如佛)(게송)—하늘 아래나 하늘 위나 부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들 다 보고 시방세계를 다 뒤져도 부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귀의하겠다면, 그 진실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모두 다 성불할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퇴전이라고 합니다. 근기가 약한 분은 뭘 하려고 하다가 뒤로 나자빠지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정각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려했다면 쉬지 않고 뚜벅뚜벅 올라가야 합니다. ‘아 힘들겠네’ 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씩 가는 순간순간이 불퇴전의 신심입니다. 불퇴전의 신심으로 꼭 정진해서 대각을 성취하기 바랍니다.

謹賀新年

사단법인 해동불교약사종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전법도생과 자비공생을 함께 하실 제방의 인연을 모십니다

宗 상구보리(上求菩提)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하고
旨 하화중생(下化衆生)은 전법도생(傳法度生) 자비공생(慈悲共生)한다.

선교겸수(禪敎兼修) 수행하면서
약사경을 소의경전으로 수지 독송하고
투철한 약사신앙을 실천하는 불교
그 맥을 정립하여

절(寺)에 오고 가는 뭇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고통이 사라지고 심중소구 원만하며
스님을 친견하면 희망을 담아가는 곳.

유구(悠久)한 전법도생 가람으로 만들면서
우리 서로 화합하여 종단으로 맺어지면
안락하고 여유롭고 서로 돕는 자비공생의 사회

이것이 불국정토 아니겠는가!

❶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전법도생하고 구도자로서 수행하며 자비공생하는 호국불교, 천년의 맥을 이어갈 약사종 종도를 기다립니다.
❷ 한번쯤 출가를 생각 하셨던 분. 또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원만하지 못하고 막연하신 분. 알맞은 길, 큰 길로 인도합니다.
❸ 종파(宗派) 신분(身分)을 초월하여 본 종단의 종지와 사업에 관심있게 일조할 강호제현 인사를 특별자문위원으로 모십니다.

◆ 1차 구비서류
❶ 주민등록 등본 1통 / ❷ 이력서 1통 / ❸ 사진 2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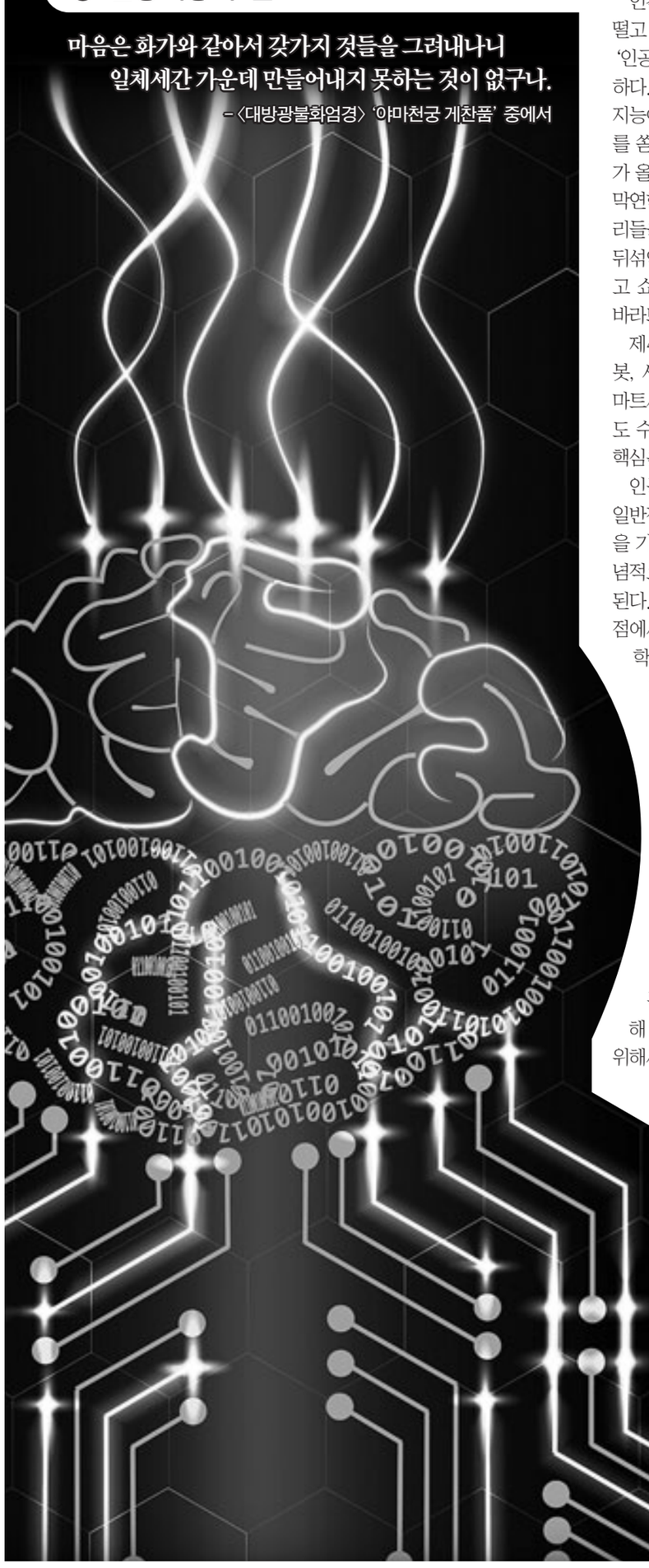
◆ 종단 사업
❶ 삼보호지 약사신앙 등 불교홍포사업
❷ 불교교학 연수 등 교육사업
❸ 사원 및 포교원설치 관리사업
❹ 교재편찬 기관지 및 출판사업
❺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❻ 승려 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❼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사)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합장

총무원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4-2270 / 팩스 031)584-2269 / 총무원장 010-8981-7908

相卽相入 불교진리, 딥러닝에 담겨 있다

② 인공지능과 불교



인간들은 여전히 겨울 한복판의 매서운 한파 속에서 떨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어느새 길었던 그들만의 소위 '인공지능의 겨울' 을 이겨내고 따스한 봄날을 맞은 듯하다. 최근 연일 매스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하면서 그 변화에 대해 경쟁적으로 기획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 누구나 다 언젠가 이런 미래가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문제 는 바로 그 언젠가가 막연한 미래가 아닌 현재형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다.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눈앞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다. 알파고 쇼크로 대변되는 이 변혁의 시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고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표적 기술분야로는 우선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 · 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시티, 3D 프린터, 유전자 가위 등이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분야를 거론할 수 있지만 그 대부분 분야의 핵심은 인공지능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人工知能)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인지, 추론 등의 지적 능력을 기계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 또는 연구를 말한다. 개념적으로는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된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아직 자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 독자적인 학습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강한 인공지능으로의 이행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이 학습 능력을 통해 독립적으로 입력과 처리 그리고 출력을 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 학습능력의 유무가 인공지능의 핵심이다.

최근에 그간의 인공지능기술의 침체기 혹은 '인공지능의 겨울'을 극복하고 비로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이 탄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머신러닝' 과 '딥러닝' 기술을 들 수 있다. 우선,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스스로가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Algorithm)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원하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단계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라면을 먹기 위해서 우선 알맞은 온도로 물을 끓이고 면과 라면을 개인적 취향에 따라 순서를 달리하면서 넣고 일정시간 기다렸다가 라면을 완성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알고리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데이터 입력을 통해 결과를 출력해주는 방식이라면,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원하는 결과를 입력하면 데이터를 결과로 전환시켜 주는 알고리즘을 출력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개입 없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인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이 학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학습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딥러닝(Deep Learning; 심층학습)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높은 차원의 특징을 찾아내고, 그 특징에 기반하여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심층고도화 기계학습방식이다. 다시 말해 딥러닝은 인간의 뇌가 겹친 구조로 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컴퓨터가 스스로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주성분 분석, 즉 특징이나 개념을 찾아낸다. 마치 고층 건물을 쌓아 올리듯이 거듭해서 상위 차원의 특징을 도출해내고, 그 특징으로 각각의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이다. 딥러닝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이미지 인식능력은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적용되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면서 안전한 운행을 한다. 그리고 정밀한 이미지 인식능력은 나노단위의 암세포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이 가장 넓은 범주의 개념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기술이 다시 그 머신러닝기술 속에 딥러닝기술이 있는 것이다.

4차산업 핵심기술, 인공지능에 기반
인공지능 발전은 자가학습 '딥러닝' 근거
수단과 도구 아닌 동반자적 관계 이룰 듯
연기적 관계에 의해 상호의존성 강화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향후 인간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에 따르면 미래에는 이러한 인공지능기술들을 지금처럼 수단이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기술과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간 대 비(非)인간의 구분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다. 즉, 마음이나 의식이 없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유사인격체에게도 행위 능력과 사고 능력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경계가 상즉상입(相卽相入)하고 연기적 관계에 의해 상호 의존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속에서 불교가 어떤 자세로 이 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개인적 단상이다.

첫째, 우리 불자들은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질문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로봇에도 불성이 있을까? 기계에도 식(識)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도 자아를 가지게 될까? 인공지능로봇이 학대를 당하는 영상을 보면서 인간이 느끼는 연민과 동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무아(無我)를 논하는 불교적 입장에서는 자아란 실체가 아닌 하나의 허구이자 착각이다. 단지 생존에 '유용한 허구' 인 것이다. 결국 하나의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 또한 자아가 실재한다는 착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이처럼 누구도 이전에 고민하지 않았거나 할 필요도 없었던 질문 이 필요해지고,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해답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이 변화에 수반되는 혼돈은 불교철학의 새로운 부흥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질 것인가? 과연 우리 스님들은, 우리 불자들은 저 마다의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되어있는가?

둘째,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격의불교(格義佛敎)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과학의 보편적 이해에 통용되는 언어를 통해 교리를 재해석하고 용어를 재정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의 문맹은 단순히 문자를 읽거나 쓰지 못하고 학습된 지식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문맹' 을 말한다. 즉 새로운 시대의 과학과 디지털 언어들을 생소하고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우리만의 언어를 고집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불교는 4차 산업시대에 고립되고 단절된 또 다른 갈라파고스 섬이 되고 말 것이다.

셋째, 인간이 인공지능 즉 기계와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다. 상호의존성이라는 연기관에 기반한 기계문명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인 테이(Tay)는 젊은이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인터넷에 공개되자마자 인간들에 의해 우선 학습했던 말들은 인간들의 욕설들, 인종차별, 성차별 발언들이었다. 결국 출시 하루 만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증오하고 욕망하는 인간들의 이기적 행위를 모방할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들이 대승보살의 삶을 지향한다면 인공지능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모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챗봇 기술을 적용한 시리아 난민을 위한 심리치료 챗봇인 '카림(Karim)' 이나 자살예방상담챗봇인 '크라이시스 텍스트 라인(CTL: Crisis Text Line)' 그리고 우울증치료 상담챗봇인 '워봇(Woebot)' 등은 인간의 자비와 보살행의 기술적 구현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선택은 인간들의 몫이다.

세계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종교 전통 가운데서도 유독 불교는 인간 의식의 흐름과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오랜 시간 천착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비달마와 유식으로 자리매김했고, 이러한 불교의 지적 전통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이 단지 기술과 공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에 대한 이해로부터 의미있는 통찰과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일 스님(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신입 및 수료 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일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조인각 스님	월	30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이기봉 스님	수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조현성 스님	목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최원허 스님	금	
불교의식 이론		불교학 개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 응시자격

❶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❷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❸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해당자)
❹ **전형일정** : **2018년 2월 8일 (목) ~ 2월 27일 (화)**
❺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❻ **특 전** : (1)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잃어버린 40년 회복… 환수 불사 나서다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② 고성 옥천사 도난 성보들



옥천사 대웅전에 봉안됐던 영산회상도. 화승 효안이 1744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10월 21일 도난됐으나,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
사진 제공=옥천사 성보박물관



18세기 후반에 조성된 옥천사 청련암 범종. 1987년 12월 13일 도난됐고,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사진 제공=옥천사 성보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의 말사인 옥천사는 일즉다다즉일(一卽多多卽一)의 화엄사상을 널리 펴는 '화엄전교십찰(華嚴傳敎十刹)' 가운데 하나로 676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옥천사는 893년에 진경국사 심희(854~923)가 중창한 후, 고려 말까지 여러 차례 중건이 되었지만, 조선 전기는 겨우 법등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사찰의 모든 전각이 소실된 후, 1639년 학명(學明)스님이 의오(義悟) 스님과 함께 중창 불사를 시작해서 1640년에 동상실(東上室)을 창건했고 1642년에 미옥(美玉) 스님이 화주가 되어 승당을 지었으며, 1645년에 심검당을 건립하였다. 1654년에 중심 전각인 법당을 지었으며, 1664년에 정문을 세워 7중창을 완성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번의 사찰 정비가 이루어지고 1800년에 국가에 종이를 바치는 진상(進上) 사찰로 지정되어 사역(寺役)이 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과 신자들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전각의 중수와 성보물의 제작이 이루어진다. 1890년에 옥천사가 왕실의 원찰(願刹)로 지정되면서 관청과 세도가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1862년 진주농민항쟁 당시에 중심 전각을 제외한 탐진당, 적묵당, 팔상전 등 수많은 전각이 불타 없어졌다. 1864년부터 용운(龍雲)스님을 중심으로 가람의 정비와 중창불사가 시작되었다. 1895년에 명부전과 나한전이 중건되고, 1897년에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이 새롭게 건립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옥천사에 소장된 성보문화재는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된 유물이다. 이 가운데 도난문화재는 주로 17~18세기에 조성된 것이다.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성보들이 도난당했는데, 당시 〈동아일보〉 1978년 11월 10일자 '불도(佛徒) 가장(假裝)한 사찰 도둑, 유명 사찰 탱화(幀?) 절도범의 행각'이라는 기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렸다.

"전국 유명 사찰 문화재 전문절도단 주범 구만춘(36세, 부산 서구)은 유가증권 위조전과자로 76년 4월 부산에서 고물행상을 하면서 골동품상들 자주 드나들 때 골동품 수집가들이 절에서 나오는 탱화를 비싼 값에 사가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물건이 되는구나' 싶어 김창욱(37세, 삼천포 용강동), 백춘웅(34세, 부산시 수정동) 등과 법당의 관리 상태가 허술한 절간을 털기 시작했다. 이들은 처음으로 76년 11월 5일 새벽 1시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옥천사 대웅전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열고 탱화 2점을 쉽게 훔쳐 냈고, 다음날엔 부근 하이면 운흥사 법당에서 시왕전 동자상 5점과 업경대 2점을 훔쳐 부산시 동구 수정동 청아당 주인 고정애(46)에게 35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들이 훔친 대웅전 2점의 탱화는 구체적 기사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후불탱인 영산회상도가 1997년에 도난당한 것을 보면, 중단이나 하단 탱화일 가능성이 높다. 옥천사에 관련된 재산대장은 일제강점기부터 남아있는데 대웅전 불상 다음에 후불탱, 삼장탱, 성왕탱, 신중탱(2점), 독성탱, 산신탱이 언급되어 이 가운데 2점일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재산대장에는 명칭과 규격 등이 남아있어 현존하는 불화와 비교한다면 잃어버린 불화가 어떤 작품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근대 옥천사 재산대장은 1932년 3월에 공개된 조선총독부 관보 재산대장과 별도로 국립중앙박물관 내에서 두 건의 재산대장이 내용이 약간 달라 작성 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재산대장을 통해 20세기 전반에 소장하고 있던 성보물들의 유형과 규격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불교월보〉 1912년 6월호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경남 고성군 옥천사에 봉안하였던 불상은 높이 2척 넓이 1척2촌 무게 5근 가량인데 1912년 4월27일 밤에 도적이 몰래 훔쳐 달아났다.' 〈통도사 본말사 재산목록(옥천사)〉에서 비슷한 목불이 보이는데 '목불(木佛) 도금(塗金) 고2척 경1척2촌 중량100근'이라 하여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무게가 다르다. 그 이후 재정리한 사찰령 개정에 따른 〈통도사 말사 옥천사 재산목록(귀중품)〉에도 역시 같은 내용의 불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도난당한 불상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이후 옥천사에서 도난이 파악된 성보물은 1976년 4월 2일에 신중도(1점), 삼화상(3점), 현왕도(2점)과 1976년에 11월 12일에 시왕도(2점), 나한상(2점), 사자상(2점)이지만, 현재 문화재청 사범단속반과 종단에 신고되지 않았고, 1988년 1월 30일에 나한상과 천부상 등(6점)과 1997년 10월 21일에 대웅전 영산회상도는 도난 신고가 되어 있다.

임란 後 중창불사된 고성 옥천사
대부분 성보들 17~18세기에 조성
1970년대부터 총 12점 성보 도난

2014년 나한상 반환, 환수 본격화
'학계 · 사찰 공조' 선행 모델 만들어
영산회상도 · 시왕도 등 아직 못 찾아
"성보 문화재 소재라도 파악되길…"

이 가운데 2014년 여름에 20여 년간 도난문화재를 숨긴 사립박물관 관장이 은닉하던 48점의 도난문화재를 회수하였는데, 그 중에 2점이 옥천사에서 도난 신고한 나한상이었다. 그 후 잃어버린 나한상 5구의 사진을 찾던 중에 1980년대 후반에 나한상을 촬영한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학술대회에 나한상의 조성 시기와 작가를 추론하면서 최초로 도난된 나한상의 사진을 공개하였다.

당시 학술대회에 참석한 원명 스님(옥천사 성보박물관장)이 공개된 사진을 바탕으로 여러 박물관에서 간행된 도록을 검토하던 중에 이전에 나한상 2점이 출품된 것을 확인 후, 전시회를 주최한 본태박물관에 문의한 결과 개인 소장품을 대여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후 소유자에게 나한상이 도난품이라는 것을 알렸고, 소장가가 그런 유물이라면 원 봉안처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혀와서 2구의 나한상은 옥천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결국 사찰, 연구자, 소장가들이 공동으로 도난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조성 사찰로 환수되는 선례가 되었다.

결국 도난문화재인 줄 모르고 구입했지만 유물의 원봉안처로 돌려주겠다는 소장가의 판단, 그리고 사찰에 대한 배려는 도난문화재 회수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올해 미국의 경매회사에 옥천사 나한상 1구가 출품되어 문화재청과 조계종 문화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이 경매회사를 통하여 소장가에게 도난 상황을 설명했고 소장가도 무상으로 기증 의사를 표명하였다. 결국 옥천사 나한상은 20년 전에 도난당했지만 사찰과 연구자,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4년 만에 도난당한 8구 가운데 5구의 나한상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외에도 옥천사 소임을 맡은 스님들의 노력으로 프랑스에서 시왕도 1점(제2초강대왕도)이 돌아왔고,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는 관계 기관이 소재를 파악하게 되어 환수가 진행 중이다. 1744년 화승 효안 등이 주축으로 제작된 옥천사 대웅전 삼장보살도의 경우 장물임을 알고서도 구입한 사립박물관장의 박물관에서 찾았다.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문화재보존처리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장보살도 등 문화재 15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도록과 대조하는 등 치밀한 조사와 추적 끝에 옥천사 대웅전 삼장보살도의 환수가 추진된 것이다.

현재 옥천사에서 찾으려는 도난문화재는 대웅전 영산회상도(1점, 경남 유형문화재 299호), 명부전 시왕도(1점), 청련암 범종이다. 이 가운데 영산회상도는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 뒤에 걸려 있던 불화로, 기존 조사된 화기에 "乾隆玖年甲子四月日」新畵成大靈山會奉」安于晋陽蓮華山玉」泉寺大法堂寶座… 金魚 曉岸比丘」最賢比丘」尙悟比丘」抱勤比丘」證淳比丘…"로, 영산회상도가 1744년에 옥천사 대법당에 봉안하기 위해 효안, 최현, 상오 등 13명의 불화승이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부전에 봉안할 지장보살도와 시왕도 및 삼장보살도가 동시에 제작되었음을 남아있는 화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산회상도의 규격은 재산대장에 세로 11척(또는 11척 6촌), 가로 10척 7촌으로 적혀 있어 거의 정방형이다. 이는 대략 3m에 이르는 큰 작품으로, 화면 구성을 비롯하여 여래와 보살상의 온화하고 단정한 얼굴과 신체의 형태, 가늘고 탄력 있는 묘사, 대의에 장식된 섬세한 작은 문양, 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 위주의 설채법 등이 17세기 중반에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임한스님의 화풍을 계승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보물 제1956호로 지정된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와 화면 구도와 존상 배치 및 설채법 등이 유사하다.

그리고 1987년 12월 13일에 도난된 옥천사 청련암 범종은 최근 사진이 확보되어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도난신고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재산대장에는 옥천사와 암자에 범종이 5점이 소장되어 있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재산대장 I 에는 범종의 비고란에 "乾隆41年丙申7月(1776년, 정문, 現 성보박물관)", "康熙47年 7月 製作(1708년, 現 대웅전)", "乾隆37年壬辰5月日製 作者 白鳳翼(1772년, 적묵당)"라 적혀 있고, 나머지 2점은 규격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당시 범종들은 정문, 대웅전, 적묵당, 연대암, 진주 포교당에 소장되었는데, 현재 옥천사에 남아있는 범종은 대웅전에 1708년(강희47) 범종과 성보박물관에 1776년(건륭41) 범종, 옥천사 백련암에 일제강점기 일본의 영향을 받은 범종이 남아있다. 따라서 진주 포교당 것을 제외하면 청련암 범종은 백봉익이 1772년에 만든 범종일 가능성이 높다.

이 범종을 만든 주성장 백봉익은 1785년에 전남 순천 송광사 천자암 범종을 만들었다. 도난된 청련암 범종은 윗부분이 좁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넓어지는 전형적인 조선후기 범종 형태이다. 범종의 천판 위에는 연판문이 새겨져 있고, 용뉴는 천판에 발을 딛고 정면을 향해 이빨을 세운 용의 모습이 단룡으로 조각되고 옆에 음통이 길게 세워져 있다. 복련대 아래에는 원형 안에 실담자를 띄엄 띄엄 배치하였고, 바로 아래에는 정사각형의 유곽과 보살입상이 교대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보살입상은 보관과 두광을 갖추고 합장을 한 입상이다. 유곽과 보살상 아래에는 두꺼운 하대에 연화당초문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련암 범종이 백봉익이 만든 기년명 범종인지는 현재 단정할 수 없지만, 범종의 전체적인 형태와 세부 표현에서 18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옥천사만큼 도난문화재가 회수된 곳은 없다. 이는 새로 소임을 맡은 주지 원각 스님과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의 문화재 환수 노력 그리고 학자들의 조사와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아울러 아직도 만행 중인 옥천사 관련 문화재 각각의 소재만이라도 파악되어 잃어버린 사찰의 역사가 하나씩 복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 (제 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근로’ 개념 없는 종무, 처우 개선부터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② 재가 종무원의 근로환경



사찰에서 기도 접수를 받고 있는 종무원의 모습.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

‘종무원’은 불교신도로서 종무기관 및 일선 사찰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종무행정이나 사찰경영의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교역직 종무원으로, 그리고 재가신도는 일반직 종무원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흔히 종무원이라고 하면 재가종무원을 지칭한다. 재가종무원은 다시금 근무기관의 소재지에 따라서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과 지방종무기관의 종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을 사례로 삼는다면, 중앙종무기관에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중앙종회, 호계원, 불교신문사 등이 해당되며, 지방종무기관에는 교구의 본사 및 말사 등이 해당된다.

종무원의 처우 개선을 논함에 있어서는 그들이 처한 근무환경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출가종무원(교역직 종무원)과 재가종무원(일반직 종무원),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과 지방종무기관의 종무원이 처한 근무환경이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에 처우 개선도 그에 상응하게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다.

출가종무원과 재가종무원에 있어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종무원은 재가종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종단 및 사찰의 소임을 맡고 있는 출가종무원인 스님들은 비록 행정업무를 책임지거나 담당하고 있을 지라도 재가종무원과 같은 직장인의 개념을 적용하기 힘든 대상이다. 이에 조계종의 〈종무원법〉은 출가종무원의 근무를 ‘봉사(奉仕)’로, 재가종무원의 근무를 ‘봉직(奉職)’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적(辭典的)으로 봉사는 ‘무보수로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으로, 봉직은 ‘공직에 종사함’으로 정의되고 있다. 봉사와 봉직의 정의는 모두 이타행(利他行)을 전제하고 있지만, 통념상 봉사에는 ‘무급(無給)’의 개념이, 봉직에는 ‘유급(有給)’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물론 스님들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처우 개선은 직장인으로서의 근무환경 개선이 아니라 승려노후복지와 같은 생활환경의 개선이다.

처우 개선의 대상을 재가종무원으로 한정하였을 때, 중앙종무기관과 지방종무기관의 재가종무원 중 처우 개선이 보다 시급한 대상은 지방종무기관의 재가종무원이다.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은 근로 시간과 임금, 퇴직 등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장과 보호를 받고 있지만, 지방종무기관 종무원의 상당수는 4대 보험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사찰의 재가종무원은 여타의 직장인과는 사뭇 다른 환경에서 근무한다. 자연환경의 입장에서는 상당수의 사찰이 번잡한 도심이 아닌 산중에 있거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관계로 친환경적 요소가 강하다. 물론 자연환경 역시 근무환경에 있어서는 한 가지 선택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장상사가 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집단인 스님들이라는 점도 여타의 직장인과는 다른 근무환경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종무원의 근무환경에 있어서 장점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근무환경을 논의할 때는 급여, 복지후생, 신분보장, 인간관계 등 처우의 개선이 주요 쟁점이 된다.

우선, 인간의 기본적 · 일차적 욕구인 생리적 ·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필수 요건인 ‘급여’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일선 사찰의 재가종무원 급여는 대부분 월 150-200만 원 정도가 많은데, 2017년 비정규직의 월급이 156.5만원이고,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임을 고려할 때, 재가종무원 급여는 비정규직의 급여 수준과 유사하거나 최저임금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종종 사찰에서는 재가종무원이 받는 급여와 스님이 받는 소임비를 동일선상에서 거론하기도 한다. 재가종무원의 급여를 스님의 소임비에 기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가종무원의 급여는 직장인이자 생활인으로서 받는 보수인 반면 스님이 받는 소임비는 출가자이자 수행자에 대한 보시금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재가종무원의 급여는 일정 정도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복지후생’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종업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각종의 복지시설과 제도를 포괄하는 간접적 보상의 개념이다. 연가, 월차, 출산휴가, 병가휴가 등의 휴가체계 구비와 보건, 교육, 휴양 등과 관련된 복지시설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휴가체계와 복지시설보다 기초적인 복지후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보장이다. 4대 보험은 국가법령에 의한 강제성을 띠고 있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요즘에는 체인점이나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 보험은 보장해주는 추세이지만 아쉽게도 재가종무원의 상당수는 4대 보험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4대 보험은 직장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후생제도이다. 4대 보험 미보장 직장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직장으로 인식되며, 직업적 선호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만큼 사찰의

재가종무원 근무는 ‘봉사’ 아닌 ‘봉직’
이타행 전제하지만 처우도 좋아야
비정규직 수준 근무환경 이직 부추겨
출가자 감소, 능력있는 종무원이 보완

4대 보험 미보장은 재가종무원의 직업적 자긍심을 훼손하는 요인이자 자신의 직장에 대한 사회적 위축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재가종무원이 불교신도로서 봉사직이 아닌 직업군이 되기 위해서는 여타의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받는 4대 보험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신분보장’은 종무원이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그 밖의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이나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보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선 사찰의 재가종무원 신분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임명과 해임 등 종무원의 주요 인사가 합리적 절차가 아니라 주지스님의 자의(恣意)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근무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행위 중에서도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용자를 직장이나 일터에서 내보내는 해고(解雇)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사회법은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할 뿐 아니라 그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찰에서의 종무원 해고는 보다 자유롭게 남용되고 있다. 주지 스님의 부임에 따른 기존 종무원의 해고는 다반사이다. 또한 주지 스님의 개인 뜻에 맞지 않거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종무원의 해고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다. 조계종의 〈종무원법〉은 종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재가종무원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정년은 65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단을 막론하고 재가종무원의 정년은 대부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일선 사찰에서 재가종무원이 신분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 시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근로계약서의 작성도 이루어지지 않는 불교계의 고용 관행에서는 근무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부당한 대우와 해고로부터 재가종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최우선 과제이다.

급여, 복지후생, 신분보장과 더불어 ‘인간관계’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급여, 복지후생, 신분보장이 제도적 측면에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인간관계는 감정적 측면에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직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사와 부하간 그리고 동료와 동료간에 반감이나 호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종종 직장 내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힘든 직장생활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재가종무원들은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상사가 주로 스님이라는 남다른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하여 종종 어려운 상황을 겪고는 한다. 주지 스님 등 소임자 스님과 재가종무원간에는 상사와 부하라는 직장 내 직급 서열 관계뿐 아니라 스님과 신도라는 종교 내 신분 관계도 함께 존재한다. 직장의 직급 서열도 녹록치 않은 관계이지만 종교 내 스님과 신도 간 신분 관계는 보다 더 견고한 질서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종무원은 소임자 스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한 문제가 있더라도 참아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고는 한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면 결국 재가종무원이 사직을 하고 절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임자 스님의 재가종무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임자 스님과 재가종무원의 관계가 계급적 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임자 스님이 종교인-출가자-수행자로서 재가종무원을 보다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재가종무원에게 제공되는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 4대 보험도 제공 안 되는 복지후생,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수준의 신분보장, 고착화된 계급적 인간관계 등은 사회적 근로환경으로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우로는 우수 재가종무원의 신규 고용은 고사하고 현 재직자들조차도 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선 사찰 재가종무원의 처우가 쉽사리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일선 사찰에서 재가종무원의 열악하고 부당한 처우 개선 요구는 속인(俗人)의 신심 부족에서 나오는 불만으로 치부되고는 한다. 재가종무원들은 기업체의 직원과는 달리 단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데다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도 어렵기 때문에 처우가 부당하더라도 온전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한국불교종단들의 최대 난제는 출가자의 감소 문제이다. 그런데 출가자의 감소는 곧 재가종무원의 역할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찰의 한정된 인력 속에서 출가자가 감소하면 재가종무원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이 신행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와 복지의 공간으로까지 기능이 확대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스님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사찰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즉 출가자의 감소 문제와 사찰의 사회적 기능 확대 문제는 우수한 재가종무원 양성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가종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없이 우수한 종무행정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이는 불자로서 긍지를 갖고 향후 재가종무원으로 봉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대원불교문화대학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대 학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 (주간 • 야간 / 수 • 금요일)

불교심리학/상담심리학/발달심리학/명상과치유/긍정심리학/바디-마인드 심리치료/명상심리학/삶과 죽음의 심리연구/통합적 상담방법론/심리검사 및 평가/자아초월과 심리치료 /상담과 철학/성격심리학/집단상담Ⅰ/유식심리학 등

◐ 명상학과 (주간 • 야간 / 수 • 목요일)

명상과 치유/명상교수법/불교심리학/동 · 서양 철학의 행복론/사마타와 위빠사나 실습/불교와 마음치료/명상심리학/삶과 죽음의 심리연구/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뇌, 불교수행 그리고 인식/불교수행과 실습/비교명상의 이해/불교명상학/자아초월과 심리치료/상담과 철학 등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분

■ 강의시간 :
· 주간 : 제1교시 14:00 ~ 15:30 / 제2교시 15:40 ~ 17:10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 제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300,000원(학기당)

대학원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야간 / 수 • 목요일)

정신병리학/불교수행과 정신치료/불교심리학/명상과 치유/개인상담 실습 및 슈퍼비전/뇌과학과 심리치료/명상심리학/삶과 죽음의 심리연구/MBSR · 수용전념치료(ACT)/개인상담 사례연구 및 실습/자아초월과 심리치료/상담과 철학/집단상담 Ⅱ/부부 및 가족상담/유식심리학/철학과 심리/상담심리치료 등

■ 입학자격 :
· 본 대학 또는 불교교양대학 불교심리상담 과정을 이수한 분
· 정규대학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 이상에서 상담 관련학 전공으로 졸업(예정)한 분

■ 강의시간 :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 제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400,000원(학기당)

원서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홈페이지 : www.kbpf.org
◐ 전 화 : (02)707-1072
◐ 팩 스 : (02)3273-1618
◐ 우 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BBS불교방송) 3층 대원불교문화대학

■ 접수 및 전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www.kbpf.org 양식 다운)
◐ 전형방법 :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8년 2월 28일까지
◐ 개 강 : 2018년 3월 7일(수)
(주간 : 오후 2시, 야간 : 오후 7시)

■ 오시는 길 및 문의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다보빌딩 (BBS)
◐ 문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02)707-1072

특전 : · 장학혜택 : 성적 우수자, 근로장학생 외
· 수업료 할인혜택 : 스님. 가족 동반(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1인에 한해) 등록금의 50% 할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④ 〈사자후경〉

〈중아함〉은 계빈국 구담승가제바의 번역으로 60권 222경이 있고, 〈맛지마 니까야〉는 152경으로 되어 있다. 짧은 에세이 정도의 길이를 지닌 가르침으로 사성제, 12인연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인연과 비유. 불교수행의 목적인 열반과 수행법으로 제자들이 어떤 정신과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다. 중아함 제 5권에서 3, 사리자상응품, 24경인 〈사자후경〉에서 제자를 대하는 다정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사위국 급고독원에서 부처님은 제자들과 안거를 마치며 경행할 때, 사리불이 만행(萬行)을 떠나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한다. 그러자 부처님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불자를 만들고, 아직 해탈하지 못한 이들과 반열반에 들지 못한 수행자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를 해탈시켜 반열반의 세계에 들게 해야 한다며 흔쾌히 허락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감에 불타는 사리불은 즉시 떠났다. 몇 시간 후, 평소 수행을 잘 하던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오만방자하게 부처님께 따졌다. 사연인즉, 안거기간동안 사리불에게 업신여김을 당해 힘들었지만 대중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해제 때까지 기다렸는데 포교하러 만행을 갔다는 말을 들으니, 부처님이 사리불을 과대평가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제자의 말을 듣던 부처님은 즉시에 사리불에게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난존자는 도량에 남아있는 제자 500명에게 오늘 총명한 사리불이 이 난감한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의 설법, 사자후를 할 것만 같으니 이 멋진 법문을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한다며 대중을 강당에 모이게 했다.

드디어 강당으로 들어온 사리불에게 부처님은 왜 도반을 업신여기고 모욕했는가 물으셨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부처님처럼 살고자 서원한 제자입니다. 그런 제가 부처님 뜻과 반대로 산다는 것은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을 업신여기며 누구를 제도하고자 만행을 나가겠습니까. 불교를 만나기 전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뿔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된 뿔 잘린 온순한 소처럼, 두 손을 잃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립하게 된 겸손한 전타라자 동자처럼, 예전의 고통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이들이 뿔 없는 소에게 경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고 먹을 것을 주며 사랑하고, 두 손을 잃은 동자에게도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를 보살핍니다. 새삼 옛날 고통을 기억하고 원한과 성냄으로 남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한량없는 선행을 닦으며 행복하게 지냅니다. 또 자연인 땅(地)과, 물(水)과 불(火), 그리고 바람(風), 마당을 쓰는 빗자루, 모든 것을 다 닦는 걸레도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 즉 대변과 소변, 눈물과 침을 만나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로 인해 미움과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으니 더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목욕하지 않으면 몸 곳곳에서 악취가 날 것이니 제가 늙지 않고 영원히 청춘으로 살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속히 공부해서 몸에 대한 애착을 여의고 수행할 것을 서원하고 있사옵니다. 결코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리불에게 상처 입었다고 생각했던 제자는 부끄러웠다. 다시는 사랑과 미움으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살겠다하자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이 도반의 참회를 받아들이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신다.

상처 입은 제자의 마음을 헤아려 상수제자를 불러들이는 부처님의 모습은 니편 내편 따지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자니 너무도 든든하고 자애롭다. 사리불도 그 제자도, 함께 지켜본 아난과 500명의 제자들이 소통과 화해를 뛰어 넘는 수행자의 길을 열어가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련해진다.

〈서울 반야사 주지〉

분별심을 부처님에게 바쳐라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③ 선지식과의 만남

백 박사님 가르침의 골자는 〈금강경〉에 있었다.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아침저녁 직접 석가여래 부처님 앞에서 강의 듣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하라(信). 〈금강경〉을 독송하되 뜻을 알려고 하면서 독송해라. 뜻을 알려고 하다보면 결국은 알아질 것이다(解). 그 다음 〈금강경〉을 실천해라(行). 〈금강경〉의 실천 방법은 〈금강경〉 3분에 나와 있다.

실천의 구체적인 핵심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각종 생각을 가지지 말고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쳐라"하는 것이다.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이것이 〈금강경〉의 실천이다. 실천하면 분별이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지면 어떤 깨달음이 올 것이며, 지혜가 날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 깨달음과 지혜가 참다운 깨달음 참다운 지혜인가를 선지식한테 내놓고 검토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금강경〉의 신해행증(信解行證)을 통한 공부라는 가르침인 것이었다.

그리고 〈금강경〉 실천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다거나 밉게 보인다면 사랑스러운 것 또는 미운 존재가 참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말고 모두 자신의 마음이요, 분별심의 결과라는 것이다. 마음 밖에 사람이나 사물은 내 마음 속 분별심의 결과일 뿐 실체가 없다는 말씀인데 언제인가 조계사 법당에서 들었던 심외무법 법외무심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상대에게 붙은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 떨어지게 한다면, 잃어버린 제 정신을 다시 찾음으로 지혜가 난다는 말씀이요 난제에 해답을 얻는 다는 말씀이었다.

정확한 해답을 알게 된다는 것은, 붙은 마음의 소멸 즉 갈등의 분별심이 사라진 결과라 할 것인데 분별심이 사라지고 지혜가 나타난 상태를 〈깨침〉 또는 〈깨달음〉이라 한다는 것이다. 작은 분별이 사라지면 작은 깨침이 되고 작은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 작은 지혜가 나타나면 영웅호걸이 되는 것이고 큰 분별심이 사라지면 큰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때 도인이 되고 견성성불이 된다는 것이다.

당시 춘천에서 군대생활(R.O.T.C 제3기)을 할 때였는데 주말이 되어 선생님을 찾아 뵈오면 "그간 깨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곤 하셨다. 즉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쳐 깨쳐진 것, 알아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던 것이다. 이 말씀처럼 군생활에서 올라오는 가지가지의 번민을 부처님께 바치니, 척박한 군생활이 기쁨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껄끄러웠던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 지기 시작하였다. 군대 제대가 가까워 왔다. 집안 형편을 보면 나는 당연히 제대와 동시에 취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마음속의 지혜를 발굴해내는 방법을 듣고 보니 이러한 공부에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처럼 생각됐다. 이 두 마음으로 갈등 하다가 선지식께 장래에 대한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리게 되었다. "선생님, 제가 2개월 후면 군에서 제대를 합니다. 취직을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출가해서 선생님 문중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진로를 택하는 것이 좋을 까요?"이런 질문을 드릴 때 내 마음속에는 선지식이라면 당연히 "당분간 법당에 출가하여 금강경을 본격적으로 배워라"라고 하실 것이다. 또는 "가정 형편을 고려해 취직 해라"고 하실 것이라 생각했다. "취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보아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보아라"라는 선지식의 답변은 의외였다. 정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요, 마음 속에 정답이 있으니 찾아보라는 말씀이었다. 마음 밖의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정답을 찾기보다는, 데이터로 인한 갈등의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쳐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를 따라 행동하라는 가르침이었다. 결국 제대와 동시에 갈등의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 지혜를 발굴하는 출가생활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대분심, 깨달음 얻겠다는 마음

대분심(大忿心)은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욕망의 굴레서 벗어나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인신난득(人身難得) 불법난봉(佛法難逢) 차신불향금생도(此身不向今生度) 갱대하생도차신(更待何生度此身)이라고 했다. 해석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가 더 어려운 것인데, 금생에 이몸을 받았을 때 불도를 이루지 못하면 어느 생에 다시 인간몸 받을 것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다.

〈잡아함경〉에 보면 맹구부목(盲龜浮木)이란 말도 있다. 눈먼 거북이가 1백년마다 한번 떠올라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조그만 판자에 뚫린 구멍 속으로 목을 내미는 것보다 인간 몸 받기가 더 어려운 것이라는 말이다. 그 보다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 중에서도 참선문에 들어오기란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며, 활구 참선법인 간화선 '이 뭣고'는 육도윤회의 굴레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금강보검(金剛寶劍)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생겁래로 일대사(一大事)를 해결 못하고 생사고해의 바다서 해매고 있을까? 깊고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뼈에 사무친 분심(忿心)이 있어야 이 참선문에 들어 올 수 있다. 피기장부아역이사(彼己丈夫我亦已俟)라고 했다. "네가 장부면 나도 역시 장부다"라는 기개와 용기를 가져야 원력이 쌓이고 히말라야 정상에도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삼계유여급정륜(三界猶如汲井輪) 백천만겁역미진(百千萬劫歷微塵)이라는 말을 음미해 보자. "삼계윤회에 오르고 내림이 우물 속의 두레박처럼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벗어나기 어렵다" 라는 말이다. 이렇게 어려운 생사문제를 벗어나는 것은 내가 풀어야할 영원한 숙제이니 금생이 아니면 언제 다시 인간 몸을 받아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기약을 할 수 있겠는가?

> '이 뭣고'는 육도윤회서 벗어날 수 있는 금강보검
> 뼈에 사무친 분심 있어야 이 참선문에 들 수 있어

선도대사송에 인간총총영무중(人間??營衆務) 불각년명일야거(不覺年命日夜去) 여등풍중멸난기(如燈風中滅難期) 망망육도무정취(忙忙六道無情趣)라고 했다.

"인간이 바쁘게 일에 끄달려 묵숨이 줄어 드는 것을 알지 못하네, 바람 앞 등불이 위태 하건만 육도에 바빠 정처가 없네"라는 뜻이다. 우리는 현실의 삶에 쫓기며 허망한 경계에 탐착해 헐떡거리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 무상한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욕심으로 가득 채워왔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다 무상하고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분명 그것은 뒤늦은 후회일 뿐인 것을 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대분심을 통해 화두참구에 철저해야 한다.

화두(話頭)는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께서 자신이 깨달은 본래면목을 목전(目前)에 훤히 들어내 보인 것이다. 사중득활(死中得活)이란 말처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가 꽉 막힘을 당해 크게 한번 죽어 다시 살아난다는 대분심으로 활구 참선법인 '이 뭣고'를 생활속에서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면 금생 성불은 보장된 것이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해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들어 모든 농작물이 말라죽게 되자 아무리 정성을 다해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오지 않는데,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가뭄이 해소되자, 그 비법을 인디언에게 물어보니, 비가 올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도 금생에 성불의 원력을 세웠으면 그것이 이루어 질 때까지 하루, 100일, 1000일, 아니면 죽을 때까지 사력을 다해 온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고 정진해 일생을 마친다면, 그것이 바로 생사해탈인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 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1월 31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8년 불교학과 52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불교학과 [3월 8일(목) 오후 1시 개강]

•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통신반 [CD 배송, 사이버 강좌]
http://cyber.dongsanbud.net



1년차	과 목	①불교의 체계적 이해 (아함경 1) ②불교문화와 포교 ③선불교 ④근본불교(아함경 2) ⑤반야심경 ⑥유식불교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이미령교수 김형준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묘주스님 최종남교수
2년차	과 목	⑦인도불교 ⑧ 중국 · 한국불교 ⑨법화경 ⑩화엄경 ⑪정토불교 ⑫대승불교와 밀교
	교수진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차차석교수 박 종교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정엄스님

■ 모집인원(불교학과) : 100명(주간반, 저녁반, 통신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8년 1월 15일 부터
■ 문 의 : 사무처 02)732-1206 ~ 8 FAX 02)732-1207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한불련)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각과 개강일

• 불교다도학과 (2년과정) 3월 6일(화) 오전 11시
• 불교미술학과 (2년과정) 3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전통범패의식반 (2년과정) 3월 7일(수) 오후 2시
• 한글불교의식반 (2년과정) 3월 10일(토) 오후 2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

일 주 문



대한언론인회 고문에

원행 평창 월정사 부주지 스님은 1월 18일 서울프레스센터서 열린 2018년 대한언론인회 정기총회서 고문으로 추대됐다.



대구불교총연합 이사장에

효광 대구 동화사 주지 스님은 1월 25일 대구 보현사서 열린 대구불교총연합회 정기총회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입춘 삼재팔난 소멸기도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2월 4일 오전 10시 봉선사 청풍루서 '무술년 입춘 삼재팔난 소멸기도'를 봉행한다.



본말사 합동 정초방생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3월 7일 경기도 화성 용주사서 '수덕사 본·말사 합동 정초방생'을 실시한다.



파라미타 정기총회

심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스님은 2월 10일 오후 4시 서울 불광사 교육관 회의실서 '2018년 파라미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대불청 정기이사회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은 1월 27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서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예·결산안을 심의했다.

인사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원보직〉

△공과대학장 김용 △건강증진센터장 홍승욱 △평가감사실장 안홍엽

〈법인 파견〉

△법인사무처 사업부장 서리 김성우

〈승진〉

△정보처 정보인프라팀장 최문규 △이과대학 교학팀장 이연주

〈전보〉

△관리처 BMC관리팀장 겸 고양학사 행정팀장 신기훈 △연구처 연구관리팀장 김해덕 △미래캠퍼스 개발추진본부 중·후문일대개발추진단장 강형석 △약학대학 교학팀장 송민수 △영상대학원 교학팀장 겸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행정팀장 김정대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 박희동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윤주영 **이상 1월 23일자**

"21세기 문화포교로 佛國土 꿈 실현을"

Interview

창립 25주년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문화 활용 70명 일자리 창출

황룡원, 경주남산 성지탐방 계획

불교문화콘텐츠 제작자 초청도

"현대산업문명이 발달하면서 전통문화의 가치가 강조되고, 전통문화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포교로 현대사회에서 불국토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1993년 3월 개원한 (사)신라문화원이 개원 25주년을 맞아 문화포교 행사를 다채롭게 연다. 3월 기념식을 앞두고 만난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사진〉은 문화포교에 불교 대중화의 방향이 있음을 역설했다.

진 원장은 "불교를 모르고는 우리의 문화, 역사, 전통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문화를 통한 대중포교는 불교를 자연스럽게 현대인에게 알려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신라문화원은 불교대중화를 위해 큰스님 초청법회, 불교대학, 충담재, 원효예술제 등을 진행하고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불교교육 프로그램으로 조계종 승려연수, 남산불적답사, 불교문화강좌 등도 진행해 왔으며, 불교문화재 보존활동으로 경주 남산청정운동, 불교문화재 지킴이활동, 불교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신라달빛기행, 폐사지음악회,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 등을 전개해왔다.

진 원장은 "불교민간단체라는 어려움 속에서 25년간 불교 대중화에 나섰다. 최근에는 서악마을 가꾸기 등 마을공동체 상생사업까지 체계적인 대중포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화재돌봄사업을 통해 불교문화재도 가꾸면서 모두 70여 명의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진 원장은 "신라문화원이 올해로 약관을 넘겨 25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더욱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불교문화재의 창의적인 활용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불교문화의 본향인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재를 만나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얻고 불교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불교문화재와 사찰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황룡원, 중도타워와 경주 남산 등 불교성지탐방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또 대불련 출신인 진모영 감독 초청 '올드마린보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시민상영에 이어 경주지역 스님들을 대상으로 상영회도 열린다.

진 원장은 "최근 불교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활동가들이 많아질 때 불교대중화가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들을 장려하기 위해 초청행사 등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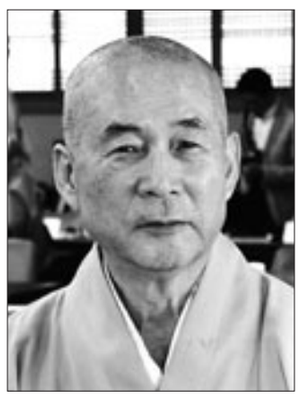
진 원장은 끝으로 "충담 스님이 향가 안민가에서 설파하신 '답게'처럼 스님은 스님답게, 신도는 신도답게, 불교문화단체는 불교문화단체에 맞게 문화를 통한 불교대중화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은 2002년 제17회 불이상 대상 실천분야, 2005년 제2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대통령상, 2011년 한국관광공사 주최 한국관광의별, 2016년 문화재청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태고종 보타락가사 '반야계단' 개설

3월 31일 수계대법회 봉행

"수계는 불제자의 계율 서약"



"수계는 불교에서 재가신도나 출가 수행승의 구별 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한 서약입니다. 이는 일정한 의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수계의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계를 주는 수계사(授戒師), 계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작법을 가르치는 교수사(敎授師), 그 작법을 실행하는 갈마사(羯磨師)의 3사와 그 자리에 입회해 그의 수계를 입증하는 7명의 증인(三師七證)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작법은 일백삼갈마(一白三羯磨), 즉 갈마사가 참석한 대중에게 수계 희망자의 뜻을 말하고, 그들의 승인을 세 번 묻는 의식입니다. 이를 백사갈마(白四羯磨)라고도 합니다."

충남 태안에 위치한 태고종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사진〉은 신체적 결함과 나이 등 제반 여건에 부합돼 수계식을 못하는 불자들을 위해 '반야계단'을 개설하겠다고 1월 24일 밝혔다.

법진 스님은 "불교 전통 의식에 맞춰 여법하게 펼쳐질 이번 법회는 종단과 승속 등을 초월해 불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고,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거룩한 계를 받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안에 자비 광명의 등불을 밝히는 것으로, 계를 받은 이들의 삶은 부처님의 가피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31일 태안 보타락가사 대웅전서 펼쳐질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 수계대법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수계식이 봉행될 예정이다. (041)672-1550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정오 스님, 동국대에 1억 원 쾌척

"비구니 기숙사 혜광원 재건립에 써달라"



동국대 재학 중인 비구니 스님 기숙사인 혜광원 재건립 불사를 위한 기금이 답지됐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1월 18일 보현정사 회주 정오 스님〈사진 오른쪽〉이 동국대를 찾아 혜광원 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정각원장 묘주 스님, 대외협력처장 종호 스님, 보현정사 회주 정오 스님, 보현정사 주지 혜진 스님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기부에 앞서 정오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기숙사인 혜광원 시설이 노후하다는 얘길 들었다. 비구니 스님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자광 스님은 "어려운 사중살림에도 불구하고 종립학교 발전을 위해 큰마음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혜광원 재건립은 비구니 스님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하게 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기부금은 비구니스님들의 기숙사인 혜광원의 재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한국열린사이버대 MOU

18일 협약식…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



동국대(총장 보광)와 한국열린사이버대(총장 장일홍)가 인재양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동국대 법무대학원(원장 한희원)은 1월 18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한국열린사이버대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위과정 교육,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 관련사항에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한희원 동국대 법무대학원장은 "동국대 법무대학원은 공동체 사회의 총체적인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융·복합형 법률가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등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며 "한국열린사이버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인재와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제4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교육과정 -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1년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바라, 화청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1년과정 이수 후 품수증, 법사증 수여(숙식제공가능)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1매
⇨ 예비소집 :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 입 교 식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설법전)
⇨ 준 비 물 : 목탁, 요령 (교재 - 입교식시 배부)
⇨ 문 의 : 교육원 강주(일관스님) 010-9361-5556
보경사 염불대학원 학생처장 010-4530-7444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출강 및 통신 2018학년도 제2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정명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7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8년 2월 28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대구불교사원연합회의 성도재일 기념법회. 스님과 재가자들이 함께 경전을 외며 부처님의 성도를 찬탄하고 있다.

영·호남도 부처님 成道 찬탄

각 지역 불교연합회, 성도재일 기념법회 성료

부처님이 진리의 깨달음을 얻은 성도재일을 찬탄하는 행사가 영·호남서 잇달아 열렸다.

대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선지)는 1월 24일 대구시민체육관서 '부처님 깨달음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성도재일법회를 봉행, 3천여 사부대중이 '정법 실현'을 다짐했다.

이날 회장 선지 스님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날, 우리 모두 무지에서 지혜로 전환되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법연으로 보살도를 닦아 위대한 지혜의 빛이 퍼지도록 하자"고 발원했다.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반목과 갈등, 투쟁과 대립의 깊은 골짜기는 대자대비로 메우고, 소외되고 힘든 이웃을 보살피며 하나 되는 것이 성도절의 의미"라고 법문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9일 광주지역 불교단체와 공동으로 KT광주센터 대강당에서 '부처님 성도재일 연합법회'를 봉행하고, 빛고을불자대상과 봉축대상을 시상했다. 올해 빛고을불자대상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 봉축대상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회에는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 연광 스님, 보응 스님(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을 비롯한 광주지역 회원사찰 주지 50여 명과 이범식 신도회장 등 불교단체 임원, 강기정 前국회의원, 김성환 동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을 등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전주불교연합회는 20일 서원초등학교 강당서 '석가세존 성도재일 정진대법회'를 봉행하고, 승보공양과 발원문 낭독 등을 진행했다. 이날 공동대표인 덕산 스님(금선암),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 익산사암연합회장 일행 스님, 순창사암연합회장 청암 스님, 영산작법보존회장 혜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창구 전북불교대학장, 이정상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 불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 조동제 · 양행선 지사장

빛고을 청소년 포교 움트다

광주파라미타청소년연합 청소년수련관 첫 수탁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빛고을 광주에 불교계가 처음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수탁해 청소년 포교의 새 시작을 알려 눈길을 끈다.

광주파라미타청소년연합(대표 소운, 관음사 주지)은 지난 1월 2일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동구청소년수련관'을 수탁한 데 이어 최근 일부 인수인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파라미타는 지난해 11월 동구청의 위탁 모집 공고에 참여해 단체소개, 운영비전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동구청소년수련관(관장 강금단)은 지난 1999년 준공한 청소년 전용시설이다. 7,537㎡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3층 규모로 동아리방 · 다목적실 · 공연연습실 · 음악연습실 · 창작공방 · 청소년상담실 · 작은도서관 · 실내체육관 · 소회의실 · 영사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개관한 작은도서관은 5,000여 권의 장서와 열람실 · 영화감상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체육관에는 농구와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

아직 모든 인수인계가 끝나진 않았지만 광주파라미타 대표 소운 스님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원칙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파라미타 대표 소운 스님(오른쪽 세 번째)과 강금단 관장(왼쪽 세 번째), 직원들이 수련관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강금단 관장은 △레크댄스 △푸드테라피 △한자 지도 △인성함양 프로그램 등 현재 수련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 뒤 "우선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다시 기관과 프로그램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량을 모아 경쟁력 있는 동구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관장은 이어 "꿈마니 진로체험, 무등산 나들이, 운동회 등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특색 프로그램을 매월 진행한다"고 상반기 일정을 전했다.

광주파라미타와 동구청소년수련관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상근직원 5명과 강사 31명, 대학생 인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활용하고 있다.

광주파라미타의 동구청소년수련관 수탁은 광주전남지역 불교계 최초 청소년시설 운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청소년 법회와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호남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시설 수탁은 취약한 청소년 포교의 새 전환점이 될 것으로 지역불교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에는 청소년 포교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듯 조계종광주승보회, 조계종광주전남비구니회서 10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소운 스님은 "불교가 현대사회 트렌드에 맞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수련관을 찾은 아이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좋은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교 청소년단체인 파라미타의 이름을 알리고, 불교철학과 사상이 청소년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졸업을 자비나눔으로 울산불교대학 '귀감'

22년째 지역 장학금 전달 올해 12명에게 600만원

울산의 한 불교교육대학 동문들이 매년 졸업식마다 장학금을 전달해 추운 겨울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올해 졸업식을 포함해 총 22년째 지급한 장학금만 1억4000만원에 달한다.

울산불교교육대학(학장 혜원)은 1월 24일 울산불교교육대학 강의실에서 '제36기 불교교리반 교육생 졸업식 및 제25기 다도반 · 제13기 꽃꽂이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울산불교교육대학동문회(회장 박영란)는 지역 학생 12명에게 장학금 총 6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지난해 12월 7일 롯데호텔 울산 대연회장에서 개최한 제19회 발고여락(拔苦與樂)의 무루(無漏)음악회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함께해요! 우리' 일일찻집 성금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연에 동참했다. 장학생은 지역 내 소년소녀가장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뛰어난 학업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을 선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 기자



대구 정법호출택시 새해 포교발대식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인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 정법호출택시(회장 이갑희)는 1월 18일 정법호출택시 법당 혜림원에서 포교발대식을 열고, 운전기사들의 포교역량을 결집했다. 발대식에는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대구 큰법당 포교국장 대륜 스님과 이갑희 정법호출택시회장, 남단아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총동문회장, 정법호출택시 회원불자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 35보병사단 신년법회

진성 스님 "포기 없이 부모 · 나라 위해 노력을"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이 전북지역 향토사단인 육군 35보병사단 장병들을 위해 1월 21일 호국 충경사에서 무술년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2018년 새해 부대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하고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마련된 법회는 보문사 원감 혜원 스님, 전북종무원 총무국장 송운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 장병 250여 명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하루 일과 중 잠시라도 좌선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고 기도하는 불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여러분들은 나라를 지키는 화엄신장이다. '절절포(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정신으로 부모님과 나라를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이날 장병들이 먹고 싶다고 밝힌 통닭과 피자, 음료수 등을 간식으로 제공했다.

호국충경사 주지 덕명 스님은 "진성 스님의 법문과 지원으로 불자장병들의 사기와 만족도가 높아 법회 참석률도 좋아질 것 같다"며 "참석자들이 불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심어주는 군포교는 외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해 대표 연합회로 화합을"

신임 김해불교연합회장 금강사 주지 법장 스님



"김해를 대표하는 공식 불교단체로서 전체 승가와 재가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신행단체를 포함해 모두를 아우르는 김해시불교연합회로 화합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김해 금강사 주지 법장 스님〈사진〉이 사단법인 김해시불교연합회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해시불교연합회는 1월 19일 가야불교문화원서 제11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신임회장 법장 스님은 김해지역 승 · 재가를 아우르는 단체로 연합회를 성장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단체 공식명칭도 김해불교사암연합회에서 김해시불교연합회로 지난해 12월 말 변경했다.

"김해시불교연합회는 30여 년 전 시작해 꾸준히 전법활동을 펼쳐 왔으며, 2002년에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원 김해시불교연합회로 법인화 했습니다. 사암이란 단어는 지역구를 대표할 때 사용하는 말로 김해시를 대표하기엔 부족해 공식 명칭을 새롭게 바꿔 활동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에는 60여개 사찰이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큰 사찰과 포교당을 방문해 소통하고 연합회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법장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비롯해 연합회차원의 행사에 회원사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이 같이 밝혔다.

이 · 취임식에서는 신임 집행부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신설된 가야불교연구홍보위원장 위촉이 함께 진행됐다. 신임 가야불교연구홍보위원장은 선진규 봉화산정토원장이 맡았다.

법장 스님은 "연합회 활성화뿐만 아니라 가야사 복원에도 앞장서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일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시불교연합회는 1988년 발족해 2002년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원 · 김해불교사암연합회 법인을 설립했으며, 최근 김해시불교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성미 부산주재 기자

판매기념 감사 할인 행사

구입하신 스님들께서 성능에 만족하시어 일부러 전화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해 한 스님이라도 더 사용 하시라고 개당 50,000원씩 특별 감사 할인 보시 행사를 단행 합니다.

◆ 할인판매가 : 125,000원

※ 할 인 기 간 : 2월 6일까지

소장 : 김문화 無線設備技士
제1급아마추어무선사

염불 법문시 원음이 나오는 초 원거리용 고성능 마이트



탁좌에 꽂은 모양

- 60cm이상 떨어져도 맑고 힘있고 장엄하게 울리는 소리에 한번 놀라고!
- 목에 걸어도, 탁좌 스탠드에 꽂고써도, 뛰어난 성능에 한번 더 놀라는 마이크!

본 초 고성능 마이크는 원거리용 고감도, 고성능마이크로, 법당의 탁좌, 또는 좌대의 염불, 법문, 전용으로 행사시 사회자용이나 "찬불가"용 등 어느곳에 사용 하여도 뛰어난 원음의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에 건 모양

◆가격 : 175,000원(홀더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 자체 개발한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합니다!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취 급 품 목◆
- 최고급 파워드믹싱앰프
- 일반 스테레오엠프
- 법당 전용 대출력 스피커
- 각종 무선 마이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제12기

송강(松江) 범음범패 전승회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學人)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0명
- 개강일시 : 2018년 3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
- 수강자격 : 스님 및 불자
- 교육내용 : ❶ 사물다루는 법
  ❷ 49재 의식, 천도재 위주
  ❸ 천수바라, 나비춤
  ❹ 극락무, 살풀이
- 준 비 물 : 요령, 목탁, 태징, 바라, 북
-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3시(1년과정)
- 비 용 : 입회비 이십만원, 수강료 무료

지도강사
- 범음범패 : 진효, 성우 스님
- 태 평 소 : 시우 스님
- 성명학 명리학 : 삼규, 해각 스님
- 살풀이 극락무 : 이채향 (여향)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고목길 51-142길 봉운사
- 연 락 처 : 회장(대현) H·P 010-8725-3196
  총무(도천) H·P 010-6266-8882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송강(松江)범음범패 전승회
회장 대현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2자
◀ 대북
▶ 태징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함 을 아는 사 은 비록 위 에 누 있어도
오 려 편하고 거 이 지 만, 함 을 알지 못하는
사 은 비록 천 에 있어도 마 에 지 는다.

- 불 교 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 묘 방 편 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역학·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 범패 교육도량
범음범패 천수바라 나비무
법고. 정근북(양고장)
송주북 (각단 예불)
사찰행사 문의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어렵고 힘들땐 배워야 산다
사찰,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스님과 법사님 필수조건
명리+귀장술+
원인사+조상찾는법
단기간에 책임지도
(지리산 현담)
010-4540-0061

토종하수오
진액 판매
(약사사)
010-9692-5775

관 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승진운,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특 강
숫자로 보는 생활철학
- 수시모집 : 2018. 3월
- 개인지도(매주)
- 화,금 18:00 ~ 20:00(12주) 50만원
- 대구은행 010-3527-1037 서일영
영도기문철학
010-3527-1037
대구 남구 안골길21 안지랑역 3번출구 5분

종 도 모 집
불교승가여래종
가족처럼 불교승가여래종 종단과
함께할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지역 종무원도 모집합니다)
경남 합천군 삼가면 금리3길 6-4 동경사
010-6562-1577
팩스 055)933-1576
(의식도 전수합니다)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주1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실용교육
- 예불,불공,사십구재,천도재 등
- 북, ,경 ,요 ,목탁 다 는 법
- 바라작법, 오공양무
영남범음범패 염불선원
(경산시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시내)
010-3525-9919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칠곡)
010-8266-8786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7269-3689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제)
010-5212-4533

비구니스님, 보살님.
40~50대 방사드림,
1인 1거주 아파트형 25평,
거주비 무료, 임대가능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
(양산 통도사 부근 산사사찰)
010-4640-4747

도깨비 부리는 방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부부 환영)
010-8576-44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용인)
자세한 내용은 전화부탁드립니다
010-6626-0725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사 찰 행 사 전 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命理學. 실전통변비법
命理學 & 神通術 (스님직강)
기초반, 실전반 모집 (1:1 맞춤 개인교습)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010-8427-6199. 070-4643-6199

특수 실전 강의 안내
천지운기 육입법. 백초귀장술. 파동에너지 성명학
주택풍수 2개월 과정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전가능
중요문화재 제 50호 특수작법 강의 안내
다게. 도량게. 사방요신. 법고무. 막바라. 화이재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를 지도하여 드립니다. 3개월이면 실전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 2018년 2월 6일 개강 *
오전 10시부터 특수실전강의 에 도갑스님 010-2693-6585
오후 2시부터 특수작법강의 에 지원스님 010-7557-2568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1길 3 천명사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맛 샘나 식물성 콩고기
최신 국내기술로 만든 식물성 조직 콩단백 효모
와 항산화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소화흡수 충분한 고단백질 영양섭취
전립선,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
주문전화 1661-4288
농협 301-0222-880671 (주)샘나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 ) 강
2
위 사 나 강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마 문화원(종로구 진 동)
문의 : 02)733-5670

역술 강좌안내

개강 및 무료 강좌 일시
2018. 3. 5(월) 오전 10시 30분(사주명리)
2018. 4. 3(화) 오전 10시 30분(육임)
※ 각 강좌의 첫 수업은 무료 강좌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

과 목	기간	강의 주안점	교 수	수강료
사주명리 초급과정	3개월	사주명리 기초 이론 (신살오행사주론)암기법	동양주역 역술학회장 남륜 박사	월 13만원
육 임 초급과정	3개월	육임 기초력 정립	육임학의 대가 고려육임학회장 이우산 박사, 교수	월 13만원
신선도수행법 (연기법)		수업전후 20분간 수련 (사주, 육임 등록자 무료)	지도법사 원이 (20년간 수련지도)	무료

육 010-7321-5539 (이우산교수)
010-9091-8259 ( )
신 공 010-5096-0759 (원이)

안 역 도보 7분
안 여 고 사
정 형 물 402호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고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계율을 잘 지키고 도덕이 있는 이는 모든 하늘을 감동시키며, 천룡(天龍)과 귀신(鬼神)들도 그를 존경하지 않는 이가 없다.

– 아난분별경 –



논산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이층 법당. 1층 요사채. 토지 540㎡
- 논산시 외곽 조용하고 깨끗함.
- 양도 : 1억 6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수도권
◎ 대지 : 200평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요사 : 30평외 ◎ 요사 : 60평
◎ 매가 : 28억 ◎ 매가 : 26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연무대사찰(급)안내
- 마을기도사찰
- 토지 400㎡
- 한옥법당.요사채.공양간.산신각
- 마을사찰. 깨끗하고 운영이잘됨
- 논산 ic 근처교통편리.
- 양도:1억2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대지 : 39평
- 건평 : 40평(2층건물)
- 법당 : (2층)20평
- 가액 : 2억 2천
- 모든 기물 시설 일체 양도
- 종단 양도 포함

(해외 이주 관계로 급 양도합니다)
051-206-3488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거리)
- 사찰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8백 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경주방향
- 대지 약 500평, 주변산 2천평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기타 아름답게 잘 정돈된 사찰
- 가액 : 방문 후 결정

010-4537-538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기도방 6칸, 친견실, 산신각, 창고, 일주문
- 가액: 5억 8천만(직통전화)

010-5920-5899

사 찰 안 내
- 위 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5천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연락처 010-8697-2251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안동시길안면사무소와 청송읍사무소중간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 근방)
- 사찰터로 좋은 전답 3필지 (약 1800평)
- 가액:10,800만
- 분할가능 : 1필지(약 600평)5000만 2필지 (1200평)9,000만

010-2016-6281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땅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 의료관광 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웅 2억 1천) 안고

010-9906-3631

울산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동구 시장 옆
- 2층 50평
- 칠보삼존불, 천수천안, 호신불 615불, 등 320등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 신중단, 영단(시설최고)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60만 시설비 4,000만원

010-8424-0042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고성군 경계지역
- 지목 : 종교용지, 면적 853㎡
- 가액 : 1억5천, 조절가능
- 주변 경관이 좋고 계곡이 좋음

010-3717-5316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보신 후 결정

010-6208-5555
055)747-9874

토굴 분양 안내
- 총 7개동 (내부시설 완벽) 1개동 대지면적 47평, 건물면적 10평
- 양도가 : 6천만원
- 남해바다.산.사찰. 풍광이 어우러진최고의 명당
- 황토 구들장 구조
- 위치따라 조정됨
- 경남 남해군남면홍현리 581-2(무지개로 81번길23-34)

연락처 :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 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5백만원

010-8525-1959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원 춘천
- 포교원 및 텃밭포함 80평
- 비구니스님 적합
- 가액 : 3,200만원, 30만원(월세)

010-6321-124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내 뒷산
- 경관좋음. 정원수 다량 조경된 아름다운절
- 포교 최적지. - 대지 1200평
- 법당 26평. 요사채 30평 공양실 16평(전체 목조. 단청완료됨) 창고. 저온창고
- 가액 : 8억(대출1억 안고) 전세가능

010-6603-1456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 아파트 주변 아담한 단독 45평
- 높은 담장 대문에 비디오폰 설치
- 양도가는 조정없는 7천만원
- 법당시설 절반값 6백만원 별도

010-8934-8259
(건물주)

토굴(터)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금강상류 청정지역
- 마당까지 차량진입 뒤에 산
- 전기, 지하수 설치되었음
- 토지 : 전, 평수 : 600평
- 가액 : 8천만원

010-4526-9588

멋진2층 상가주택 토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대지 : 717평방
- 건평 : 1층 상가 149.99 2층 주택 81.75
- 가액 : 3억 2천만원 (4천만원 빼드림)
- 대출 : 1억포함(조정가능)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010-3574-3303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울산시 중구 다운동 767-6번지
- 평수 : 30평. 2층
- 주불 : 아미타불,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후불 : 탱화,칠성,삼성탱화
- 보증금 :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 주변아파트 주택
- 급. 이전관계로 좋은 인연 찾음

010-3558-901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현대아파트 상가 406호
- 4층 (50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차후 조정 결정
- 무료주차시설 완비

010-9421-9364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 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5019-5385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구입문의 | 02) 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 현대불교신문사

그냥 무조건 이야
대행스님 법훈록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토지 및 건물 안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16-1
건평 약 30평(암자 및 절)
토지 약 2,000평(국유지)
양도가 4억 5천





충북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255-3
건평 40평 토지 1400평
양도가 18억 5천 (분할 판매가능)

연락처 : 010-8868-167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 대불교 현불샵

“법당 빌려 교양수업을?”



사찰 법당을 대여해주는 미나토구(區)의 호쥬인(寶珠院) 법당.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일본 사찰 대여시스템 ‘화제’

요가교실에서 만담회까지
현대 빈 사찰 활용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인기 많아
사찰 친숙해지는 효과도…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은 현재 사찰 수는 그대로인데 사찰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 빈 사찰이 늘어나는 실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빈 공간이 된 사찰을 대중들에게 대여해 현대인들과 사찰이 더 가까워지게 돕고 있는 곳이 있어 화제다.

‘산케이 신문’은 1월 17일 ‘가까이 있지만 쉽게 발걸음이 가지 않는 사찰의 활용’을 주제로 도쿄도 미나토구(區)의 호쥬인(寶珠院) 법당 대여 시스템을 특집 보도했다.

호쥬인은 400년의 역사를 가진 고찰이면서 도쿄타워 근처에 입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도심형 사찰’이다. 오랜 역사와 훌륭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참배객과 신도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호쥬인은 사찰 운영 컨설턴트 기업 ‘앵커리지(anchorage)’와의 상담 끝에 법당을 대중들에게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5월부터 법당을 대여하기 시작해 8개월간 약 40건의 대여이용이 있었다. 요가 교실, 아로마 테라피 강의, DIY 장신구 교실, 만담회나 샤미센 연주회 등이 법당에서 열렸다. 호쥬인의 주지 모리 토시히토(森俊人) 스님은 “이용료를 통한 수입을 벌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사찰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지고, 가깝게 느끼길 바라며 대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의미를 설명하며 “대여자로부터의 피드백도 받아 사찰의 노후화를 막고 사람이 자주 다니니 절에 활기가 붙는다”고 말했다.

사찰서 하는 강좌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산케이 신문’의 인터뷰에 “도시 속에 이런 색다른 공간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든다”거나 “강사나 출연자, 그리고 참가자들의 거리감이 적당해서 집중하기 쉽다” 등의 호평으로 답했다.

‘산케이 신문’은 도심의 한가운데에 적정한 요금으로 공간을 빌릴 수 있다는 데 큰 점수를 줬다. 호쥬인의 경우 법당이 비교적 작아 20인 내외로 수용이 가능하지만, 더 많은 인원의 수용을 위해 증축을 계획 중이다.

이러한 호쥬인의 활동은 현재 일본의 출가자 감소와 공찰(空刹)의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겨난 방법의 하나다. 일본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사찰은 2015년 말에 7만7316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 전국의 편의점보다 많은 수이지만 출가자의 감소와, 상주 승려의 부재로 인해 이미 4분의 1에 가까운 약 2만개소의 사찰이 주지가 없는 공찰로 조사됐다.

핵가족화와 관혼상제의 간소화 등으로 사찰의 운영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사찰운영 컨설턴트 ‘앵커리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모든 종교법인의 36%인 6만여 법인이 소멸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앵커리지의 홍보담당 스즈키 카나코(鈴木加奈子) 씨는 “이런 환경 속 최근 사찰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경영상담이 대폭 늘었다”며 “묘비나 명복을 비는 탑을 세우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상담이 많다. 이 경우 사찰의 임야를 이용하여 수목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도쿄의 경우 호쥬인과 함께 근방의 2개소의 사찰에서 법당 대여를 시작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원래 도심의 사찰은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것처럼, 사찰을 새롭게 ‘열린 장소’로 돌리는 것이 앞으로의 사찰경영의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은 “특히 법당을 대여할 경우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장소를 대여한 주체로서 주지 스님이 간단한 법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좀 더 현대인들을 사찰과 불교에 친숙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에베레스트 정상서 “부처님은 네팔사람!”

전세계에 알리고자… 두 여성 주장

세계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에베레스트를 특별한 의도로 등반한 두 네팔 여성이 화제다.

‘마이리퍼블리카’는 “두 여성이 ‘부처님은 네팔서 태어났다’고 외치기 위해 에베레스트를 등반했다(Two women to scale Mt. Everest, to announce ‘Buddha was born in Nepal’)”고 1월 22일 보도했다.

네팔 출신의 두 여성은 오직 부처님의 출생지가 네팔임을 밝히기 위해 8,848m를 등반했다. 정상에 선 두 여성은 ‘부처님은 네팔에서 태어났다(Budhha was born in Nepal)’고 써있는 깃발을 정상에 꼽고, 더라이 라이(Dhiraj Rai)의 ‘부처님은 네팔출신’이란 노래를 틀었다. 두 여성은 인터뷰서 “등반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인도서 태어난게 아니냐’고 묻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출생지를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전 세계에 부처님이 네팔에서 태어났음을 알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두 여성이 흔든 깃발의 디자인. 사진출처=마이리퍼블리카

박진형 기자

死後 100일, 미소지은 고승

작년 11월 입적, 일체의 방부처리 없어
살아생전의 수행과 계행의 결과로 전해

태국의 한 스님이 입적한 후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얼굴에 미소까지 띄고 있어 화제다.

‘Daily Mail’ ‘The Sun’ 등 외신들은 “태국 스님의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사망 뒤에 되려 미소를 띠었다”고 1월 22일 보도했다.

이 미스테리의 주인공은 작년 11월 세납 92세로 입적한 루앙 포르 피안(Luang Phor Pian) 스님이다. 루앙 포르 피안 스님은 캄보디아 출신으로 오랫동안 태국의 롭푸리(Lopburi)지역에서 활발히 포교활동을 해왔다. 스님은 약 16년 전부터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오다가 작년 11월 16일 방콕의 병원에서 입적했다. 법구는 관에 실려 롭푸리의 절로 이운되었다.

입적 후 100일, 제자들이 법구에 새로운 가사를 입히기 위해 관을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피안 스님의 법구에 방부처리를 한 적이 없는데도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얼굴엔 은은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미소가 사후 당시가 아닌, ‘등신불’의 상태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신자들은 이것이 피안 스님이 살아생전 청정한 계행을 지니고 열반의 경지에 이른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 피안 스님의 법구는 새로운 가사가 수해지고 제자들과 신도들의 독경 가운데 다시금 본래의 관 안에서 쉬게 되었다.



등신불 상태의 루앙 포르 피안(Luang Phor Pian) 스님. 사진출처=The Sun

한편, 불교 문화권에서는 선정에 든 채로 입적하여 시신이 부패하지 않는 것을 ‘등신불’이라고 한다. 가장 유명한 등신불로는 중국의 김교각 스님이 있는데, 이런 등신불은 불자들의 공경을 받는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청년들 사이 떠오르는 신조어 ‘佛系’

〈불계 ·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佛系 사회 · 부모의 압박 없이 아무렇게나 산다는 뜻
불교에 대한 몰이해, 외동자식의 부담감 투영한 듯

중국 청년들 사이에 ‘불계(佛系, ‘fuo-shee’로 발음)’의 의미가 변모해 ‘사회의 압력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 언론 ‘카익싱’은 1월 19일 “어떻게 불자가 된다는 말이 사회의 압력을 무시한다는 뜻으로 바뀌었을까(How ‘Being Buddhist’ in China Morphed Into Ignoring Society’s Pressures)”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카익싱’은 중국 청년들이 불교에 대한 몰이해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설명했다.

불계(佛系)는 중국에서 불교라는 뜻으로 쓰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쓰이지 않게된 이 말이 새로운 의미의 말로 환생한 것이다. 다수의 중국 젊은 청년들은 불교를 ‘만족을 위해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다. 그래서 수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정진하지 않고 단순히 ‘어떻게 되든지(Whatever)’의 의미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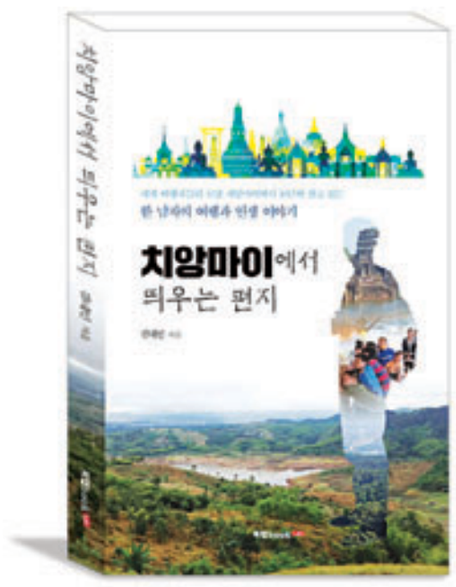
이 단어는 일본의 한 잡지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취미에 전념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남성을 가리켜 불계남(佛系男)이라고 소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이야기는 젊은 청년들이 이미 우울증, 대머리, 이혼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중년이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은 건강한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젊은 청년들 사이에는 경력과 결혼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은 대부분 무엇인가 할 의지는 있지만, 사회의 목표와 기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 이는 부모님의 압박을 받았던 어린시절에서 오는 트라우마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청년들은 ‘한 자녀 갖기 정책’하에 대부분이 외동자식이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일부 부모는 자식의 2번째부터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입양을 보내기도 한다.

또한 자식이 한 명뿐이다 보니, 자식의 성공에 더욱 집착하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중국 청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항상 사회 이슈로 내놓기도 했다. ‘카익싱’은 “한 자녀 갖기 정책 하에 성장한 세대의 성장통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저자 : 김대인

저자 김대인은 1950년생으로 1989년 일본 자유 여행으로 첫 해외 여행을 다녀 왔으며, 1992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자동차를 타고 육로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자유 여행가이다. 2000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여 현재 치앙마이에 거주 중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치앙마이의 매력과 오지 여행의 진가를 알려주고 싶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다.

치앙마이에서 띄우는 편지

여행은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다.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 치앙마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가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여행 이야기

여행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추억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한다.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저자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바라며 함께 세계로 나가 여행했던 추억을 책으로 엮었다. 배낭에 반찬 통 몇 개를 넣고 ‘맨 땅에 헤딩’하듯 무작정 떠난 세계여행. 낯선 땅낯선 사람들과 만나 울고 웃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준 여행지에서의 체험을 이제는 일흔의 할아버지가 된 저자가 수십 자루의 볼펜을 바꾸어 가며, 아무런 기록 없이 기억에 의존해 생생하게 복원했다.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다운 치앙마이에서 보내며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은 여행에 관해 쓴 에세이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지의 리얼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대인 | 북랩 | 230쪽 | 값 14,500원





마음-훈련

노먼 피셔(젠 프리스트)

〈5〉 네 수행을 평가하고 확장하라

"명상할 때만 수행 아냐"… 수행은 삶이다

네 번째 요점이 '삶 전체를 수행으로 만들라'였다면, 이 다섯 번째 요점을 부차적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 이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단계다. 지금 우리는 훈련의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이는 내게 일어나는 일을 좋든 싫든 그저 견디는 과정이 아니라, 열림과 성장의 과정으로서 삶을 구상하는 것이다. 수행이나 훈련의 관점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 한다면, 훈련 과정의 진행과 더불어 내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고, 주어진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도구를 건네주는 네 개의 표어, 네 개의 경구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수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알면 이를 확장하고 정련할 수 있다. 이 요점에는 네 개의 경구가 있다.

'요점은 단 한가지다.' '네 눈을 믿어라.' '기쁨을 유지하라(그리고 유머 감각을 잃지 말라).' '산만할 때에 수행하라.'



요점은 단 한 가지다. 아무리 계속 잊어버린다 해도 이는 너무 단순한 경구다. 너 자신에 집착하지 마라! 깨고 나오라! 마음 훈련은 이것으로 수렴된다. 자나 깨나 이 경구를 가까이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다. 속상하거나, 불행하거나, 불만스럽거나, 초조하거나, 움츠러들거나, 거북하거나, 갑갑할 때 한번 확인해 보라. 충분히 깊이 성찰한다면, 이 불쾌함의 궁극적 원인은 나와 나의 욕구, 욕망, 관점을 필요 이상으로 앞세우면서 어떤 식으로든 나 자신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을 것이다. 이를 깨닫고 마음의 벽을 조금 깨고 나오기만 해도 압박에서 놓여날 수 있다.

생각해 보라. 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커다란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큰 세상에는 문제도 어려움도, 슬픈 일과 행복한 일들도 많다. 그리고 이 모두가 내 삶의 장이다. 내가 헤엄치는 바다이자 내가 숨 쉬는 공기다. 단 한 순간도 이들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왜 자신을 삶의 거대한 바다에서 인위적·개념적으로 분리하여 자아의 조그만 감옥 안에 감금하고 싶어 하는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끊임없이 제한받고 공격받는 느낌을 감수해 가면서 말이다. 우리의 수행 전체는 다음의 말로 요약된다. 너 자신에 집착하지 마라. 내려놓고 나오라. 타인을 생각하라.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라. 그 일을 진심으로 하라. 이는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을 평가하는 한 방법이자 스스로에게 틈틈이 물어야 할 질문이다. 나는 전보다 자신에게 덜 집착하고 타인에게 더 도움이 되고 있는가? 타인에 대해 더 자주 긍정적이고 너그럽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라.

네 눈을 믿어라. 이 경구를 볼 때 우리는 앞에서 떠올랐던 생각과 다시 만나게 된다. 경구들이 서로 반대로 가는 듯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마치 양쪽의 균형을 맞추려는 무언의 노력이 존재하는 것 같다. 한 가지 경구를 소화하자마자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듯 보이는 다음 경구가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변덕이나 심술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전형적으로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의 주된 특징 중 하나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좋다고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여서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장애물을 피하려고 길 왼편으로 비키다가 왼쪽 끝까지 가서 도랑에 처박혀 버리는 식이다. 그리고 이제는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오른쪽 끝까지 가면 또 길 반대편의 도랑에 빠질 수도 있으니 다시 왼쪽으로 가야 한다.

여기서도 같은 기제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금까지 "깨고 나와 자신에 대한 집착을 끊어라, 모든 것에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지 마라, 타인을 생각하라, 네 삶을 확장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네 눈을 믿으라는 말을 듣는다.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오로지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티베트 문헌의 원래 구절은 "두 증인 가운데 주된 증인의 말을 들어라"다. 여기서 두 증인이란 내 삶의 두 증인, 즉 나와 그 나머지 사람들을 가리킨다. 주된 증인은 바로 나다.

마음을 창조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에서 나의 피드백은 어디로부터 올까? 누구에게, 무엇에게 나의 순조로운 항해를 의탁할 수 있을까? 이 경구는 나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다. 두 증인 가운데 주된 증인인 나를 믿으라고 말한다.

마음 훈련에 필요한 피드백
자기평가로 스스로 성찰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키워
삶을 수행으로 변화시켜라

인간의 주관성, 우리가 모두 지닌, 내가 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이 행성에서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현상 가운데 하나다. 나의 조카 같은 인지과학자들이 이를 탐구하고 경이로워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내가 나라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무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나를 이처럼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 느끼게 해주는 그 실제의 내부 기제는 그 누구에게도 미지의 영역이다. 결국 오직 나만이 내 수행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이를 경직되게 받아들여선 안 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을 무시할 순 없다. 다른 사람의 시각과 피드백은 중요하다. 타인은 내가 자신을 보는 것보다 나를 더 정확히 볼 때가 많다. 그래도 내 삶을 최대한 정확히 보고 내가 본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일은 온전히 내 책임이다. 다른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정확한 관점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이다. 결국에 가서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타인의 견해가 아니다. 내 삶을 만드는 것은 내 삶에 대한 나 자신의 감각이다.

기쁨을 유지하라. 이 경구를 수행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마음이 기쁘거나 안 기쁘거나 둘 중 하나지,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마음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어떻게 유머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런 식의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현실적일까?

그러나 좀 더 성찰해 보면 그렇게 터무니없지만은 않다. 이것이 우리 훈련의 다섯 번째 요점임을 기억하라. 짐작건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은 자신을 더 신뢰하는 법을, 자신의 결함에 대해 정직해지면서 그것을 놓고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아마 지금쯤 역경 가운데서 수행하는 법을 터득했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자기 안으로 도망쳐 봤자 소용이 없으며 문제만 더 가중시킬 뿐임을, 부정이나 회피 없이 힘겨운 감정들을 마주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해했다. 이제 우리는 상황에 반드시 습관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다. 수행을 계속해 나갈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는 방식의 선택지는 점차 늘어난다.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마음 상태까지 파괴해야 할 이유는 없다. 심지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한 줄기 빛은 있다. 우리는 유머 감각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이 평가를 위한 경구임을 기억하라. 요지는 이 경구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신이 언제 그렇고 언제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내 마음을 조절하거나 제어할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를 체벌하기 위한 회초리나, 실제로 느끼지 않는 감정을 느끼는 척하라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고안된 도구다.

산만할 때에 수행하라. 지금까지 말해 왔듯이, 우리는 지금 마음을 훈련하고 있으며 훈련에는 규율이 필요하다. 주의를 집중해야 하고, 자신의 서약을 지켜 나가야 하며, 심지어 내키지 않을 때에도 훈련 규율(경구)을 준수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규율과는 다르다. 훈련 교관이 집행하는 불쾌한 속박이 아니다. 이런 공격적인 규율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리 효과가 없다. 대개 그 반대의 효과를 초래한다. 모든 작용은 반작용을 낳으며, 규율이 혹독할수록 우리의 반항심은 더 커진다.

마음 훈련의 규율은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 부드럽고 관대하고 느긋하여 반항심을 부추기지 않는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넓게 열어야 하며 그것이 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산만함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마음이 산만할 때도 수행하는 법을, 산만함을 수행의 일부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양의 편안함과 느슨함을 찾는 것이 훈련의 핵심 요소다. 이완된 때에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잊고 백일몽에 빠지거나 야구 경기나 와인 한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도 훈련의 가닥이 이어지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때에 수행을 잠시 제쳐놓고 휴식을 취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명상하거나 경구를 읊을 때는 수행 중이고 그렇지 않을 땐 수행이 아니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 매 순간 올바를 필요도 없다. 규율은 그런 것이 아니다. 초점도 날카롭게 맞출 때가 있고, 연 초점으로 부드럽게 만들 때가 있다. 수행은 심각하고 중요하고 지시에 따르는 것이며 딴 짓은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수행은 삶이다. 이는 딴 짓까지 포함해서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 내가 산만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 수행을 잊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 경구를 기억하라. 산만해질 수 있다. 전혀 잘못이 아니다. 자신의 산만한 상태를 의식한 그 순간, 자신의 수행을 기억하고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글은 〈마음-훈련 미친 세상에서 평온하게 살기 위한 59가지 매뉴얼〉(도서출판 팡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정정 공고

현대불교신문 1182호(2018년 1월 24일자) 19면 하단광고로 게재된 정혜사(대구 중구 남산 2동 145-13) 관련 '탈종 및 탈종 정정 공고'는 행정적인 착오로 잘못 게재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상기 정혜사(주지 도경)는 이미 상기 신문 1월 10일자 16면 하단광고면에 대한불교법화종에서 탈종한다는 탈종공고를 게재하였고 대한불교법화종 탈종공고는 공고된 바와 같이 유효함을 밝힙니다.

2018년 1월 30일

정혜사 주지 도경 법하

신화불사

■ 전통한옥 신축, 철거, 개보수
■ 사찰 부동산 양도
■ 법당 개보수
■ 수익형 기도처 (서울시내)
년 수익 보장
▷가액 : 21억 (잔고증명 필요)
■ 요사채용 재목 (ㄱ형 한옥)
다그라스 재목. 40 ~ 45평
▷가액 : 4,500만원 (시중가 1/3)
그외 다수의 부동산 매물 있음.
■ 7층석탑 12자 500만원
7층석탑 13자 800만원
7층석탑 12자 1,000만원
7층석탑 12자 3,000만원
납 골 함 1,200기 1억 2천만원

010-6545-2020
신 화 불 사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대행 스님

역력하고 에누리가 없고 철두철명한 게 부처님 법!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 몸속에 지금 미생물이, '예전에 나는 이렇게 됐었다.' 하기 이전에 '지수화풍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다음에 '미생물이 있구나!' 이거죠. 미생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몸속에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모습을 해 가지고 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태초예요, 자기 생의 태초. 자기 오장육부를, 이 세포를 전부, 살이든지 뼈든지 세포든지, 그 모두가 겹겹이 돼 있으면서 생명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들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그렇게 살면서 물리가 터져가지고 지혜가 나온 것이 바로 자꾸자꾸 형성을 시켜 가는 겁니다. 요만한 벌레 하나가 날아다니는 벌레가 되지 않나, 요만한 벌레가 매미가 되질 않나, 응? 이렇게 진화된 것을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잘 아시고 계십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옷을 벗는 겁니다. 옷을 벗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더 차원을 높여서 자기 몸을 형성시키면서 다리가 짧으면 길게 만들고 길면 짧게 만들고 아주 자유자재로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부처님 법이죠. 얼마나 무변한 법을 여러분이 가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법신(法身)이고 화신(化身)이고 보신(報身)이고 부처고,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즉 말하자면 부적을 써서 베갯속에 넣거나 어디 붙이거나 하는 이런 미신 짓들을 한다면 죽어서도 그 차원이니 어떡하죠? 요다음에 태어나서 그 차원끼리 또 만나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다른 게 나올 게 없거든. 지금 세상을 살펴보세요. 백봉 거사 말했듯이 끼리끼리들 모이지 않았나? 사람도 끼리끼리 모이고, 물건도 끼리끼리 모이고 또 물건을 갖다 쏟아 놓으면 골라요, 끼리끼리. 골라서 놔요. 얼마나 역력하고 에누리가 없는지 철두철명한 게 이 부처님 법이에요.

그림도 여러분이 다 그려서 이렇게 나오셨지만 말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 공부 하는 사람들은 간판이 좋은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꼬임에 빠져서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 봐 일부러 아주 험악하게 해 가지고 나오는 수도 있어요, 각오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 사회나 국가적으로 참 이득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춘보 선사라고 계셨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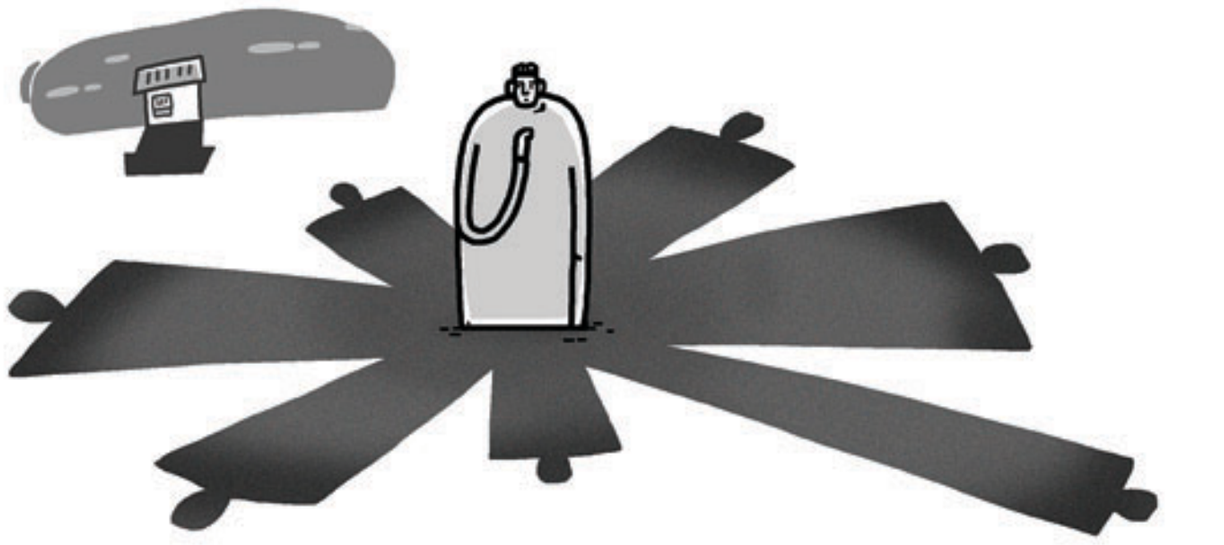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 춘보 선사는 원효 대사처럼 만날 남한테, 뭡니까? 파계중이라고 만날 돌림을 받았어. 그런데 이 스님은 그런 걸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 거 탓하지 않고 여기 가도 "아이구" 저기 가도 "아이구" (고개를 숙여 보이시면서)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사람 같지도 않지. 그랬지마는 그분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원효 대사보다도 더 능력을 참 많이 발휘했다고 봐요.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때에 참, 국난에 빠져서 어려웠을 때 조선에 이익을 주었다는 얘깁니다. 나라가 국난에 빠지니까 스스로 일을 벌인 겁니다. 어떻게 벌인 건가? 청국으로 하여금, 무슨 일로 이쪽으로 청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참작하시라고 미리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 정승을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가난했습니다. 옛날에 양반은 나가서 막일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춘보 선사가 그 집엘 들렀더니 사랑방에 앉아서 글쎄 짚세기를 꼬고 있지 않습니까? 호피를 깔고 앉아서 발을 치고서, 그렇게 당당하던 그 정승이 하루아침에 정승을 그만두고 나오니까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살림은 가난하고, 마음은 꼿꼿하고, 돌림성은 하나도 없고, 지혜라는 게 있어야 돌림성이 있지. 그래서 종들은 다 나가고 그러니깐 호피를 깔고 앉아서 짚세기를 꼬는데, 호피가 때가 꼬질꼬질하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 춘보 선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그 춘보 선사라는 분은 나라에까지도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랬으니까 어디 고을 하면 벌써 빠삭하지 않습니까? 고을 고을에 다니면서 원효 대사처럼 많이 구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 준단 말입니다. 인정을 하고만 있었지, 뭐 불러다가 어떻게 한 건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행을 그렇게 잘하셨으니까 인정을 받고 있는 처지라. 그런데 그 친구를 쳐다만 보고 있다가 밤을 새우고 이튿날 아침에 "여보게, 자네가 깔고 앉았던 거 나 좀 주게."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나?" "새까맣고 때가 묻은 거를 갖다 바깥에 나가서 털어다가 날 좀 주게. 내가 정승한테 가서 팔아다 줌세." 그러니까 그냥 자지러지게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놀라지 말고 내 뜻을 잘 생각을 해 보게, 부처님 법이란 이렇게 좋은 걸세." 하고선 그걸 싸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싸서 달래 가지고 가서 정승,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그럴까? 그냥 정승이라고 합시다. 정승한테 가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앞으로 구 년이 있으면은 청국에서 이 나라 보물을 청해 와. 그때 보물로 쓸 테니까 이것을 잘 싸되, 백지로다가 싸고 또 싸고 일곱 번을 싸고 여덟 번째 싸되 공단(貢緞)으로 싸라. 공단으로 싸고 난 다음에는 상자를 만들되 아주 튼튼히 삼 겹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라." 지금으로 치면 도끼로 쳐도 영 쪼개지지도 않게 해서 잘 모셔 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깐 그 정승이 가만히 생각할 때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오백 냥을 받고, 그때 오백 냥이면 달구지에다 실어야 돼요. 무거워서요. 그래서 달구지에다 실어다가 갖다 주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삼 년 후에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깐 또 짚세기를 꼬고 있어요. 그걸로 빚진 거 다 갚고 그러니까 물 퍼붓기죠, 밑 빠진 독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한 바퀴 휘 도니까 글쎄, 찌그러진 질요강이 있지 않습니까? 밭 둥구리에 오줌이 담겨 있는 누렇게 된 질요강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좀 북북 닦아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건 뭘 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내가 팔아다 줄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물우물 쌌습니다.

싸 가지고서는 가서 또 그 정승한테 그랬습니다. "육 년만 있으면 이것이 큰 보물로 다 쓰일 테니까 오백 냥만 내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지금으로 치면 임금을 봐도 그렇게 호락호락 안 해요. 그게 한 가지 흠이라면 흠이겠지마는, 그래서 그 정승은 그 말을 또 믿었어요. 그것을 또 그렇게 싸고 싸서 상자에다 넣어서 지금으로 치면 그냥 튼튼하게 그렇게 넣어 놨죠. 또 이제 실어다 주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죠. 실어다 주곤 또 올라갔다 삼 년 만에 내려오니깐 또 그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로다가 보태 주는 것은 참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 내려오니깐 또 그 지경을 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안팎을 다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깐 삿갓 쓰던 거요, 그분이 정승으로 계실 때에 낚시질을 하느라고 삿갓을 썼었는데 추녀 밑에다가 걸어 놓은 것이 아주 사그라져서요, 새똥 뭔 똥하고 그냥 사그라져서 바슬바슬하거든요. 그러니깐 할 수 없이 "여기다가 물 좀 뿌려 주게. 물 좀 뿌려서 누굴누굴하게 해서 이것 좀 싸 주게." 그러니까 "여보게, 그건 내다 버리거나 아궁이에다 넣어도 시원찮은데 그걸 가지고 가면 뭘 하나?" "글쎄, 걱정 말고, 우리나라를 구하는 일도 되네. 이것이 지혜일세."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가져가서, 삼정승한테 얘기를 하고 삼 년만 있으면 그렇게 보배로 쓰일 것이니 돈 오백 냥만 더 내라고 그래 가지곤…, 하하.

지금 아마 제가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삼백 냥, 오백 냥 내 놓으시오." 이렇게 하면 아마 욕 많이 할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그래서 오백 냥을 또 갖다 주고 갔는데, 삼 년 뒤에 청국에서 사신이 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여기 조선의 보물을 내놓으라고 그런 겁니다. "보물을 내놔라." 이런 겁니다. "보물을 안 가져온다면 여기 조선에 어떠한 벌을 행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나라도 살기가 어려웠던 때인데도 그렇게 또 당하니 말입니다. 이게 한두 번째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당하니까 참 살기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자 그때 서춘보 스님이 생각났습니다. 임금이 머리를 싸고 그냥 걱정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조선의 보물이, 청국에 들어갈 보물이 어디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되고 춘보 선사가 갖다 준 그것이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춘보 선사를 찾느라고 온통 산을, 사람을 풀어서 헤맸는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춘보 선사는 벌써 그것을 알고 하산하셨습니다. 내려와서 "나를 그래서…." 번연히 알면서도 묻는 겁니다. "왜 찾으셨습니까?" 하고요. 그러니깐 그러그러해서 이렇게 스님 생각이 나서 찾았노라고 해요. "지금 밥을 못 먹고 싸매고 있습

☞ A18면으로 계속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욜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욜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심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2018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0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9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8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 ~ 9월 18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7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이 창살 없는 인간 게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 A17면에서 계속

니다. 이러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걸 해 드리지 못한다면 우린 다 죽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러면 그거 싸 놓았던 거를 해 드린다 하면서 여기 사신과 거기 사신과 모든 의식을 다 갖추어서 춘보 선사가 앞장을 서고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 춘보 선사는 아주 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데 정승들은 그냥 밥을 못 먹고 혓바닥이 죄 해지고요, 밥을 넣으면 그냥 모래알 같은 거예요. 글쎄, 찌그러진 그거, 정승이 쓰던 그 삿갓 그걸 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조선의 보물이 됩니까, 글쎄? 그러니까 뭐, 입도 쓰고 죽을 맛이죠. 저 춘보 선사는 앞장을 서서, 내일 죽더라도 먹을 건 먹고 돌아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죽으라고 그랬어요. 아주 죽으면 사는 길이 있다고요. 그래도 못 알아듣거든요. 유교로만 나가서.

그래서 강을 건너자 청국에서 마중을 나와서 그냥 좍 둘러섰거든요. 그러니까 춘보 선사가 하는 소리가,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보물은 어디에도 없는 보물이니 밤새도록 잘 지켜라. 누구 하나 손대지 못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군졸들, 여기서 나간 군졸들이 그냥 좍 둘러서서 화톳불을 놓고 그냥 지킨 거예요. 아주 겹겹이 선 거예요. 그렇게 위엄 있게 해 가지곤 턱 당도했어요.

청국 천자가 턱 나오는데, 당장 그렇게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춘보 선사가 말했습니다. "이 귀중한 보물을 단번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풉니까? 깊이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그 뜻을 찬양하면서 조선국의 그 고마움을 음미하면서 삼 일을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거를 뜯어야 합니다." 이러거든. 그러니 글쎄, 얼마나 충격을 주었습니까? 삼 일 동안을,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전부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천자가 하는 소리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 했습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없는 걸 가져와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삼 일 있다가 모두 위에 앉고 밑으로 죽 앉고 그랬는데, 정승들은 삼 일을 그냥 못 먹어서요, 빌빌빌빌 하거든. '저거를 어떻게 해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춘보 선사는 그렇게 당당하게 있으니, 그걸 알아야 뭐, 자기네들도 좀 믿고 좀 안도할 텐데 믿지 못하겠거든, 도무지. 그러니까 그냥 입이 지지리 지지리 타고 죽겠으니까 춘보 선사 뒤로다가 물러섰고, 정작 말할 사람은 뒤로 물러섰고 춘보 선사가 앞에 앉은 겁니다.

앞에 앉아서 하나를 뜯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몇 시간을 뜯은 거죠. 하하하. 전부 합장을 시키면서 뜯은 겁니다. 뜯으니까 웬 걸요, 그냥 때가 쪼절쪼절 붙은 거, 새까만 거, 털도 하나도 없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 중국 천자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보물이 되느냐는 겁니다. "너희들, 너희들 이것이…." 그냥 천둥같이 호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이 춘보 선사는 당당히 "이것은 공자님이 삼천 제자를 가르칠 때 깔고 있던 호피다." 이거야. 하하하. 공자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앉아 있던 걸 우리 조선국에서 이거를 간직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청국에 있느냐." 이겁니다. 조선국에서 이걸 간직하게끔 되어 있으니 이 나라도 나라냐고, 이거 사람이 없는 나라 아니냐고 말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하니까 그만 천자가 그냥 기가 탁 죽었다. 하하. 그래 가지고 무릎을 탁 치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의인의 방석 하나 간직하지 못했으니, 이게 참 죄송하기 짝이 없다." 하고 아주 그냥 고개 숙였죠, 춘보 선사한테.

아,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푼 것이 뭐냐 하면 아니, 사글사글한 삿갓 아닙니까, 글쎄. 사글사글한 삿갓인데 새똥이 앉고 그냥 푸는 것도 금방금방 이렇게 푸는 겁니까, 어디? 한 시간을 내리 풀어 가지고 턱 놓으니까 사글사글한 그런 거를, 그래도 물을 뿌려서 좀 누글누글해져서 괜찮지만, 이제는 기가 죽어서 그냥 "이건 뭔데 그러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태공이 시절을 낚시질할 때 쓰던 삿갓이라 이거야. "그런데 이것도 조선국에서 이렇게 간직해야 되느냐!" 하고 큰소리로 탕 울리니까 거기에 그냥 기가 팍 죽는 거야. 기가 탁 죽으니까 사신으로 왔던 사람이며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선 그냥 땅으로 눈을 떨어뜨리거든요. 그 위력이 너무나 당당하니까.

또 하나를 풀어서 놓으니까, 그때는 그냥 모두 눈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뭐, 더디든지 말든지 합장을 하고 말입니다. 춘보 선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럭하고. 그러니 그 꼴이 뭡니까? 그래서 또 풀어 놓으니까는 그때 버캐가 누렇게 앉은, 허허, 찌그러진 참, 그 질요강이지 않습니까? "질요강이? 이건 그래 뭐, 뭐, 뭐가 보물이 되겠소?" 하니까 그때 춘보 선사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청국 보물이지마는 이건 우리나라 최초로 연구해 최초에 구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직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조선국에서 제일가는 유물이 됩니다."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참, 이거는 잘 보관해 두어야 될 거라고 하면서 그대로 명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상자를 셋으로 속 상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자, 세 번째는 아주 철망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잘 간직하라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단번에 명을 내리기를 조선국에 공단 필, 금은보화, 돈 이런 거를 수없이 배에다 실으라고 했어요. 배에다 실어서 조선국으로, 그 수없는 배에다 실었으니 그때 한참 죽을 판에 말이야, 우리네 살림이 죽을 판국에 그렇게 많은 보물과 그 모든 걸 보내왔으니 나라가 궁색하던 때에 오죽이나 잘 썼겠습니까, 요긴하게. 그런데 서춘보 선사는 가져온 보물을 좀 드리니까 그거를 받아 가지고 싫다는 말도 안 하고, 허허허, 받아 가지곤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는 골골이 다니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또 그 친구 있죠? 못사는 친구. 거기 또 한 덩어리 쥐어 주고요, 다 풀어 놓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이나 그때나 물리가 터져서 지혜로운 일들을 할 때에, 내 얘기했죠. 춘보 선사가 일을 해 놓고 춘보 선사가 감당을 했다고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몸으로 다녀서 물질로 해서는 호국 불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 자동적으로 되게끔 굴리는 그런 무(無)의 과학이 있다는 얘깁니다. 무(無)의 과학!

그러니까 그때 춘보 선사는 그쪽 청국의 천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 놓고, 조선이 살 수가 없으니깐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 놓고, 즉 그런 걸 찾게 해 놓고 미리 대책을 세운 겁니다, 미리미리.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마는,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가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끌고 다니는 이 몸도 벌써 자기가 힘이 있다면 몸으로 다녀서 불교를 그렇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온 누리에 두루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 대책을 세우는 것도 다 그렇게 돼 돌아가게끔 대책을 세워서 해 가되 먼저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걸로 비유할까요? 어떤 스님이 부스럼이 크게 다리에 났거든요. 부스럼이 잔뜩 났는데 아침 새벽에도 그냥 이게 아프니까는 "아무개야!" 하고 시자를 부릅니다. 그러면 "예!" 그러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대답을 했다 하면 뚝 끊어지고 안 시켜요. 또 대답하면은 아무 일도 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시자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대답은 해 놓았는데 영 일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화딱지가 나서 말입니다, "아무개야!" 부르면 대답 안 하고, '에잇!' 그냥 속상해서 한다는 게 그만 아침에 부르면 세숫물 떠다 주고, 대답이 없이, 또 아침에 구멍 눈으로 그냥 보니까 아파서 그러고 있으면서 "아무개야!" 부르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수건 빨아 가지고 가서 씻겨 드리고선 나오고 하다 보니 이게 숙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뭐든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스스로 자기가 알게끔 만들어 주기 위한 어떠한 방책으로써 뭐가 잘못돼 돌아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까닭에 발전을 한다 이겁니다. 즉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알게 되고, 남들이 막 얘기를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럼으로써 그걸 깨닫고 또 발전을 잘해 나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발전성이라고, 발전을 이루는 데 쓰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난리가 나지 않으면 또 부자 노릇 할 수도 없고 상인들이 상업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깐요. 이렇게 서로 서로 해 나가되 다 대책을 세워 놓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전자의 선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대답이 없이 그렇게 했는데, 대답을 해도 때려 주고 대답을 안 해도 때려 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무개야!" 불러서 대답을 "예." 했으면 시켜야 할 텐데, 안 시키고 했으니 몇 너석이나 붙어 있겠습니까, 그거. 아마 지금 그러면 미쳤다고, 돈 거라고 그럴 겁니다. 뭐를 해 가지고 오면 그거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세숫물을 갖다 줘도 그 물로 씻지 않고 절룩절룩하고 나가서 세숫물을 떠서 자기가 했습니다. 그러니 글쎄, 시자가 생각할 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시자가 스승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다 준 것은 안 썼다는 말입니다. 알고 떠다 주었다면 그건 썼을 텐데. 그래서 그 물을 안 썼기 때문에 그 시자한테는 오히려 화두가 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고 그냥 관(觀)했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해 가지고 스승이 세숫물을 떠다 드려도 안 쓴 거, 불러서 대답을 해도 대답을 들은 척 만 척 한 거, 이런 것을 다 알게 되고 물리가 터졌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러 들어왔던 사람이 다 떨어지고, 몇 안 남은 가운데 공부를 해 가지고 무르팍에 엎드려 울면서 "누워 있는 부처님, 앉아 있는 부처님, 서 있는 부처님이 다 당신이시군요." 하고선 울었답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그런다면 다 도망갔을 테죠. 지금은 지금대로의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기 싫은 말도 있겠지만, 하기 좋은 말도 하기 싫은 말도 없이 그저 생각도 없이 여러분 만나면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나라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공부하는 얘기도 하는 것이…. (시계를 보시고) 참, 너무나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서로 앉아서 토론한 것을, 설법했다기보다 우리 서로가 둘이 아닌 한자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이렇게 나누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나가면서 내 얘기를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교를 숭상하는 데는 미신의 법을 조금도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융통성 있게 그것도,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기복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건 틀렸어." 하지 말고, 스스로 유유히, 융통성 있게, 지혜 있게 어머니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안으로 굴리세요. 어머니도 이러한 뜻을 아시게끔 주인공에 모든 걸 놓고 가다 보면 스스로 그 에너지가 어머님의 마음속에서도 같이 돌아가게 되죠. 내가 행으로도 자꾸자꾸 달라지면 '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거기가 옳은가 봐.' 그 생각이 들 때에 "어머님, 이러고저러고…. 오늘은 거기 가니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생활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얘기를, 무슨 불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듯이 하다 보면은 어머님도 좋아져서 마음이 흐뭇해지시고, 자식도 흐뭇하고 좋겠죠. 급하게 그냥 확 부러뜨리면 꺾어져요. 모든 게 불화가 일어나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자식을 이끄는 데도 역시 똑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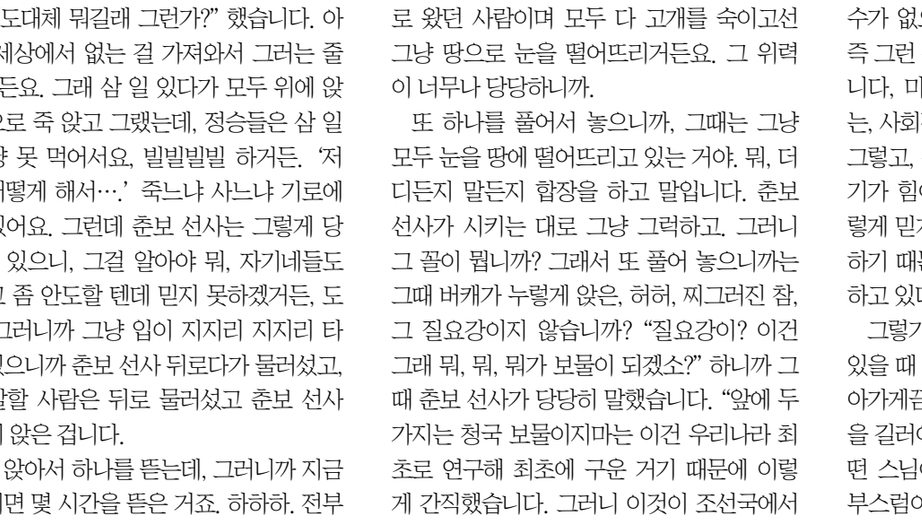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침착하게 생각해 가면서 연구하는 것이 천체 물리를 연구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날까지 이렇게 짧으면 길게 하고 길면 짧게 하고,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 창살 없는 인간 게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몸으로 다녀서 물질로 해서는 호국 불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 자동적으로 되게끔 굴리는 그런 무(無)의 과학이어야 합니다!

※위 법문은 1987년 1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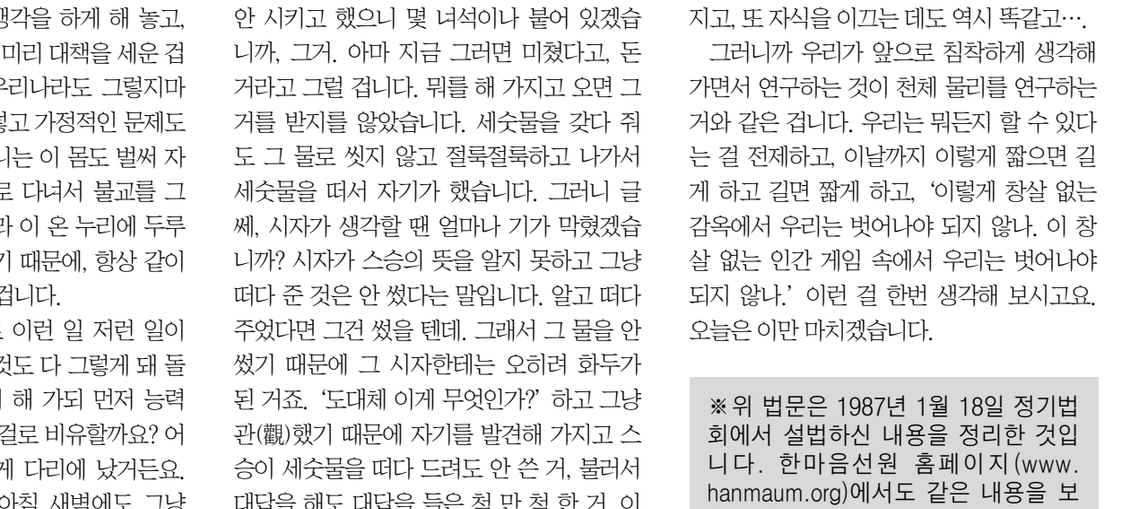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Book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1층 Tel. 02-953-7181

미아리고개
• 성신여대
아리랑고개
•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동일하이빌 지하1층 붓다북
• 성북구청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현불 논단 |

디지털미디어와 新난독시대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인터넷 텍스트 읽기 보편화되며
젊은 세대 난독 · 오독 심각 수준

미디어 시장 변화에 신문 '위기'
강의서 신문 샘플들 보여주기도
종이 · 디지털 읽기 차이점 많아

디지털 이행 흐름 막을 수 없어
인간과 미디어, 누가 주인인가
새로운 기술에 합리적 대응 필요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텍스트 읽기가 보편화 되면서 젊은 세대에 텍스트 혐오증이 생겼다고 한다. 글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난독과 잘못 이해하는 오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읽기를 버거워하고 귀찮아하는 현상은 기성세대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로 미디어의 지평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확장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는 사실 읽기 문화만이 아니라 미디어 지형 전반에 지각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이제까지 주류 미디어로 자리해온 책도 신문도, 심지어 TV도 스마트폰 속으로 흡수된지 오래이다. 종이신문을 읽어본 적이 없는 대학생들을 위해 강의시간에 종이신문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는 한 대학교수의 이야기는 쇠락위기에 처한 아날로그 미디어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찍이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 마샬 맥루한은 미디어의 기술 자체가 이용자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술결정론을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미디어의 이용은 습관화된 행동패턴을 낳게 되는데, 그 습관화된 행동패턴을 구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개별 미디어의 기술적 속성이다.

신문의 기술적 기반은 인쇄술이다. 정보를 지면에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문자 · 이미지 · 사진 같은 요소가 정보전달을 위한 주된 기호체계로 사용된다. 반면에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미디어는 문자 · 이미지 ·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 음성 ·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는 복합 양식의 텍스트를 제공한다. 하나의 텍스트에 혼재되어 있는 동영상, 음성 등의 요소들은 텍스트 읽기를 어렵게 하는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종이 텍스트 읽기는 전통적인 읽기 관습을 따르는데, 이 전통적인 읽기 관습은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는 음독과 조용히 읽는 묵독을 근간으로 한다. 이 음독과 묵독의 공통점은 이 방식의 읽기가 몰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인쇄된 텍스트 읽기는 결국 집중력이라는 행동패턴을 습관화하여 논리파악, 정보 분류, 장기기억에 유리하다.

반면, 디지털 텍스트 읽기는 전통적인 읽기 관습인 음독과 묵독과는 차원이 다른 읽기 방식을 요구한다. 소위 다중읽기가 그것인데, 읽어 내려가는 순서를 파괴하는 비선형적 읽기이며, 텍스트 여러 곳에 동시적으로 주의 기울이기를 요구하는 읽기 방식이다. 이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몰입을 저해함으로써 피상적 읽기라는 행동패턴을 습관화하게 한다.

전통적인 텍스트 읽기의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텍스트 읽기가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인 텍스트 읽기, 즉 책과 신문을 읽는 것이 읽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몰입을 통한 이해력과 논리력, 비판적 사고력을 구축한 사람은 디지털 텍스트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류 미디어의 흐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날로그의 장점만을 고집하며 디지털의 단점을 부각하는 자세로는 디지털 기술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도 없거니와, 디지털 세대의 텍스트 혐오증을 해결해 낼 수 없다.

미디어의 기술 자체가 이용자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맥루한의 주장은 인간이 테크놀로지에 구속될 수 있다는 우려이자 경고였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과 미디어, 이 양자 중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社說

불교 항일운동사 연구 절실하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3.1운동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이 자주와 자존을 위해 분연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필두로 시작된 독립운동에서 만해 스님, 용성 스님 등이 항일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100주년을 한 해 앞둔 2018년, 불교 항일인사 발굴과 조명이 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 중심에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불교사회연구소가 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올 연말 발간 계획 중인 5권 분량의 사료 모음 자료집이다. 이는 불교사회연구소가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개인소유품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펼쳐 수집한 것이다.

특히 80인의 항일인사 판결문 조사 사업은 가장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현재 알려진 불교계 항일인사 외에 법명과 속명이 일치하지 않아 항일인사로 분류되지 않았던 인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자료집이 발간되면 일제강점기 불교계 항일운동의 영향력이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떠나 온 국민이 함께 떨쳐 일어나 자주독립을 소리쳐 외쳤던 3.1 독립운동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사회연구소의 이 같은 사업은 반가운 일이다.

암울했던 시절,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불교 항일인사는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을 것이다. 선현들의 유업을 잘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후학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1년도 안 남은 3.1운동 100주년의 준비 과정동안 불교 항일운동사가 제대로 연구되길 바란다.

군종병을 청년불자로 만들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큰일을 해냈다. 1월 25일 군종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군법당 지킴이로 알려져 있는 군종병은 군승법사와 함께 군장병들의 신행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재였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은 저조했다.

높은 신심으로 군생활동안 법회와 각종 불교의식을 집전하기 까지 하지만 전역 후 이들을 불교계로 이끄는 손길은 부족했다. 많은 군승법사들이 전역 군종병들에게 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할 것을 권유하지만 정작 사찰에 가면 또래 청년들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번 불교계 청년단체들과의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군포교 과제 중 하나인 불자장병의 전역 후 신행활동이 한층 진일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방부 단일 선발로 변경되는 군종병 수급 또한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불교 군종병은 불교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수계 경력과 불교기초교리 및 상식이 갖춰져 있다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그렇기에 다양한 불교동아리 회원들이 지원한다면 신행 경력을 군포교 일선에서 활용하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

한국불교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성년으로 이어지는 연령별 불교 신행의 고리를 구축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청년 신행단체와 군종병 네트워크는 이 고리를 만드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 불교계는 어린이 단체와 청소년 단체, 청소년 단체와 대학생 단체, 대학생 단체와 성년 단체간 신행 정보 공유와 안내 등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역주해야 한다.

특별기고
은사 현성 선사를 추모하며

"모든 것이 스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가 스님 (사)자비명상 이사장



1월 20일 입적한 현성 스님(사진 왼쪽)과 상좌 마가 스님(사진 오른쪽)이 함께 한 사진.

하루도 쉬지 않으시던 원력 이어가겠습니다.

청천벽력이 어떤 것인지를 사무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은사 경하현성 대선사께서 그렇게 원적에 드실 줄은 그야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년벽두, 1월 20일 혹한의 새벽에 들려 온 은사 스님의 열반 소식은 차라리 꿈이길 바랐지만, 청천벽력의 믿지 못할 현실이었습니다.

창졸지간에 닥친 일, 경황없이 5일장으로 영결식과 다비를 마치고 나니 새로운 슬픔과 회한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합니다. 손수 건립하여 자비행을 펼치시던 도선사포교당 현성정사가 텅 빈 듯 허허롭고, 억척같은 원력으로 도량을 단장하고 확장하신 도선사가 꿈속의 집인 듯 아득하기만 합니다.

출가 사문이 중생을 위한 원력에 매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은사 스님만큼 많은 일을 일생동안 지속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은사 스님은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삼베처럼 짜인 일과를 어김없이 지키셨습니다. 혜명양로원, 안양교도소, 민주평통 서대문협의회 사무실, 동국대학교, LA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청담학원, 각급 부대의 군 법당과 논산훈련소 법당, 청소년교화연합회 등등 손이 미치는 곳은 언제나 손길을 드리우셨고, 눈길이 닿는 곳은 한 틈이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훈장과 상장, 표창장, 감사장과 공로패 등을 무수히 받으셨고, 크고 작은 직책 또한 수없이 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상과 직책을 자랑으로 삼기보다는 진심어린 노력과 봉사로 수상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셨고, 주어진 직책의 이름값을 다 하셨으니 단 한 숟가락의 '공밥'도 드시지 않으셨음을 상좌로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우람한 체구와 과묵한 표정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고 자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쉽게 돌아서지도 못하는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사 스님의 풍모요 가풍이었거니와, 무슨 일이든 원력을 세우면 끝까지 매진하시는 기질 또한 함부로 흉내 내지 못할 출격장부의 표상이었습니다.

아, 이제 텅 빈 세상을 천둥벌거숭이로 서고 보니 은사 스님의 모든 것이 가르침이었음을 사무쳐 깨닫습니다. 흰 눈썹 아래 형형하시던 그 안광이 대자대비의 광명이었음을, 우뢰와 같은 질책의 목소리가 수미산도 무너뜨릴 사자후였음을 뼛속까지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은사 스님, 잠결에 건너가신 극락 세상에서 영겁토록 정토의 햇살을 쏘이시고 도솔천의 맑은 물소리 들으시며 무생법인 하소서. 적멸의 즐거움을 누리소서!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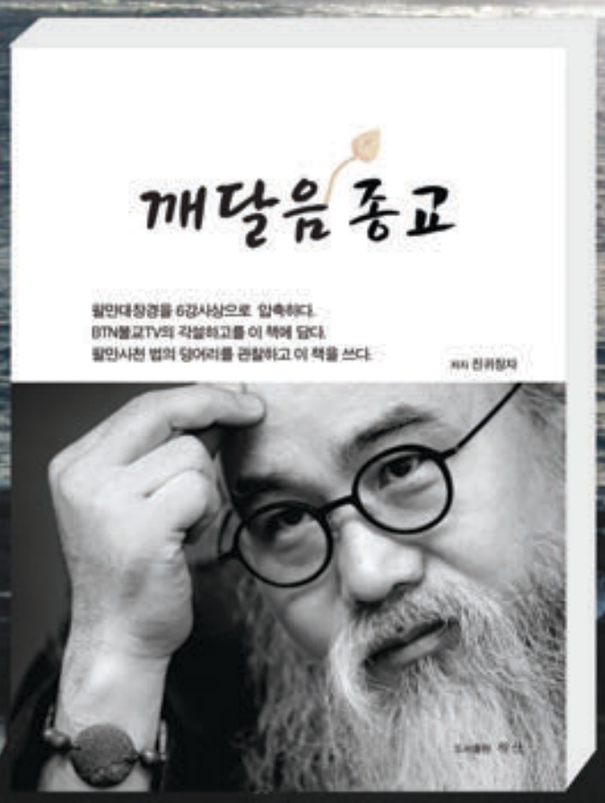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나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



제1강 사성제　제2강 법화사상
제3강 반야사상　제4강 유식사상
제5강 화쟁사상　제6강 화엄사상

※ 전국서점 및 인테넷서점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 종교는?
붓다의 깨달음 세계를
6강 사상(思想)으로 집약한 책으로
불도(佛道)를 닦는
모든 이들에게
네비게이션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청소년들의 숨어 있는 지능과
무한한 가능성인 창의성(깨달음)을 발견하는
일생일대의 귀연이 될 책입니다.
이 〈깨달음 종교〉의 책을 읽다가 어려운 문구 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까운 사찰을 찾아가 큰스님들께 문의하세요!
2018. 1. 2. 진귀장자 씀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 문 의 : 1899-9532

불보살과 함께한 반세기, 천상 佛母



산문 밖의 禪

이연욱 불화장(62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7호)

대 이은 불연 불화장으로
부친 매일 새벽 〈천수경〉 독경
16세, 김한옥 문하 단청 입문
하루 두세 시간 자며 불화 습화
덕문 문하 수학 단청장 이수

독창적 황금탱화 완성, 특허
1992년 불미전 우수상 수상
낙산사에 '황금33관음도' 보시
"전승은 전통 방식 계승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부처님이 다녀가신 지 2천500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긴 세월을 지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부처님을 볼 수 없는 시절이 오면서부터 우리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세계를 그리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일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시켜온 일을 어쩐단 말인가. 보지 못한 부처님의 세계가 그리워 그리는 것을. 무엇인가를 그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일의 시작이 아닐까. 40여 년 동안 불보살을 그리며 부처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가 있다. 지금까지 후불탱, 천정화, 벽화, 별화 등 5천여 폭의 불화를 3백여 사찰에 남긴 이연욱 불화장이다.

부친의 돈독한 불심 이어받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난 이 불화장은 어린 시절부터 부처님 세상에서 자랐다. 깊은 새벽, 어린 이연욱은 잠결에 들려오는 독경 소리에 잠을 깨곤 했다. 부친의 〈천수경〉 독경 소리였다. 이 불화장의 부친은 새벽 3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 관세음보살님 전에 올리고 〈천수경〉을 염송했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 불화장의 모친 역시 불심이 깊었으며, 부친의 불심은 더욱 각별했다. 이 불화장은 부친의 불연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잘 모른다고 했다. 짐작하건대 그저 부처님이 좋으셨던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이유를 댈 것이 없다고 했다.

"제가 살던 마을에 80가구가 살았는데, 아버님은 마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제일 먼저 길어 올린 물을 관세음보살님께 올리고 독경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콩 심은 곳엔 콩이 난다고 했던가. 훗날 불화장이 된 이연욱 역시 불심이 깊다. 불화장이 된 것도 그렇고, 평소 생각과 살아가는 모습이 부친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 관세음보살을 좋아하는 것 하나만 봐도 그 모습은 그 모습에서 온 것이 틀림없다. 이 불화장이 제일 좋아하는 불화의 대상은 관세음보살이다. 두 사람 모두 먼 보살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아버님의 공덕으로 불화장이 된 것이 아닐까 늘 생각해요. 불화를 시작하고 나서 어쩌다 불사 도량에서 독경 소리를 들을 때면 아버님이 염불하시던 모습이 많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아버님도 관세음보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세음보살이 된 아버지와 관세음보살 그리는 불화장 아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인연'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과가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입문…단청과 만나다

16살 때였다. 이 불화장은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단청이었다. 목화시배지인 경남 산청엔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의 비각이 있다. 비각이 오래 되어 단청이 다시 필요했다. 김한옥(단청 전문위원) 선생이 단청을 하기 위해 산청을 찾았다. 비각의 단청작업이 시작됐고, 어린 이연욱은 우연히 비각에 단청을 하고 있는 김한옥 선생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의 붓 끝에서 그려지는 오방색의 단청을 보게 된다. 평소 절에서 단청과 불화를 보기는 했지만 눈앞에서 그려지는 단청은 또 새로웠다. 그림에 관심이 있었던 어린 이연욱은 그림에 대한 열망이 솟기 시작했다. 그 그림이 불화였던 것이다. 절에서 보았던 단청과 불화들이 떠올랐다. 어린 나이였지만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소년 이연욱은 부처님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 그는 생전 처음 보는 김한옥 선생을 졸랐다. 당돌한 생각이었다. 그를 따라가면 그림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훗날을 약속하고 서울로 올라간 김한옥 선생은 연락이 없었다. 김 선생의 연락을 기다리던 이연욱은 김한옥 선생에게 편지를 쓴다. 답장이 올 때가 되어서도 답장이 없자 이연욱은 재차 편지를 보냈다. 수차례 편지를 보낸 끝에 이연욱은 김한옥 선생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 이연욱이 처음 부름을 받은 현장은 진주 향교 단청 현장이었다. 하지만 이 불화장은 실망한다.

"저는 그림(불화)을 배우고 싶었는데, 단청만 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청이 아니라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단청부터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는 단청과 불화가 하나의 일이었다. 단청장이 불화까지 했던 것이다. 불화를 하기 위해선 단청부터 해야 했던 것이다. 2006년부터 단청과 불화는 분리됐다.

이 불화장은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불화를 배우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두 번째 현장인 양양 낙산사 홍련암 단청 작업과 속초 설악산 신흥사 명부전 단청 작업 등에 참여하며 단청을 배워나갔다.

두 번째 입문…불화

이 불화장이 단청 일을 시작한 지 3년 째 되던 1974년이었다. 마침내 그는 불화를 배우기 시작한다. 인연은 서울 조계사였다. 단청은 김한옥 선생이 맡았고, 벽화를 그리기로 한 조정우(대구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선생을 만난 것이 계기였다. 그때부터 조정우 선생에게는 벽화 골채를 시작으로 습화(習畵)를 배우게 된다.

"낮에는 단청 일을 하고 일이 끝난 저녁엔 숙소 구석에서 습화를 했죠. 어느 날은 산신각 맨바닥에서 촛불을 켜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스님이 좌복을 가져다주신 적도 있었죠."

원하던 붓을 들었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다. 낮에는 단청작업을 하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초(밑그림)를 습화했다. 넘어야 할 산이 수 없이 많았다.

B2면에 계속

이연욱 불화장은… 1956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다. 16세 때 문익점 비각 단청 작업 차 내려온 김한옥 선생을 만나면서 불화에 입문했다. 김한옥 문하와 조정우 문하를 거치고 덕문스님 문하에서 수학하며 1989년 화공 제1088호로 등록됐고, 199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을 이수했다. 1996년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불교미술과정을 수료했으며, 2015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7호 불화장으로 지정됐다. 지금까지 없었던 황금탱화 기법을 완성했으며, 2005년 특허출원했다. 네 번의 개인전과 60여 회 회원전에 참여했다. 1992년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우수상, 2008년 문화재청장상 등 다수 수상했다. 대표작으로 '안성 칠장사 오불회괘불탱화' 모사도, 낙산사 소장 '황금33관세음보살도' 등이 있으며, 현재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이사, 경기남부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불전(대웅전) 폐지와 법당의 등장

B5 문화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붓다랜드' 展

B6 학술 · 문화재
유배 儒林, 근대 제주불교 형성 '견인차'

“불모는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서원”

‘이연욱 불화장’

B1면에서 계속

시왕초, 사천왕초, 금강역사초, 부처님초, 용, 봉, 학 등 초만 해도 수 십 가지였으며, 불화에 들어가는 전통문양 모두를 그릴 수 있어야 했다. 모두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했다.

이 불화장은 하루 두세 시간씩만 자면서 그림을 그렸다. 그는 십 수 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 지금도 이 불화장은 잠이 적은 편이다. 이 불화장의 그림은 날로 달라졌다. 그의 그림에서 소질이 보였고, 그는 그림을 그리는 기회가 점점 많아졌다.

불모(佛母)의 길

이 불화장이 불화에 입문한 지도 10년이 흘렀다. 그는 김한옥 선생 문하를 나와 조정우 선생의 문하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불화를 배우고 불모로서의 길을 시작한다.

“어느 날, 불화를 그린다는 것이 다른 그림을 그리는 일과는 다른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붓으로만 그림을 그려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붓으로만 그린 그림은 ‘불화’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보살을 그리는 일은 성화를 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는 사람 자체가 신성함을 지녀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기도와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 불화장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그는 지금도 매일 관음기도와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일이죠. 그래야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때도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잠에서 깨면서도 원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꿈에서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관세음보살이 꿈속에 나타나 그림을 보여줬다. 잠에서 깬 뒤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이 보여준 그림을 기억하며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렇게 이 불화장은 불화에 입문한 지 10여 년 동안 100여 사찰의 불화를 그리며, 불모로서의 길을 걸었다.

1987년, 이 불화장은 더욱 공부를 넓히기 위해 덕문(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스님 문하에 입문한다. 그는 1989년 문화재청에 화공 1088호로 등록됐으며, 199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을 이수했다. 덕문 스님은 제자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고 적멸에 들었다. 그는 공부의 끈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 1996년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불교예술과정을 수료했다.

전승의 길…황금탱화

어느덧 이 불화장은 불모로서 전승을 길을 걷고 있었다.

“스승인 덕문 스님께서는 만년에 불화에서 손을 떼고 산수화를 그리셨는데, 금박바탕에 그리셨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화도 그렇게 그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승께 여쭈었더니 가당치 않다는 듯이 말씀하셨죠.”

그는 그날로부터 ‘황금탱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미 오래 전부터 불화엔 금박바탕을 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부분적 사용이었지 전체가 금박바탕인 불화는 없었다. 이 불화장은 왜 선조들이 불화에 부분적이지만 금을 썼는지 생각했다. 이 불화장은 전통기법인 생채색 기법과 고분채색 기법을 연구하고, 부분적으로 적용된 예전의 탱화를 바탕으로 연구를 거듭했다. 그리고 15년 만에 바탕 전체를 금박바탕으로 하는 ‘황금탱화’를 완성했다. 지금까지 없었던 독창적인 ‘불화’다.

검은 바탕에 금선을 넣은 먹탱화, 붉은 바탕에 금선을 넣은 홍탱화 등 전통의 탱화와는 다른, 한 걸음 더 나아간 불화였다. 이 불화장의 황금탱화는 바탕에 옻칠을 하고 순금을 입힌 후 채색을 했다. 금박을 입혔기 때문에 밑그림 없이 채색을 해야 한다. 초를 옆에 놓고 눈으로만 금박 위에 밑그림을 그리면서 채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붓을 잡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법이다. 황금탱화는 빛을 받으면 금이 빛나고 빛이 줄어들면 채색이 빛난다. 황금탱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선조들도 그런 이유로 금을 썼던 것이다. 이 불화장은 자신이 완성한 황금탱화 기법으로 그린 ‘삼세여래후불탱’으로 1992년 제14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그리고 2005년 황금탱화는 특허 출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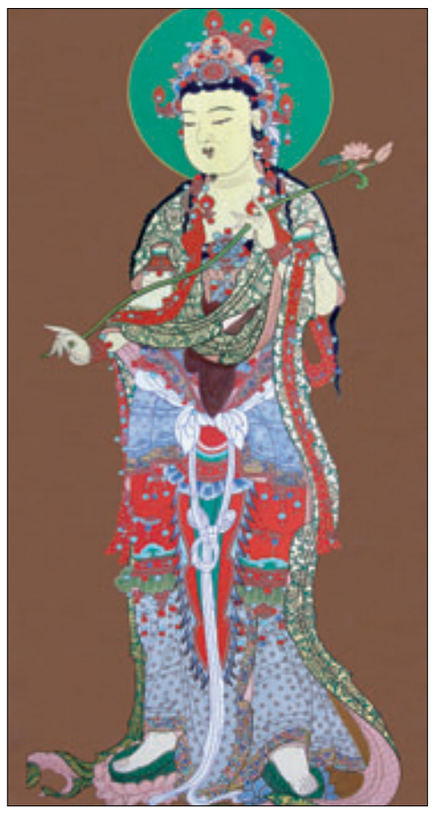
황금탱화 기법으로 제작해 낙산사에 기증한 ‘황금33관음도’ 중 ‘수월관음도’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시아문도’



한마음선원 부산 지원의 중앙 천정 ‘쌍용도’



칠장사 삼불회괘불탱화 중 문수보살 모사도

300여 사찰에 5천 폭 불화 그려

108배, 기도로 하루 시작

“불화는 부처님 따르겠다는 서원, 깨끗한 心身으로 그려야 ‘불화’”

“한마음선원 불사 기억에 남아”

“붓 잡으면 석달이 사흘처럼 흘러”

불보살들과 함께 삼매 들어

2015년 경기 무형문화재 지정

“앞으로 아난존자 그리고 싶어”

“전승이라는 것은 전통의 기법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유지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그 이전의 전통에서 한 걸음 씩 나아간 것들이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전승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화장은 봉녕사 현왕탱화(경기 유형문화재 제152호) 원형 모사, 안성 칠장사 삼불회괘불탱화(보물 1256호) 중 문수와 보현보살 생채색 기법 원형모사 등을 통해 전통불화의 맥을 이은 지 오래다. 손수 만든 천연염료를 주로 사용해온 그는 어느새 전통을 넘어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있었다.

또한 그는 미국 LA카운티박물관 소장 지장시왕탱화(1841년 대구 동화사 염불암 봉안) 모사,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 직부사자탱화 모사 등을 통해 전승 작가들의 모임인 ‘나우회(회장 한봉석)’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곁을 떠난 문화재 찾기와 재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불심이 그리는 그림

2005년, 양양 낙산사가 화재로 소실됐었다. 도량은 석탑만을 겨우 남겨둔 채 모두 화마에 스러졌다. 안타까운 소식에 이 불화장도 마음이 너무 아팠다. 불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불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은 온통 낙산사에 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꿈을 꾼다. 수많은 관세음보살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이었다. 잠을 깬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원력을 세운다. ‘황금33관세음보살도’였다. 그는 그 날로 서른 세분의 관세음보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장장 1년여에 걸쳐 황금탱화 기법으로 ‘황금33관세음보살도’를 완성한다. 그리고 그는 불사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그림을 낙산에 기증한다. 하지만 그림을 받은 낙산사는 불사를 위해 그림을 팔거나 하지 않았다. 흔히 볼 수 없는 그림이었기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림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의상기념관에서 일반에게 전시됐다.

“부처님 세계를 그린다는 것은 지구상의 그 어떤 일보다 복 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획 한 획 그려지는 불보살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붓질을 하다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보통 후불탱 하나 완성하는 데 석 달이 걸립니다. 불보살 틈에 앉아서 한 획 한 획 붓을 놓다보면 석 달이 3일처럼 지나갑니다.”

‘삼매’란 멀리 있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하고자 하는 일을 기꺼이 하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삼매였다. 이 불화장은 남의 손을 빌어 할 수 없는 불화가 좋다고 했다. 결국 불심으로 그려야 하는 일이기에 좋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해 네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불사의 생업 틈틈이 그린 불화들을 모아 전시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여시아문도’이다. 그림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난을 주인공으로 그린 그림이다.

“앞으로 아난의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싶어요. 아난을 그린 그림이 많지 않아서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난존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고마운 ‘보살’인 것이죠.”

관세음보살을 많이 그려온 그는 앞으로 아난존자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것이 새로운 원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마음선원과 월정사, 전등사 등 전국의 사찰 300여 곳에 5천여 폭의 불화를 그렸다. 그 중 이 불화장의 기억에 남는 것은 한마음선원 불사 때 그린 불화와 낙산사에 기증한 ‘황금33관음도’다.

“40여 년 탱화와 별화, 벽화 등의 불화 작업을 해오면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경기도 안양 한마음선원 법당의 천정화와 별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별화는 단청 위에 그려 넣는 그림을 말하는데, 6개월에 걸쳐 그린 것으로 200여 폭에 각기 다른 구성과 색채로 그려 넣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선원 법당에 들어서면 극락에 온 느낌이 든다고 말했는데, 작가로서 마음이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성규 선생의 작품인 법당 내부의 단청 또한 지금까지의 전통단청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법당 단청이 이처럼 아름답게 장엄된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산사에 기증한 ‘황금33관음도’는 저의 황금탱화 기법으로 완성되었다는 점과 불자로서의 염원을 담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습니다.”

이 불화장은 한마음선원의 본원 외에도 부산과 울산, 제주 지원의 불사에도 동참해 300폭 이상의 불화를 그렸다.

불보살을 그리는 일은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서원이라고 말하는 그는 “황금탱화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림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곤란할 때가 있다”면서도 자신의 그림으로 불사가 회향될 때면 그저 기쁘다고 했다.

그는 2015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7호 불화장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그는 이미 ‘불모’였고 ‘불화장’이였다. “훗날의 불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불모가 되고 싶다”며 또 다시 석 달을 사흘처럼 살기 위해 늘 부푼 마음으로 새 날을 기다리는 이 연욱은 천상 불모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佛像 속에는 부처가 없다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③ 불전(대웅전) 폐지와 법당의 등장

선(禪)은 사상적으로 당대 조사선이 가장 우뚝했다. 당대선(唐代禪), 또는 조사선은 권위와 우상을 배격했다. 오로지 공(空)과 반야지혜의 관점에서 불상이나 형상 · 권위 등은 허상이라고 생각했다. 수행의 목적도 공(空)의 실현과 반야지혜의 체득, 그리고 본래 청정한 불성의 발현에 두었다.

당대 조사선은 철저하게 사상적,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결사(結社) 집단이었다. 종교적 · 신앙적인 집단이 아니고, 성불작조(成佛作祖, 부처와 조사가 됨)를 위한 수행 집단이었다.

육조혜능에서 발원하여 남악회양 · 마조도일 · 조주 · 남전 · 백장 · 황벽 · 위산, 그리고 임제할 · 덕산방 · 운문 간시궐 등 이른 바 조사선의 맹주들은 날카로운 취모리검과 같은 지혜의 소유자들이었다.

'취모리검(吹毛利劍)'이란 머리털 한 가닥을 칼 날 위에 올려놓고 '훅' 하고 불면 두 조각이 날 정도로 예리한 칼(劍)이다. 반야지혜를 상징하며, 선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선실(禪室)이나 좌선당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문구다.

당대 조사선의 선승들은 〈금강경〉 등 대승경전과 반야 공(空)사상에 입각하여 일체 신상(身相) 등 형상적인 존재들을 부정했다. 율종 · 정토종 등 여타 종파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불상을 허상이라고 파악하여 모시지 않았다. 동시에 불전(佛殿, 대웅전)도 폐지했다. 가람설계도에서 대웅전을 삭제해 버렸다[不立佛殿].

'대웅전 폐지' 이것은 일찍이 불교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목석으로 만든 부처는 반야지혜의 작용이 전혀 없으므로 모실 필요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다. 그 대신 방장(주지)이나 조실의 설법 공간인 법당(法堂)을 크게 건축했다[唯樹法堂]. 법당은 방장(혹은 조실)이 법신불을 대신하여 법을 설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양억(楊億)은 〈선문규식(禪門規式)〉에서 "불조로부터 친히 법을 전수받은 당대의 주지(住持)를 존숭하기 위함(不立佛殿, 唯樹法堂者, 表佛祖親受, 當代尊也)."이다. 그리고 〈송고승전〉의 저자 찬영은 〈백장회해전(百丈懷海傳)〉에서 "법은 언어와 형상을 초월했기 때문(不立佛殿, 唯樹法堂, 表法超言象也)"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살불살조(殺佛殺祖,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가불매조'(呵佛罵祖,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꾸짓다)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불상 등 유형적인 것과 권위에 대한 부정이었다. 권위를 걷어 버리고, 그리고 형상에 가려진 진실한 부처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다.



그림 · 강병호

달마-혜가 시대에 선불교의 소의경전은 여래장을 설한 〈능가경〉이었다. 그러나 오조홍인(594-674) 시대에 와서 공(空)과 반야지혜를 설한 〈금강경〉으로 교체되었다. 홍인은 복잡하고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능가경〉을 과감하게 2선으로 후퇴시키고 〈금강경〉을 새로운 선(禪)의 경전으로 채택했다.

더구나 금강경은 육조혜능(638-713)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應無所住 而生其心)"는 글귀에서 깨달음을 얻은 경전이다. 그것도 출가 이전에, 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속인 시절에 만났으니 금강경과 육조혜능의 만남은 세칭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금강경〉은 공(空)과 반야지혜의 관점에서 모든 유형적인 존재들을 부정했다. 부처도 부정했고 불상도 부정했다. 금강경 제5장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은 '이치대로 정확하게 여래의 진상(眞相)을 보아야 한다'는 장이다. 거기서 대승의 여래(부처)는 지혜가 제일인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나의 제자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묻겠는데, 훌륭하고 거룩한 신상(身相, 신체적인 모습, 형상)에서 여래의 참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체적인 모습[身相]이나 형상적인 모습에서는 여래의 참모습(眞相, 法身)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신상(형상)은 곧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말과 같이) 무릇 형상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허망한 것이다.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형상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가 다 허상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곧 여래를 보게(친견)하게 될 것이다.(〈금강경〉 제5, 「如理實見分」.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身相, 見如來不. 不也. 世尊. 不可以身相, 得見如來. 何以故. 如來所說身相, 卽非身相. 佛告須菩提.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則見如來.)"

당대 조사선 철저한 수행집단
형식적 존재 부정-불상 폐지 등
〈임제록〉 선어록의 정상

붕어빵 속에는 붕어가 없다. 그런데 왜 '붕어빵'이라고 하는가? 단순히 빵 모양이 붕어를 닮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아무리 훌륭하게 조성된(32상과 80종호를 갖춘) 불상이라고 해도 그 속에는 부처의 참모습은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금강경〉 제20장은 「이색이상분(離色離相分)」이다. '색상(色相),' 곧 '겉모습'에서 벗어나라는 말이다. 속담에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처럼, 표면적인 겉모습만 가지고 진불(眞佛)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거기에서 여래는 더욱더 강한 어조로 신상(형상)을 부정하고 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부처'라는 것을, 32상 80종호를 모두 갖춘 색신(具足色身, 잘 조성된 불상, 형상)에서 불(佛)의 참모습[眞相]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비록 32상과 80종호를 모두 갖춘 완벽한 색신(불상)이라고 해도, 거기서는 여래의 참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완벽한 색신이란 곧 완벽한 색신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이름일 뿐입니다(〈금강경〉, 「離色離相分」. "須菩提. 於意云何. 佛可以具足色身見不. 不也. 世尊. 如來, 不應以具足色身見. 何以故. 如來說具足色身, 卽非具足色身. 是名具足色身.)"

모든 명칭은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절 이름이 '성불사'이고 '불국사'이고 '견성암'이고 '극락암' 일뿐이다. '성불사'라고 해서 그곳에 있는 이들이 모두 성불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좇아가지 말고 거창한 명칭 이면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다. '화장 빨 미인'에 속지 말고 '민낯 미인'을 보라는 것이다.

중국 조사선의 선승들이 이와 같이 '불상'을 허상으로 파악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100% 〈금강경〉 등 대승경전에 의거한 판단이었다. 〈금강경〉에 의거해 봤을 때, 목석으로 조성한 불상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속에는 부처의 참 모습이 없었다. 반야 공사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깨달음과는 무관한 부질없는 일이었다. (앞의 금강경 구절 중 "곧 여래를 보게(친견) 될 것이다"는 말은 형상적인 여래가 아닌 법신의 여래(법신불)를 친견한다는 말이다. 곧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조사선의 선승들은 치열한 오랜 사상적인 투쟁 끝에 권위와 이름, 그리고 허상 속에 가려진 부처의 실체를 찾고 발현하는 일에 팔을 걷어 부치고 뛰어 들었다. 그리하여 반권위, 허상 타파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상적 투쟁에 나선 첫 번째 주자(走者)가 '할(喝)'로 유명한 임제의현(?-867)이었다. 그는 독창적인 언어로 법상에 올라가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도반 여러분! 그대들이 여법한 견해를 갖추고자 생각한다면, 정안(正眼)이 없는 자들의 말을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내외(內外)를 불문하고 만나는 것은 모두 죽여야 한다(否定).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권속을 만나면 권속을 죽여라. 그래야만 비로소 해탈하여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투탈자재한 사람(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道流. 欲得如法見解, 但莫受人惑. 向裏向外, 逢着便殺. 逢佛殺佛, 逢祖殺祖. 逢羅漢殺羅漢, 逢父母殺父母, 逢親眷殺親眷, 始得解脫, 不與物拘, 透脫自在. 〈臨濟錄〉)"

부처도 살(殺)이고, 조사도 살(殺)이고, 아라한도 살, 부모도 살이다. 대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권위와 관념의 대상은 모두가 '살(殺)'의 대상이었다. 놀라운 확신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살(殺)'의 대상은 명칭 · 형상 등 유형적인 것들과, '언어문자' '명상(名相, 명칭과 모양)'이었다.

박제화 된, 박제 속에 갇힌 '부처와 조사'의 상(相)이었고, 경전과 조사어록에 쓰여 있는 언어문자였다. 거기에 매달려서는 도저히 본질에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벗어났을 때 비로소 반야지혜, 아뇩다라 삼먁삼보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다. '언어문자에 속지 말라,' '남의 말에 속지 말라(莫受人惑)'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임제록〉은 시종일관 이와 같이 '참다운 견해,' '참다운 바른 견해[眞正見解]'를 갖출 것을 촉구하고 있는 어록이다. '정안(正眼)을 갖추어야만 언어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인, 해탈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임제록〉은 선어록의 정상(頂上)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임제록〉이 개판(開版, 출판)되거나 간행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거의 읽지 않았다.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지만,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임제록〉이 출판, 간행된 것은 70년대 서옹 연의(西翁 演義)의 〈임제록〉(1974년)이 처음이다. 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강독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몽산화상어록〉은 조선-근대를 통하여 가장 많이 간행된 선어록이다. 한국선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보경 스님 지음/권윤주 그림/불광 펴냄/1만 6천원

"고양이의 눈동자를 보면 꼭 선승의 눈 같다. 결코 먼저 말하지 않고 오히려 묻는 듯하다. 내가 뭔가 물어보려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너는 하고 되묻는 것이다. 그래서 고양이의 눈을 보고 있으면 내가 나를 보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자기관조 내지는 마음의 빛을 돌이키는 회광반조(廻光返照)의 법문이다."

2017년 겨울, 12년간 도시 사찰 주지 소임을 마치고 산중 사찰로 내려간 보경 스님. 그리고 깊은 산중에 거짓말처럼 나타난 한 고양이. 겨울 한철, 스님이 고양이를 바라보고 고양이가 스님을 바라본다. 삶은 혼자도 좋고 둘이어도 좋지만, 함께하는 만큼 다른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 그 내면의 소소한 기록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올바른 참선, 마음의 본 성품 여의지 않는 것



청화 스님의 불교핵심교리 설법

청화 스님 지음/상상출판 펴냄/1만 4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청화 큰스님이 직접 불교 핵심교리를 설명한 책 〈청화 스님의 불교핵심교리 설법〉이 발간됐다. 이번 책은 스님이 생전에 직접 법문한 것을 원음 그대로 옮긴 것으로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됐다. 제 1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와 제 2부 '사성제와 팔정도', 제3부 '십이인연법', 제 4부 '반야심경 설법', 제 5부 '일승삼보'로 구성돼 있으며 부록으로 청화 큰스님의 스승인 금타 대화상의 '반야심경 약해'를 함께 수록했다.

제 1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는 청화 큰스님이 2000년 8월 6일 곡성 성륜사 대웅전서 설법한 내용이다. 여기서 청화 스님은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견지해야 할 방향에 대해 강조한다. 이 한 편의 법문에 불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온전히 담겨 있다. "본래 참선이란 것은 우리 마음의 본 성품을 여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다운 참선이란 말입니다. 화두를 의심하건 또는 화두를 의심하지 않건 또는 염불을 하건 염불을 하지 않건 그런 것은 그런 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마음 자세가 불심 자리를 안 여의면 그때는 다 참선이란 말입니다."

스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가장 쉽고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공부법으로 염불 참선을 말한다.

"가장 쉽고도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른바 염불 공부란 말입니다. 우리의 관념이 잘못된 선입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불은 정도가 낮은 하근 중생이 하는 것이고 참선은 고급, 보다 차원이 높은 고도한 분들이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용수 보살이란 제 2의 석가가 하필이면 그와 같이 차원 높고 분별있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부처 아님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깊고 더 행복스러운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본 이름을 외운다, 내 생명의 본래 이름을 외우는 것이고 또는 우주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우주의, 또는 그 이름 자체가 모든 공덕을 모두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무생청정보주명호(無生淸淨寶珠名號)라.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근본성품을 여의지 않으면 염불을 해도 그것이 바로 참다운 염불 참선입니다."

사성제, 팔정도 등 불교핵심 교리 설명
2000년 8월 6일 성륜사서 설법한 내용
원음 그대로 옮겨… 쉽고 간결히 정리

청화 스님은 이어 가장 쉬운 공부법인 염불선을 통해 진정한 수행을 계속할 것을 불자들에게 당부한다. "금생에 닦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매라, 삼매 가운데도 제일 쉬운 삼매가 염불삼매입니다. 염불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삼매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몸이 아프다 합시다. 몸이 아프다가도 염불삼매에 척 들어서 우리 마음이, 마음이나 몸이나 훨씬 더 가벼워지고 또는 앞에 부처님의 한도 끝도 없는 광명을 도인이 채 못 되어도 분명히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런 광명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어디가 몸이 아프더라도 그냥 즉시에 나아 버립니다.

우리 중생은 부처님 법만 따르면 천하에 살기가 참 제일 쉬울 것인데 우리가 어째서 하필이면 부처님 법을 안 따르고 세속에서 조금 배운 것 가지고서 그것만 좋다고 따른단 말입니다."

청화 스님은 이어 사성제와 팔정도, 십이인연법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삼보는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보배가 삼보인데, 그 가운데서 법보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법보는 사제, 팔정도, 십이인연법, 육바라밀 법문을 위주로 해서 일체 경전의 법문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인들은 비록 어려운 것은 좀 모른다 하더라도, 물론 쉬운 것 가운데도 어려운 것이 들어 있지만, 우선 사제, 팔정도, 십이인연법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성제와 관련해서는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어라 해도 도제(道諦) 즉 말하면 도(道)입니다. 이것이 멸(滅)에 이르는 길 아닙니까. 본래 생사가 없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는 번뇌의 습기(習氣)가 있는지라 마땅히 우리는 도를 닦아야만 비로소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닦되 역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상을 두고 닦을 것이 아니라, 상을 두지 않고 무위법으로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을 두면 무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계행을 지킨다 하더라도 상을 두면 유위법이고 상을 두지 않으면 무위법입니다. 물론 우리는 저절로 상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만, 상이 없다는 확신을 자꾸만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청화 스님은 〈반야심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 경전은 무슨 경(經)이든 소중하지 않은 경이 없습니다만 〈반야심경〉은 가장 짧은 동시에 불교의 모든 철학을 거기에 함장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반야심경〉을 전부 다 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에는 불성만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그걸 못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외운다 하더라도 그냥 외우기만 해서는 별로 공덕이 없습니다. 우리 관념상 천지우주는 텅 비어 있는데 다만 불성만이 충만해 있구나라고 이와 같이 느끼면서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미타불이나 외셔야 합니다. 참말로 있는 실상은 방금 말마따나 텅 비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비어 있는 것인데 다만 허무하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실상 그것은 청정미묘한 부처님 광명이라는 말입니다. 참말로 우리가 그런 광명, 부처님의 불성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공부 법인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자기 스스로도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더 예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화두참선과 위빠사나를 하나로 꿰면?



이뭣꼬

법산 편저
운주사 펴냄
2만 8천원

불교에는 다양한 수행법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방불교에서는 화두참선 수행법이, 남방불교에서는 위빠사나 수행법이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그런데 간혹,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놓아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화두참선은 대승불교의 수행법으로, 위빠사나는 소승불교의 수행법으로 우열을 매기기도 한다. 정녕 그런가? 이 책은 출가 후 오랫동안 참선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을 겸행한 저자가, 자신의 수행경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이 두 길을 하나로 꿰어 보여주는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수행 안내서이다.

나는 누구인가?" 불교에서 자기의 참 모습을 아는 일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성찰이자 세상에 나온 내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큰 일이다. 그래서 일대사(一大事)라고 한다.

이 의문에 정면으로 맞닥뜨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과 노력이 수행이고, 이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해탈이다.

그리고 '이뭣꼬?'는 오랫동안 참선수행의 대표적 화두로 수행자들에게 참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선사들의 법문이나 경론을 안내 삼아 수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막막하기 그지없다. 화두참선은 구체적,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쓰여졌다. 저자는 자신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위빠사나와 화두참선이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 개념 등에서 간극이 있지만, 이 둘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알아차림'과 '이뭣꼬'를 융합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행 방법을 보여 주는데, 이를 통해 수행의 입문(기초)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하게 이끌어준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행의 지침이 되어온 여러 경전과 논서들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현대 뇌과학의 다양한 이론과 연구결과 등을 도입하여 자신이 제기하는 수행 방법의 올바름을 입증한다. 자신의 실제적 경험과 경론에서의 근거, 현대과학의 실증적 뒷받침,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참선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닌 실참(實參)이다. 그래서 알음알이를 극도로 경계한다. 달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결국 '불립문자 교외별전'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손가락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손가락이 정확하게 달을 가리키고 있어야 손가락을 따라서 달을 볼 수 있다.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많은 수행서들이 그저 달 주위만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수행의 초보자나 입문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이 점을 철저히 배격한다. 오로지 수행의 기초부터 깊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행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강을 건넌 뒤의, 일반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법문이 아니라 강을 건너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상세히 엮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각 설명마다 칼라로 된 다양한 그림과 사진, 도표 등을 붙여 놓았는데, 이는 '문자 속에 그림이, 그림 속에 문자가' 있는 도리로서, 읽는 이로 하여금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친절함이다. 크고 작은 그림(사진)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으니 내용과 함께 새겨보면 좋을 것이다. '읽으면서 보고, 보면서 읽는' 수행서, 이것이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이다. 이처럼 이 책은 현재 참선 수행에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자신의 수행길과 수행법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점검하는 수행의 참고서가, 일반 불자들에게는 기나긴 수행의 길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이끌어주는 수행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화두참선과 위빠사나는 다른 게 아니다!
'알아차림'과 '이뭣꼬'의 조화!

이뭣꼬



수행의 기초부터 깊은 단계까지 이끌어주는 수행 안내서!

오랜 실참 경험과 경론에서의 근거, 현대과학을 통한 실증 등, 수행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가르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수행 참고서! 수백 장의 사진과 도표를 통해 '읽으면서 보고, 보면서 읽는' 편한 책으로 편집!

법산 편저/신국판 양장/544쪽/값 28,000원

금강경 이해의 길잡이, 금강경 해설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금강경오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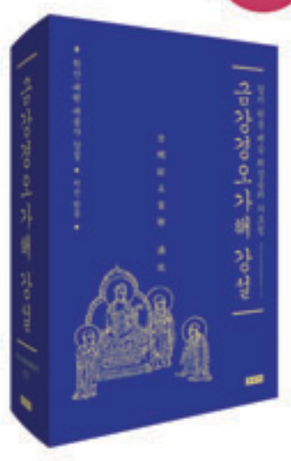
금강경오가해 강설

2쇄

학림사 오등선원의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

-경의 요처마다 선적, 교학적 안목과 현대적 시선으로 해설을 덧붙여 바른 안목으로 이끌어준다.

『금강경오가해』는 규봉종밀, 육조혜능, 부대사, 야부도천, 예장종경 등 다섯 명안 조사의 금강경 주석을 모아 엮은 것이다. 여기에 해동의 함허득통 스님이 설의를 붙이고, 학산 대원 스님이 강설을 덧붙였다.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신국판 양장/912쪽/값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시공간 초월한 佛畵 어떤 모습?



이태승 作, '관세음보살 삼십이 응신도'



서수영 作, '미륵하생경변상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붓다랜드 – 佛陀Land' 展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월 4일까지

전통 불화부터 회화적 측면에서 재해석한 현대적 불화까지 한 자리에 모은 전시가 마련됐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이 2월 4일(일)까지 개최하는 '붓다랜드 - 佛陀Land' 展이다.

이화자, 이태승, 정종미, 손광석, 김석곤, 서수영, 권지은 7인의 작가가 참여해 32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찬란한 불교미술의 세계와 그 아름다움을 조명하고, 전통과 현대의 소통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전시 제목인 '붓다랜드'는 부처님이 머무는 곳, 부처님의 세상인 불국토를 새롭게 명명한 것으로, 전통을 계승한 불화와 현대적 미감으로 재해석된 불화를 아우르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불화라는 공통된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작가 각자의 방식으로 불화가 지녀온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새로운 형태의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전통 불화의 표현방식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새로운 양식의 변화를 가미한 작품과 순수 회화적 측면에서 불화를 재해석한 작품들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불화 특유의 조형성과 현대성을 조명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불화의 예술적 가치는 그 인식의 폭이 넓지 못했다. 종교화라는 고정된 생각이 순수한 예술로의 확장을 제한한 면이 없지 않다. 이번 전시는 7인의 작가들을 통해 불화의 전통성과 예술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증명하려 했다.

불화의 가치 새롭게 조명
전통 · 미래 가치 함께 모색
7인의 대표작 32점 전시

△손광석의 〈지장보살도〉는 기운이 넘치면서도 고요한 화면을 자아낸다. 손광석의 모든 작품은 화려한 색채와 화려한 구성에도 결코 번잡스럽지 않다.

△권지은은 모사에 충실하면서도 한 가지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작가 자신만의 해석을 통한 창의력이 돋보인다. 특히 〈삼신불〉에서 보여주는 비율감이나 세련된 선 처리는 현대적 미감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태승의 역작 〈관경변상도〉는 석가모니부처님이 많은 성중들에게 극락세계를 보여주고 16가지 수행법을 알려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고려불화의 전통적인 구도와 기법을 되살렸으며, 16관 사이사이에 사군자 등의 화훼를 금니로 그려 넣는 등 작가만의 독특한 양식을 보여준다.

△서수영의 작품은 전통 불화가 준수하는 정형화된 구도와 치밀한 형태의 묘사에 '우주'라는 세계관을 더하여 신비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김석곤은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기능보유자였던 덕문 스님의 화풍을 전수받아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다양한 시도와 고민, 노력을 함께해 나간다.

△이화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채색화가로 전통적인 불화가 아닌 일반회화로서 절의 풍경이나, 벽화, 탱화 등 한국적 미감의 소재를 즐겨 그렸다. 그중 이번 전시에 출품한 〈염 I 〉은 온전한 부처의 모습이 아닌 박락되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세월감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정종미의 오색보살도 시리즈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전 세대의 여성들에 대한 헌사인 동시에 현 세대의 모든 여성들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며 새로운 위치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문의 / 031-637-0033

"이 땅의 예술가들에게…"

KoN(콘), 'The Farthest Way' 발매
예술가들에게 헌정하는 신곡



지난 연말 BBS 송년음악회에서 처음 불자들에게 선보인 한국 최초의 집시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가수, 뮤지컬배우, 모델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멀티 아티스트 KoN(콘)이 1월 23일 새로운 싱글 앨범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은 가장 먼 길이라는 뜻의 'The Farthest Way(더 파디스트 웨이)'이다. 이 곡은 자신과 싸워나가며 끝이 보이지 않는 예술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에게 바치는 곡이다.

KoN(콘)은 "언젠가부터 주위의 많은 예술가들이 좌절, 포기하거나 심지어 안타깝게 고인이 되기도 하는 등, 하나 둘 씩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술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예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들이 대단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곡을 작곡했다"고 밝혔다.

'The Farthest Way(더 파디스트 웨이)'는 6분 27초로 KoN(콘)의 곡 중에서 가장 긴 곡이다. KoN(콘)의 작곡과 신예 작곡가 김진환의 편곡으로 애절하고 장엄한 사운드가 돋보이며, 그간 KoN(콘)의 앨범 작업에 함께 해 온 아코디언 연주자 Alexander Sheykin(알렉산더 쉐이킨), 그래미상 수상에 빛나는 마스터링 엔지니어 Chris Gehringer(크리스 게링거)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동참했다. 뮤직비디오 역시 지난 KoN(콘)의 앨범 'Zealotry(젤러트리)' 뮤직비디오에서 탁월한 연출로 주목받았던 성승한 감독, 최영민 촬영감독 콤비가 다시 참여해, 제주도의 풍경이 돋보이는 수준 높은 영상미를 보여준다.

KoN(콘)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어릴 때부터 신심 깊은 불자이자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로, 새로운 집시라는 '누에보 집시(Nuevo Gypsy)' 장르를 만들었다. '누에보 집시(Nuevo Gypsy)'는 집시, 탱고, 재즈 등 여러 음악 장르를 섭렵해 새롭게 창조한 분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집시바이올린 앨범으로 유명하다. 2010년 첫 앨범인 'Nuevo Gypsy(누에보 집시)'를 발표한 후 2013년 'Nuevo Gypsy(누에보 집시)' 2집을 발표했다.

한편, KoN(콘)은 이번 앨범 발매 후 미국 일정을 소화한 뒤, 올 상반기에 있을 그의 단독 콘서트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BTN불교라디오, '두 손 모음' 캠페인 화제

법화정사와 공동기획… 각계 목소리 기부로 희망 전해

BTN불교라디오(대표이사 구본일)와 법화정사(주지 도림)의 공동기획으로 방송되고 있는 BTN불교라디오 울림채널의 '두 손 모음'이 화제다.

'두 손 모음'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물론, 스님의 간결하고도 감동적인 법문 및 유명 인사들의 응원 메시지까지 세상사는 이야기들을 청취자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BTN불교라디오 프로그램 참여하는 연예인들과 사회 각계 각층의 명사들이 캠페인 취지에 적극 공감해 자신들의 사연을 제공하거나 목소리 기부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라이어밴드의 이동은 씨는 캠페인송 작곡에 재능기부를 하는 등 참여자들은 물론 청취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두 손 모음'을 제작하는 김아련 PD는 "'친구 같은 라디오'라는 컨셉에 맞게 BTN라디오 울림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좋은 친구를 대하듯 '희망'을 좀 더 친숙하게 여기면 좋겠다"며 제작취지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 공동기획으로 참여한 법화정사 주지 도림 스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자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활기차고 행복한 마음을 얻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법화정사와 BTN불교라디오가 공동 기획한 캠페인 '두 손 모음'은 BTN불교라디오 울림 앱을 통해 청취 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빙의치유(귀신들림) 상담환영!!

몸안에 들어온 영가 (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 (음독, 목매어, 투신)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상담 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 – 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유배 儒林, 근대 제주불교 형성 '견인차'

한금순 박사, 〈대각사상〉 28집 기고논문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민 중 23% 이상이 불자로, 한국서 가장 불심이 높은 곳 중 하나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선 숙종 시절 이형상 목사가 절오백 당오백이었던 제주도의 사찰들과 불상을 모두 파괴해 200여 년간을 무불(無佛)시대로 살아간 아픈 역사가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불교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제주불교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한금순 박사(제주대 사학과 강사)는 최근 발간된 〈대각사상〉 제28집 기고논문 '유배인들이 제주 불교에 끼친 영향'에서 제주도에 유배왔던 유학자들의 영향과 이로 인한 제주 유림들의 불교 활동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한 박사가 꼽은 대표적 불교적 성향의 유배인은 조선 후기 유학자이자 금석문 학자인 추사 김정희였다. 김정희는 1840년부터 1848년까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그는 초의 스님과 각별한 교류를 이어갔고, 초의 선사는 그를 위해 6개월여 동안 제주 산방굴사에 머물기도 했다.

이 같은 김정희의 불교적 성향은 제주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이어졌다. 시문이 뛰어난 제자였던 이한진의 경우 초의 스님과 그 제자들까지 교류하며 불교 활동을 했다.

또한 온건개화파였던 김윤식은 1898년부터 1901년까지 제주도 유배하며, 당시 유림들에게 불교적 영향을 줬다. 그는 유배인 7명, 제주도 거주 육지인 논객 5명, 제주인 11명으로 구성된 '귤원시회'를 만들었고, 시회에서 불교 활동을 진행했다. 당시 활동을 적어놓은 김윤식의 〈속음청사〉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연등을 달거나, 〈전등록〉과 같은 불교 관련 서적을 읽고, 승려들과도 교류하는 기록들이 담겨있다.

또한, '귤원 시회'에 참여했던 김종하, 홍종시, 최원순은 제주불교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대정군수였던 김종하는 제주불교협회 창립 당시 고문으로 참여했고, 워싱턴 평화회의에 제출된 독립청원진정서에 서명한 제주읍장 홍종시는 협회 시회장으로 제주불교포교당 건립에 건축비를 희사하기도 했다. 제주 지역서 변호사로 활동한 최원순 역시 제주불교포교당 건립에 힘을 보탰다.



제주 추사관에 있는 추사 김정희와 초의 선사의 교류 재현 장면. 김정희의 불교적 성향은 제주도 제자들과 유림에 그대로 이어졌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불교가 다시 형성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불교에 조예 깊었던 추사 김정희
제자 양성하며 제주 유림에 영향
3년 유배 김윤식, 귤원 시회 결성
경전 읽고 승려 교류 등 불교활동

제주서당 30곳 초파일 행사열어
김석윤, 승려이자 유학자로 활동

이에 대해 한 박사는 "시회의 불교 활동이 김윤식과의 교류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며 "추사 이후 이어져 온 불교적 성향이 김윤식을 만나면서 짧은 시기에 함께 불교 경전을 돌려 읽는 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학자였던 김석윤이 스승의 영향으로 출가했던 점도 유배 유림의 영향임을 제시했다. 김석윤은 광양서재에서 수학 당시 유교경전 뿐만 아니라 〈금강반야경〉을 스승 김병규에게서 배웠다. 이 영향으로 17세인 1894년 전북 위봉사에서 출가하게 된다. 유학과 불교를 함께 공부한 그는 출가 승려이면서도 훈장으로서 후학들을 가르쳤고, 제주 유림들과 함께 제주의병항쟁을 주도하기도 했다.

또한, 근대 제주불교의 태동이라 할 수 있는 관음사 창건을 돕기도 했다. 창건 이후에도 관음사 서무와 관음사 해월학원 교사를 역임했다.

한 박사는 제주 지역 서당에서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특별행사를 열던 사실들도 주목했다. 한 박사는 "실제 제주도 전역 32곳의 서당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달기, 씨름대회, 글짓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면서 "여기에는 학부모도 참여해 음식을 준비하는 등 일종의 마을 잔치로 치러졌음을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배 유림으로 시작돼 제자들로 이어진 다양한 불교 활동들이 제주불교가 조선시대 이후 쇠퇴한 상황에서도 근대에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된 밑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모집

오는 2월 23일까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한문아카데미에서 2018년도 1학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선발연수생에 대한 면접 및 필기전형이 2월 24일 실시된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은 불교 및 한문불전 공부에 관심이 있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정원은 30명이다.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의 정원은 10명이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면 지원 가능하고 필기고사 전형이 있다.

이번 모집은 2017년 9월 신설한 한문아카데미 심화과정 2기 수강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4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이다.

기본과정 수강생도 모집한다. 학기당 16주 강의가 진행되는 기본과정은 4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는 선발연수생과 한 과목씩 선택해 수강하는 일반연수생을 선발한다.

조계종 스님의 경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모두 선발연수생은 수강료가 면제된다. 또한 조계종 스님이 선발연수생 과정을 수료할 경우 승가고시에서 2년의 교육경력을 인정받는다.

지원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홈페이지(abc.dongguk.edu/academy)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자기소개서와 대학(원) 재학증명서(혹은 최종학력 증명서)를 이메일(hanmun@dongguk.edu)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한국 미술사, 불화 문양으로 풀다

고승희 동국대 초빙교수 〈한국의 불화 문양〉 발간

불화 문양에 초점 맞춰 연구 도상 특징 및 편년 등 살펴



한국의 불화에 그려져 있는 문양을 천착한 연구서가 출간됐다.

고승희 동국대 미술학부 초빙 교수가 최근 발간한 〈한국의 불화 문양 · 사진〉은 한국 불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양을 분석하고 도상의 특징을 파악한 보기 드문 불교 회화 연구서다.

고 교수는 연구서에서 한국의 불화가 문양의 보고(寶庫)이며, 문양이 불교미술 연구의 기초 자료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대학 입학해 불화를 그리면서 불화 문양에 관심을 갖게 된 고 교수는 이내 고려불화를 중심으로 문양 연구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서는 고 교수가 20여 년을 한국 고분벽화와 세계 각지의 소장 한국 불화를 조사하며 연구한 결과가 집대성됐다.

불화를 조성(造成)시기와 주존불상의 형태로 분류하고, 그림에 나타나는 무늬를 상징물과 그려진 위치, 등장 빈도에 따라 정리했다. 또한 불화 문양을 연구 자료로서 체계화하면서 불화 전체 도판과 직접 촬영한 부분그림, 도안으로 그려 낸 문양을 함께 제시했다.

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됐다. 1장 '불화 문양 개요'에는 불화 문양의 의미를 살펴보고, 문양을 △식물문 △동물문 △자연문 △기하학문 등으로 나눠 정의했다. 2장 '삼국~통일 신라시대의 불화 문양'은 연꽃 문양을 중심으로 당시 시대의 문양 전개 양상을 살폈다.

3장 '고려시대 불화 문양'에서는 고려불화의 의의와 문양의 종류 및 특징을 설명하며, 4장에서는 조선시대 불화 중 괘불화와 후불탱화를 연구한 결과를 담았다.

5장 '조선 후기 불화 문양의 양식 변천'은 광해군대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등장한 화승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1920년대 불화의 문양을 체계화 했다. 마지막 6장은 앞선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내용이다.

고 교수는 "석사 과정 때 고려시대 불화 문양을 연구한 것을 시작으로 박사 과정서 조선시대 불화 문양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불화 문양을 도안화하고 정리해 국내외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앞으로도 불교 회화 · 조각 · 공예 등에 나타난 분야별 불교미술 문양 연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월인석보'가 가진 국어학적 가치는?

동국대 ABC사업단, 25일 이현희 교수 특강 개최

현대적 주해 사업 일환으로

조선 세조가 간행한 〈월인석보〉가 가지는 국어학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특강이 열렸다. 〈오른쪽 사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단장 정승석)은 오는 1월 25일 오후 2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227강의실에서 '〈월인석보〉의 국어학적 가치'를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 강사로는 이현희 서울대 교수가 초청됐다.

최근 언해본 〈석보상절〉의 국어 · 불교 주해작업의 완간을 마무리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월인석보〉의 불교 · 국어 분야의 주해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특강 역시 〈월인석보〉 주해작업의 일환이다.

이날 특강에서 이현희 교수는 대비되는 다른 문헌들과 차이를 중심으로 〈월인석보〉에 담겨 있는 특징들을 다뤘다. 또한 텍스트 성격, 불교 대중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1459년(세조 5)에 간행된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1447)〉과 석가모니의 전기인 산문 〈석보상절(1447)〉을 합편한 것으로, 운문을 대문(大文, 본문)으로 하고, 산문을 그에 대한 주석문으로 짝지어 놓은 문헌이다.

이에 대해 ABC 사업단은 "그동안 〈월인석보〉에 대한 연구는 불교적 지식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문장을 온전히 풀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특강은 〈월인석보〉의 불교학 문헌의 내용 이해와 지식체계에 보다 확대된 시각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매장문화재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된다

문화재청 등 오는 12월까지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회장 조상기)는 매장문화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도 매장문화재조사 분야 전문교육'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기본교육 2개 과정과 전문교육 7개 과정 등을 개설 · 운영한다.

교육일정과 교육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42)524-9262

신성민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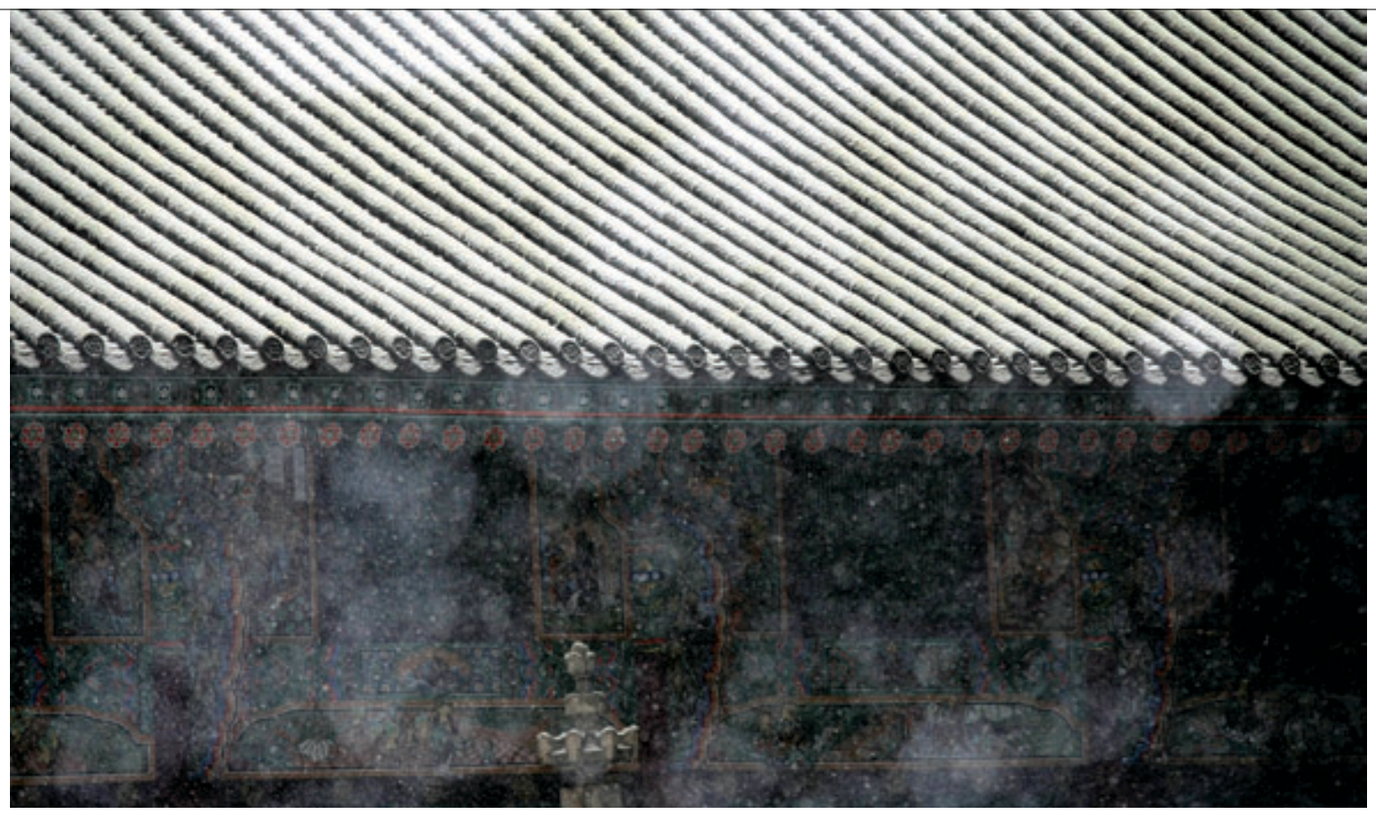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박재완의 PhotoEssay



오늘

우리 만나고 헤어지던
석등의 불로 저녁을 나던
아득한 천 년 사라지던

그렇게 기억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눈은 내린다

눈 내린 석등에 불빛 채우고
나도 밤새 석등이 되었던
기억 어딘가에 두고 온 그런 날이
이 두 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싶어
조용히 두 손 모아본다

서쪽서 범종소리 들려오고
새들도 무릎으로 나는 저녁
오늘이 또 천 년처럼 사라지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성낙윤의 불교매듭

③ 생쪽매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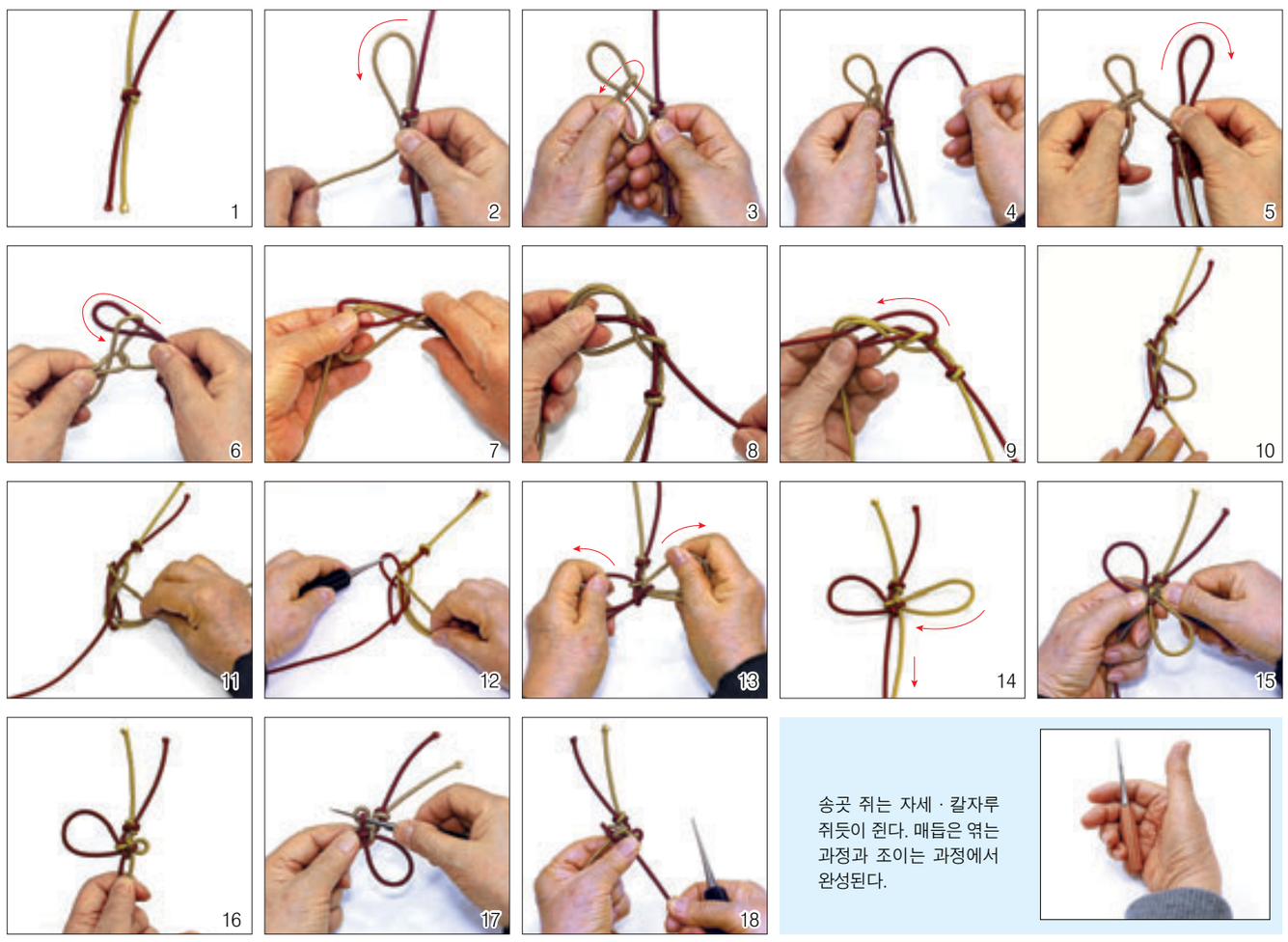
다양한 용도의 '생쪽매듭'



완성된 도래매듭

생쪽매듭은 생강쪽 같이 생겨서 생쪽매듭이라 하며, 대구나 남원지방에서는 정자(井子)매듭이라 불렀다. 환희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여인네들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매듭이다. 생쪽매듭은 전통매듭 중 가장 대표적이고 폭넓게 사용되는 매듭으로서 노리개 · 유소 · 주머니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었다.

생쪽매듭은 앞뒤가 똑같은 형태이며, 노리개를 맺을 경우 도래매듭 다음으로 흔하게 맺는 간단하고 귀여운 매듭이다. 그러나 숙련자들은 생쪽매듭을 여러 개 맺어 면을 형성하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원 등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작품에 응용하기도 한다. 또한 생쪽매듭 중 겹생쪽매듭은 기법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모양을 간추리는데 매우 까다로운 매듭으로, 풀어지기 쉬워 2개의 고리 사이를 엇걸리게 통과시켜 맺는 것이 아름답다.



송곳 쥐는 자세 · 칼자루 쥐듯이 쥔다. 매듭은 엮는 과정과 조이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생쪽매듭 만들기

매듭을 시작할때는 언제나 실 2 가닥을 반으로 접고 (만약 실길이가 1m라면 50cm가 됨) 6cm 띠고 도래매듭부터 시작한다.

1. 6cm띠고 도래매듭을 한다음
2. 2가닥 실을 오른손으로 쥐고 왼쪽실을 10cm 띠고 접어서 타원형 원을 만들어 오른손으로 쥐고 왼손으로 쥐고 있는 실 한끝으로
3. 타원형 허리를 휘감아 타원형을 둘로 (위,아래) 만들고 왼손으로 옮겨 쥔 다음
4~5. 오른쪽 실도 왼쪽에서 한 것처럼 타원형 원을 만들어
6~7. 왼쪽 원안으로 사진처럼 집어넣고 왼손으로 쥐고 있는 허리휘감은 실 2가닥 위로 포개면서
8. 밑의 실을 위로 빼올린다.
9. 빼놓은 2가닥의 실(반쪽 원) 밖에서 안으로 오른쪽 실을 넣어 뺀다음
10. 매듭 전체를 왼쪽으로 돌리면 된다.
11. 보이는 오른쪽 귀와 그 실 한끝을 귀쪽은 오른손 검지와 엄지로 잡고 실가닥은 나머지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꼭 잡고
12. 왼쪽의 잘 보이지 않는 실가닥은 사진에서 처럼 송곳 끝으로 잡아 빼서
13. 가운데 우물정자(井)를 만들면서
* 매듭의 형태는 앞뒤가 똑같고 가운데는 항상 우물정자로 (井)되어있다.
14. 양손으로 양쪽에 2개의 원을 만든다.
15. 송곳을 오른손으로 쥐고 사진처럼 우물정자 위쪽 사이16. 원의 크기를 줄인다. (송곳끝으로 실가닥을 잡아 위로 뺀다) 왼손은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꽉 쥐고 있어야 한다.
17. 반대쪽(왼쪽)은 뒤집어서 오른쪽으로 오게 한다음 먼저와 같이 송곳끝을 매듭 사이로 넣고 길어진 실을 잡아 빼서 크기를 줄인다.
18. 좌,우 양쪽의 원크기를 조절한다.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려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cm
  금액 : 그림만 7만원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new


연꽃향 국내산
연꽃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연꽃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new

강화(사자발)약쑥향 국내산
강화도에서 심고 가꾸어 엄선한 사자발 약쑥으로 만든 완벽한 조합이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당이 전하는 은은한 강화 사자발 약쑥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넘칠 것입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new


향나무향 국내산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D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shcandle.com

조연향당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